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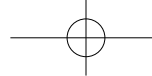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9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9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9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2021.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2021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I. 서론

- 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의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본 특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 본 연구는 제도 현황, 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제도 현황) 제도의 개요,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해외의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함

- (타당성 평가) 정부 개입의 근거와 필요성, 지원방법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여타 정부 정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함

- (효과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수혜자의 특성 등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 결론으로 타당성, 효과성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과세특례의 목표와 합치하는 운영 개선안을 도출하고 세수효과를 분석함

II. 제도 현황

- (정책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의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는 군 장병들이 구매하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 하여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
 - 1975년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04년 이후로는 주류만 대상으로 남았음

- (정책 대상자 및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군인·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함(2020년 기준 63만 8천여 명)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는 자)를 의미함(2020년 기준 72명)

- (수혜 내용)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가 군매점에서 구매하는 면세주류에 대해 면세함
 - 주세가 면세되므로 주세에 대해 부가되는 교육세도 면세되며 주류 이외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는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됨
 - 대상 품목과 대상은 다음과 같음
 -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수혜 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 ② 일반 병 등 군간부가 아닌 경우에는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로 한정
 -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 ③ 하사관 이상 군간부,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의 경우 음용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든 면세품의 구매가 가능함
 - 1997년 이후부터 제한이 없으며, 그 이전에는 대상에 상관없이 주류는 영내에서 음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세가 면세되었음
 - ④ 단, 면세 대상자가 구입한 주류를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양도자로부터 면세된 주세를 징수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의 2)
 - 당해 연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협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구매 한도 및 대상 품목의 선정) 1인당 구매 기준량은 국군복지단장이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정하며 수혜 대상자는 대상별 품목별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함
 - 2020년 기준 신분별 연간 개인 구매 기준량은, 하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희석식 소주 1상자(20병), 맥주 3박스(72개), 위스키 1병 등이며 일반 병사의 경우 희석식 소주 5병, 맥주 12병 등이며 면세 위스키는 구입할 수 없음
 - 일반 병사의 경우 법에 따라 영내에서 음용할 시에만 가능하며, 하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영외 반출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법에 따라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여 납부해야 함
 - 미구매로 인한 잉여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함

<표 1>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	2020 (전망)
주세	410	281	308	305	248	248	266	274
교육세	121	82	91	90	73	73	85	85
합계	531	363	399	395	321	321	351	35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제도연혁)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1975년 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7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7조)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국내 제조 물품에 대해 물품세와 주세를 면제
 -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세의 면제)로 전부 개정
 - 1999년 12월 3일 「개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청량·기호음료, 가전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2000년 1월 10일 군인에게 공급하는 면세 대상 품목을 정비

- 2004년 9월 24일 「개별소비세법」 개정 시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함)와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및 그 관련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 내용 중 개별소비세 면제와 관련한 규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
- 2006년 2월 9일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에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 시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주세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도록 법조문을 재정비

Ⅲ. 타당성 평가

- 군인 대상 주류 면세 정책의 타당성은 국가 개입의 정당성과,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군인의 사기 진작 및 복지혜택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함
-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인정하여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 주류, 담배, 청량음료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한 국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비 행위를 교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소비 균형을 찾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건강보험 재정, 주류 소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시정
 - 하지만 본 제도는 군인의 주류 구입 부담을 국가가 보조하는 정책임
 - 또한, 주류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교정하기 위해 높은 주세를 유지하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본 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지원 대상의 적정성) 군인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와 함께 본 제도를 통해 군인의 사기 진작 및 복지혜택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검토함
 - 과거 사병의 월급 수준이 매우 낮았을 때에는, 면세 적용을 통해 사병의 재정 상황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음

- 하지만, 군간부 및 사병의 보수 수준이 꾸준히 인상되었으며, 분석결과 면세주류는 대부분 간부들에 의해 소비되는 상황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 명분이 줄어들음
 - 2020년 보수월액 하사 기준 276만원, 병장 기준 54만원임

- (지원 방식의 적정성: 형평성 측면) 지원 대상 및 타 공공부문 근로자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타당성을 검토
 - 군납주류면세는 군 장병 전체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류를 소비하는 군인들만을 위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본 제도를 통해 군인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명분도 부족함
 - 군인 복지제도와 인상된 군인들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소방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IV. 효과성 평가

- 조세지출예산서상 동 항목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기준 351억원이며, 당해 정부가 조세지출로 지원한 금액은 군병력 1인당 평균 6만 4,685원으로, 간부 1인당 14만 2천원, 병사 1인당 2만 3천원 수준임
- 군납주류에 대한 면세제도는 군인의 주류 구입 부담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정책으로, 군인의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의 주류 가격탄력성(-0.45로 가정)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통해 약 40% 가격 인하 시 맥주 및 소주·위스키·브랜디 등의 증류주 수요를 평균 약 22%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설문조사¹⁾ 결과, 조사 대상 간부 중 92%가 면세주류를 한 번 이상 구매하였으며, 46.2%의 간부가 한도 초과로 추가로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함

1) 현역 병사 200명, 군제대자 400명에 대해서는 각각 임의표집으로 대면면접 및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군간부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설계한 설문지를 군에 위탁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 소비의 제약이 따르는 현행 제도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 보전을 받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나, 설문조사 결과 면세주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면세 양주 구입을 선호하는 간부가 57.7%, 면세액만큼 소득 보전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간부가 42.3%로, 현행 면세를 통한 현물 보조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5년 설문 시 79.3%의 군간부가 면세주 구매를 선호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최근에는 소득 보전을 선호하는 군간부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음

- 군 집계자료에 따르면 모든 주종에서 연간 구매 물량의 절반 이상이 행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역병·제대자 모두 군 회식행사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응답하여, 면세주류 제공 외에 군 사기 진작을 도모할 대안 마련이 필요
 - 주류가 제공되는 군 회식행사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제대자는 75.4%, 현역사병의 경우 61.6%를 차지함
 - 이외에도 주류가 제공되는 군내 회식이 복무 스트레스 해소, 복무기강 및 복무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V. 결론

- 본 제도는 주류 소비를 재정으로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원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
 - 기획재정부와 국군복지단에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협의하고 있는 바, 점진적으로 면세 한도를 축소해 장기적으로 현행 군납주류면세제도를 폐지해 나갈 필요
 - 단, 군 면세주류의 현물 구입을 소득 보전보다 아직은 더 선호하고, 주류가 제공되는 단합행사가 군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만큼, 주류 면세에 소요되는 재정을 군 단합행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환할 필요

목 차

I. 서론	13
II. 과세특례제도 현황	17
1. 제도의 현황	19
가. 현행 과세특례 제도	19
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연혁	22
2. 군납주류 수혜자 및 구매량	26
3. 군납주류면세 규모	35
4. 군납주류의 유통	41
III.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45
1. 미국	47
2. 일본	51
3. 영국	52
4. 호주	54
IV. 타당성 분석	57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62
가. 정책 목적의 적절성	62
나. 정부 개입의 적절성	72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76
3. 정책 수단(지원 방식)의 적절성	90
4. 소결	96

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99
1. 설문조사	101
가. 설문조사 개요	101
나. 군간부에 대한 설문조사	102
다. 군제대자에 대한 설문조사	103
라. 현역 사병에 대한 설문조사	103
2. 자료 분석 및 결과	104
가. 군간부에 대한 설문조사	104
나. 군제대자에 대한 설문조사	109
다. 현역 사병에 대한 설문조사	118
VI.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27
참고문헌	130
부 록	133
<부록 I> 회귀분석표	135
<부록 II> 설문조사 분석	139
<부록 III> 군간부 조사 설문지	225
<부록 IV> 현역 사병 조사 설문지	229
<부록 V> 군제대자 조사 설문지	236

표 목 차

<표 II-1> 수혜 대상자 추이(2015~2020년)	26
<표 II-2> 군납면세주류의 주종·신분별 연간 1인당 구매 기준량	27
<표 II-3> 군납면세주류 선정 품목(2018~2020년)	28
<표 II-4> 군납면세주류의 주종별 연간 총 구매실적	30
<표 II-5> 군납면세주류의 주종·구분·신분별 연간 1인당 구매실적	32
<표 II-6> 군납면세주류의 알코올 환산 연간 1인당 구매실적	34
<표 II-7> 2019년 군납주류 주종·세목별 면세액 추정규모	35
<표 II-8> 현행 주세율 및 교육세율	36
<표 II-9> 2020년 주종별 군납주류면세액 규모 추정	37
<표 II-10> 2020년 주종별 군납주류 구입비에 대한 조세지원율	38
<표 II-11> 2020년 군 행사용 주류 구입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39
<표 II-12> 2020년 군납주류 주종별 1인당 조세지출액	40
<표 III-1>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맥주	48
<표 III-2>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와인	48
<표 III-3>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증류주	49
<표 III-4> 일본 주세 세율	51
<표 III-5> 영국 주세 세율	52
<표 III-6> 호주 주세 세율	54
<표 IV-1>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적용 품목	60
<표 IV-2> 계급별 평균연봉	64
<표 IV-3> 연도별·계급별 1호봉 월 기준 보수	65
<표 IV-4> 주요 품목 물가 변화	67
<표 IV-5> 주요 품목 가격의 군인 보수 대비 비율	69
<표 IV-6> 음주 횟수	78

<표 IV-7>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 월액	79
<표 IV-8> 1인당 연금 평균 수령액 비교	80
<표 IV-9>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국가보전	81
<표 IV-10> 2019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83
<표 IV-11> 2012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84
<표 IV-12> 2015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84
<표 IV-13> 월간 음주율 통계	88
<표 IV-14> 고위험 음주율 통계	90
<표 IV-15> 동 제도 관련 조세지출내역	92
<표 IV-16> 현역병 입영 현황	92
<표 IV-17> 현역병 대비 조세지출 규모	93
<표 IV-18> 현역병 월 보수 및 가산 지원 금액 비중	94
<표 IV-19> 입대연도별 음주 횟수 분포	95
<표 IV-20> 입대연도별 음주량 분포	95
<표 V-1> 군간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05
<표 V-2> 군간부 군납면세주류 구입량	106
<표 V-3> 군간부의 사병 사기 진작을 위한 군납면세주류 구입량	106
<표 V-4> 군간부의 군납주류면세제도에 대한 의견	108
<표 V-5> 군제대자 응답자 특성	110
<표 V-6> 군복무 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111
<표 V-7> 주류 제공 회식 시 음주량	112
<표 V-8>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113
<표 V-9> 주류를 동반한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	113
<표 V-10>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114
<표 V-11>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	115
<표 V-12>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116
<표 V-13> 현역 사병 응답자 특성	119
<표 V-14>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120
<표 V-15>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121

<표 V-16>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122
<표 V-17> 공적 목적의 주류 제공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122
<표 V-18>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현역 군인 사기	123
<표 V-19>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	124

그림 목 차

[그림 II-1] 일반주류의 유통 과정	42
[그림 II-2] 특정주류의 유통 과정	43
[그림 IV-1] 일부 품목의 비중 추이	70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는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군납주류면세제도는 도입 후 30여 년이 경과하여, 변화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정책 시행이 타당한지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정예강군을 양성해야 할 상황에서 군인들이 중독성이 있고 건강위해식품인 주류를 구입하는 데에 면세를 통해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정책이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하고 그 효과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군 장병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면세제도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과세특례제도의 정책 목적과 정부 역할의 적정성, 정책 대상의 선정과 감면 방법 등 지원 방식의 적절성 및 형평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
 - 1975년부터 도입되어 30여년 넘게 유지된 군인에게 면세를 통해 주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근무여건·주거여건·자녀교육여건·문화생활여건 개선 등 현재 당면한 군의 복지수요에 비추어 타당한 정책인지의 여부를 판단
 - 본 특례제도의 혜택이 주로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즉 현행의 군납주류면세제도는 음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며, 음주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형평성 측면에서 본 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논할 필요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제도의 연혁, 배경 및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은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을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제도 시행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시함
- 제Ⅴ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결과를 제시함
- 제Ⅵ장에서는 제Ⅴ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부록>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기술함

Ⅱ. 과세특례제도 현황



II.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가. 현행 과세특례 제도

-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1975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 원래 1975년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04년 이후로는 주류만 대상으로 남았음
 - 수혜 대상은 군인·군무원·무공훈장 수훈자이며, 2015년의 군납주류면세액 추정치는 총 507억원임
 - 이 중 주세 면세액이 391억원, 교육세 면세액이 116억원이었음
 - 2015년 군납주류 구매를 위해 정부가 조세지출로 지원한 금액은 간부 1인당 16만 7,908원, 병사 1인당 2만 7,270원이었음
 - 간부의 경우 주류의 개별 구입 지원을 위해 1인당 8만 760원, 행사에서 음용할 주류의 구입을 위해 1인당 8만 7,148원을 지원함
 - 병사의 경우 주류 개별 구입 물량은 통계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액 행사에서 음용할 주류의 구입을 위해 지원되었음
 - 2015년 기준 군납주류 구매실적은 연간 알코올량 기준, 하사관 이상 간부 1인당 4,517.65ml, 병사 1인당 연간 1,351.03ml이었음
 - 일반 355ml 4.5도 맥주로 환산하면 간부 1인당 연간 286캔, 병사 1인당 85캔에 해당함

- 도입 목적
 - 군 장병들이 구매하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하여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 기여

□ 수혜 대상

-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
 - 군인·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혜 내용

-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면세주류에 대한 주세 면세
 - 주세가 면세되므로 주세에 대해 부가되는 교육세도 면세
 - 주류 이외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는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

□ 수혜 대상 품목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수혜 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 일반 병 등 군간부가 아닌 경우에는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로 한정하며, 일부 면세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음
 -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 하사관 이상 군간부,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의 경우 음용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모든 면세품의 구매가 가능함
 - 1997년 이후부터 제한이 없으며, 그 이전에는 대상에 상관없이 주류의 경우 영내에서 음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세가 면제되었음
- 단, 면세 대상자가 구입한 주류를 6개월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양도자로부터 면세된 주세를 징수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제4항의 2 및 「군 매점 면세품 운영 훈령」 제12조 근거

□ 면세 한도량

-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협의하여 당해 연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

□ 구매 한도

- 1인당 구매 기준량은 국군복지단장이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정함
- 수혜 대상자는 대상별 품목별 기준량의 한도 내에서 구매함
 - 미구매로 인한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음
 - 개인별 기준량을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국군복지단장이 정함

□ 대상 품목의 선정

- 군 매점에서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은 매년 면세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복지단장이 선정
 - 매년 공고를 통해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 선정
 - 면세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정

□ 공급 및 판매 가격의 결정

- 면세품의 공급가격은 세전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주세 및 교육세는 면세되므로 포함하지 않음
- 면세품의 판매가격은 공급계약 가격에 3%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 가산된 금액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함

□ 면세품의 계약 및 납품

- 납품계약은 국군복지단장과 납품업체 사이에 체결함
- 계약체결 현황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통지함
- 물품은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납품방법, 납품장소,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등은 국군복지단장과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정함

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정 연혁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군 매점 면세품 운영 훈령」

□ 관련 법령

- 「주세법」 제35조 제3항
 -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급 또는 공제
-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

□ 연혁

- 1973년 제도 도입 추진
 - 대통령 국방부 연두 순시에서 직업군인의 생활 안정책 강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인들이 구매하는 물품에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자 도입 추진
- 1975년 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7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7조)
 - * 시행령 본조 신설 1974. 12. 31. 시행 1975. 1. 1.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국내 제조 물품에 대해 물품세와 주세를 면제
 - 「군인사법」 또는 「군속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 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 면세 대상 물품
 - 시계,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술, 전기납비, 커피포트, 전기난로 및 풍로,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및 풍로,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선풍기, 사진기, 믹서, 라디오청취기, 재봉기,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 사탕, 구루타민산소오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197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77. 8. 20. 시행 1977. 7. 1.
 -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솔, 전기남비, 커피포트, 전기난로 및 풍로, 가스레인지,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기, 전기세탁기,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냉장기, 전기세탁기를 새로 포함
 - 시계, 석유난로 및 풍로, 선풍기, 사진기, 믹사, 라디오청취기, 재봉기,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 구루타민산소오다를 제외
- 198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80. 12. 31. 시행 1981. 1. 1.
 -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남비, 커피포트,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기,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창문형 에어컨과 빙과류를 새로 포함
 -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를 칼라를 포함한 텔레비전 수상기로 변경
 - 전기솔, 전기난로 및 풍로, 가스레인지를 제외
- 1982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조세감면규제법」 제 80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 * 시행령 전부개정 1981. 12. 31. 시행 1982. 1. 1.
 -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커피포트,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냉장기를 냉장고로 변경
 - 전기남비를 제외
- 198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법에 맞도록 대상 등의 용어 수정
 - * 개정 1984. 9. 22. 시행 1984. 9. 22.
- 198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85. 12. 31. 시행 1985. 12. 31.
 -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를 새로 추가
 - 커피포트를 제외
- 199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89. 12. 30. 시행 1990. 1. 1.
 -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빙과류를 제외
- 199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91. 12. 31. 시행 1991. 12. 31.
 -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마이크로웨이브오븐을 새로 추가
 -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가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로 변경
- 199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로 변경
- * 개정 1993. 12. 31. 시행 1994. 1. 1.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로 변경
- 199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1995. 12. 30. 시행 1996. 1. 1.
 -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 캠코더, 가스오븐렌지를 새로 추가
 - 사탕을 제외
- 199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류에서 ‘영내에서 음용되는’을 제외
- * 개정 1996. 12. 31. 시행 1997. 1. 1.
- 1999년 법 및 시행령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 * 개정 1998. 12. 31. 시행 1999. 1. 1.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진공청소기, 청량음료, 기호음료, 주류
 - 진공청소기를 새로 추가
 -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가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로 변경
- 200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2000. 1. 10. 시행 2000. 1. 10.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주류
 - 텔레비전 수상기가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PDP TV)로 변경
 -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진공청소기, 청량음료, 기호음료를 제외
 - * 1999년 12월 3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면세 대상 품목 정비
- 2001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2000. 12. 29. 시행 2001. 1. 1.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 주류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에서 관련 제품이 추가됨
-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조정
 - * 개정 2003. 12. 30. 시행 2004. 1. 1.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 TV)와 그 관련 제품, 주류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PDP TV)에서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 TV)로 변경
- 2004년 10월 16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 효력 상실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및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 TV)와 그 관련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실질적인 대상 품목으로 주류만 남음
- 200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대상 물품 정비
 - * 개정 2006. 2. 9. 시행 2006. 2. 9.
- 주류
 -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을 제외

2. 군납주류 수혜자 및 구매량

- 2020년도 기준 군납주류면세 수혜 대상 군인은 63만 7,754명임
 - 이 중 하사관 이상 간부가 42%인 26만 7,598명이었고, 병사가 58%인 37만 156명으로 2015년 대비 간부의 규모는 3만 5,720명 증가하고 병사의 규모는 6만 4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군 인력 추이에 따라 수혜 대상자 중 간부의 규모는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병사의 규모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
 - 군무원 및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는 포함되지 않음

<표 II -1> 수혜 대상자 추이(2015~2020년)

(단위: 명)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자 수	간부	231,878	235,115	231,092	233,484	239,772	267,598
	병사	430,636	442,000	436,259	416,587	383,970	370,156
	계	662,514	677,115	667,351	650,071	623,742	637,754

자료: 국방부

-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종·신분별 연간 1인당 기준량은 <표 II-2>와 같음
 - 하사관 이상 간부의 2020년 연간 면세주류 1인당 기준량은 다음과 같음
 - 희석식 소주 20병(1상자)
 - 맥주 72병(캔)(24캔 들이 3상자)
 - 위스키 0.93병
 - 브랜디 0.31병
 - 증류식 소주 0.32병

- 일반 증류주 0.07병
 - 과실주 0.53병
 - 약주 0.23병
 - 청주 0.07병
 - 리큐르주 0.17병
- 일반 병사의 2020년의 연간 면세주류 개인구매 기준량은 다음과 같음
- 회석식 소주 1.45병(약 14명당 1상자)
 - 맥주 7.2병(켄)(약 3명당 1상자)
 - 과실주, 약주, 청주 및 리큐르주의 경우 1병에서 1set(2~4병)
- 일반 병사의 경우 법에 따라 영내에서 음용하는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함
- 하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 영외 반출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양도 시 법에 따라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하여 납부해야 함

<표 II -2> 군납면세주류의 주종·신분별 연간 1인당 구매 기준량

(단위: 병)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석식 소주	간부	20	20	20	20	20
	병사	4	4	4.7	2.5	1.45
맥주	간부	144	144	144	120	72
	병사	6	7	6.4	11.35	7.2
위스키	간부	2	1.72	1.26	1.1	0.93
	병사	-	-	-	-	-
브랜디	간부	1	0.57	0.42	0.37	0.31
	병사	-	-	-	-	-
증류식 소주	간부	1	0.94	0.98	0.92	0.32
	병사	-	-	1병~1set(2~4병)		
일반 증류주	간부	1	0.24	0.25	0.21	0.07
	병사	-	-	1병~1set(2~4병)		
과실주	간부	3	1	1	1.41	0.53
	병사	1	1	1병~1set(2~4병)		
약주	간부	1	0.91	0.67	0.6	0.23
	병사	-	-	1병~1set(2~4병)		
청주	간부	1	0.27	0.22	0.19	0.07
	병사	-	-	1병~1set(2~4병)		
리큐르주	간부	1	0.63	0.6	0.5	0.17
	병사	-	-	1병~1set(2~4병)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0년에는 군납면세주류로 총 60개 품목이 선정되어 판매되었음

- 희석식 소주 13종, 맥주 12종, 위스키 4종, 브랜디 3종, 증류식 소주 4종, 일반 증류주 4종, 과일주 9종, 약주 4종, 청주 1종, 리큐르주 6종이었음

<표 II -3> 군납면세주류 선정 품목(2018~2020년)

연도	2018	2019	2020
희석식 소주	14종 참이슬클래식, 참이슬후레쉬, 처음처럼, 처음처럼진한, 잎새주, 좋은데이, 참소주, O2린, 한라산, 푸른밤짬은밤, 참이슬클래식640, 참이슬후레쉬500, 처음처럼640, 좋은데이640	14종 참이슬클래식, 참이슬후레쉬, 처음처럼, 처음처럼진한, 잎새주, 좋은데이, 참소주, O2린, 한라산, 푸른밤짬은밤, 참이슬클래식640, 참이슬후레쉬500, 처음처럼640, 좋은데이640	13종 참이슬오리지널, 참이슬fresh, 처음처럼, 처음처럼(PET), 잎새주, 참소주, 대선, 딱좋은데이, 참이슬오리지널640, 참이슬fresh500, 처음처럼640, 시원한청풍640, 푸른밤짬은밤640
맥주	11종 카스캔355, 카스캔500, 클라우드캔355, 클라우드캔500, 클라우드(병), 하이트캔, 맥스병, 맥스캔, 아크허그미캔, 카스큐팩1000, 맥스팩트1000	11종 카스캔355, 카스캔500, 클라우드캔355, 클라우드캔500, 클라우드(병), 하이트캔, 맥스캔, 한강(병),서울(병), 카스큐팩1000, 맥스팩트1000	12종 카스캔355, 카스캔500, 클라우드캔355, 클라우드캔500, 클라우드(병), 하이트캔, 테라캔, 한강(병),서울(병), 카스큐팩1000, 맥스팩트1000, 클라우드1600
위스키	6종 골드윈 3년, 임페리얼 17년, 스카치블루 21년, 뉴스카치블루 17년, 원저 21년, 원저더블유시그니처 17년	5종 골드윈 3년, 임페리얼 17년, 스카치블루 21년, 뉴스카치블루 17년, 원저 21년	4종 골드윈 3년, 스카치블루 21년, 뉴스카치블루 17년, 골든블루서미트
브랜디	4종 가브리엘, 블루아XO, 루도빅XII, 에프왈	3종 가브리엘, 블루아XO, 몽루아XIV	3종 가브리엘, 블루아XO, 몽루아XIV
증류식 소주	6종 화요41, 화요25, 명인안동소주45, 대장부, 유기농이도, 려40	4종 화요41, 화요25, 명인안동소주45, 려40	4종 화요41, 화요25, 려40, 유기농이도32
일반 증류주	4종 100휘, 스미노프레드, 진심인삼주, 보리아락21	4종 100휘, 스미노프레드, 진심인삼주, 보리아락21	4종 100휘, 진심인삼주, 보리아락21, 참조은안동쑈주

<표 II -3>의 계속

연도	2018	2019	2020
과실주	10종 보해복분자, 순금매취순, 샤토마니스위트폴드, 내장산복분자주, 마주양(적), 설중매골드, 명작복분자, 무주구천동머루와인, 이슬톡톡복숭아(캔), 오미로제프리미어	10종 보해복분자, 순금매취순, 샤토마니스위트폴드, 내장산복분자주, 마주양(적), 설중매골드, 명작복분자, 무주구천동머루와인, 이슬톡톡복숭아(캔), 빙탄복	9종 보해복분자, 마주양(적), 내장산복분자주, 명작복분자, 샤토마니스위트폴드, 무주구천동머루와인, 설중매골드, 빙탄복, 고창명주복분자
약주	4종 백세주, 강장백세주, 산사춘, 세종오가니청주	4종 백세주, 강장백세주, 산사춘, 심술7	4종 백세주, 강장백세주, 산사춘, 심술7
청주	2종 청하, R4청주	1종 청하	1종 청하
리큐르주	9종 오매라떡, 맑은송이, 설중매, 산양산삼가든명술, 호담산양산삼, 한비오가피술, 오매락25, 제휘골드, 오매락지관	6종 오매라떡, 맑은송이, 오매락지관, 한비오가피술, 오매락25, 담술40	6종 오매라떡, 맑은송이, 오매락지관, 오매락25, 담술40, 후취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의 주종별 연간 총 구매실적(병)은 <표 II-4>와 같음

- 2020년의 군납면세주류 총 구매량은 3,834만 1,353병이었음
 - 하사관 이상 간부의 개별적인 구입량이 전체의 37%인 1,431만 1,389병이었음
 - 행사용으로 사용된 물량은 전체의 63%인 2,402만 9,964병이었음
- 병수를 기준으로 전체 물량 중 약 78%가 맥주였고, 19%가 소주였음
 - 위스키, 증류식 소주, 과실주가 각각 1%의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주류의 비중은 1% 미만이었음
- 군 집계자료에 따르면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의 경우 연간 구매물량의 절반 이상이 행사용으로 사용되었음
 - 행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종은 맥주로 전체 물량 중 64%가 행사에서 사용되었으며,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는 각각 전체 물량의 62%와 58%가 행사에서 사용됨
 - 간부의 개별 구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류는 청주로 전체 물량 중 74%가 개별 구입 물량이었으며, 증류식 소주, 과실수, 약주 또한 전체 물량의 73%가 개별적으로 소비됨

- 브랜드, 일반 증류주, 리큐르주도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간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매되었음

<표 II -4> 군납면세주류의 주종별 연간 총 구매실적

(단위: 병)

연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희석식 소주	간부	2,799,022	2,769,975	2,861,629	2,747,686	2,755,401
	행사용	5,274,999	4,892,651	4,443,003	4,992,056	4,564,793
	소계	8,074,021	7,662,626	7,304,632	7,739,742	7,320,194
맥주	간부	20,391,301	19,769,633	19,439,765	15,923,998	10,773,190
	행사용	18,389,432	20,826,000	18,120,943	20,750,009	19,037,339
	소계	38,780,733	40,595,633	37,560,708	36,674,007	29,810,529
위스키	간부	174,496	166,398	127,158	110,763	103,294
	행사용	373,805	296,498	229,190	193,102	144,505
	소계	548,301	462,896	356,348	303,865	247,799
브랜드	간부	60,290	63,803	63,383	63,247	54,952
	행사용	148,546	143,390	44,354	53,413	35,132
	소계	208,836	207,193	107,737	116,660	90,084
증류식 소주	간부	123,558	143,976	164,789	145,747	147,720
	행사용	97,844	94,218	81,825	69,394	56,007
	소계	221,402	238,194	246,614	215,141	203,727
일반 증류주	간부	39,884	32,519	37,616	30,435	29,837
	행사용	43,978	26,113	21,815	17,212	14,361
	소계	83,862	58,632	59,431	47,647	44,198
과실주	간부	284,392	339,540	318,415	282,759	249,903
	행사용	295,743	246,527	162,500	144,074	93,659
	소계	580,135	586,067	480,915	426,833	343,562
약주	간부	81,438	101,500	117,950	105,914	103,607
	행사용	81,296	82,215	62,646	61,616	38,442
	소계	162,734	183,715	180,596	167,530	142,049
청주	간부	32,826	32,052	36,096	31,970	35,258
	행사용	23,517	15,547	14,774	17,529	12,672
	소계	56,343	47,599	50,870	49,499	47,930
리큐르주	간부	82,443	89,172	80,005	59,504	58,227
	행사용	92,413	70,146	45,516	40,006	33,054
	소계	174,856	159,318	125,521	99,510	91,281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0년 군납주류 구매실적은 하사관 이상 간부 1인당 91.72병, 병사 1인당 37.27병이었음
 - 이는 주종에 상관없이 하사관 이상 간부는 면세주류를 약 4.0일당 1병, 병사는 9.8일당 1병을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일주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5년 평균 간부는 약 1.8병, 병사는 약 0.7병을 소비하였음
 - 개인 사유로 음주를 하지 않거나 근무 특성상 음주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제 수혜자의 1인당 소비량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군납주류의 연간 1인당 구매실적은 군간부 개별 구매량과 행사용 구매량으로 나누어 주종별로 집계함
 - 간부의 개별 구매량은 주종별 총 개별 구매량을 각 연도 간부의 수로 나누어 산출함
 - 행사용 구매량은 간부에 한정하여 배정된 주류는 각 연도 간부의 수로 나누고, 병사와 간부에게 공통으로 배정된 주류는 각 연도 간부와 병사 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 행사용으로 구매한 분량을 제외한 간부의 1인당 개별 구매량은 연간 53.49병이었음
 - 6.82일당 한 병씩 구입한 셈으로, 일주일에 약 1.02병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음
 - 술을 구매하지 않은 인원이 존재하므로, 실구매자 1인당 구매량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기준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청주·과실주·약주·리큐르주를 간부 1인당 평균 2.93병 구매함
 - 행사용으로 구매한 물량은 2020년 기준 병사 1인당 연간 37.27병, 간부 1인당 38.23병이었음
 - 전 장병이 행사를 통해 약 9.79일당 평균 한 병씩 면세주류를 소비함

<표 II -5> 군납면세주류의 주종·구분·신분별 연간 1인당 구매실적

(단위: 병)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1. 하사 이상 간부의 개별 구입					
위스키	0.74	0.71	0.54	0.46	0.39
브랜드	0.26	0.27	0.27	0.26	0.21
증류식 소주	0.53	0.62	0.7	0.61	0.55
일반증류주	0.17	0.14	0.16	0.13	0.11
청주	0.14	0.14	0.15	0.13	0.13
희석식 소주	11.91	11.87	12.07	11.46	10.3
맥주	86.73	84.72	82.01	66.41	40.26
과실주	1.21	1.46	1.34	1.18	0.93
약주	0.35	0.43	0.5	0.44	0.39
리큐르주	0.35	0.38	0.34	0.25	0.22
(간부 개별 구입 합계)	102.39	100.74	98.08	81.33	53.49
2. 군 행사 사용					
(1) 군간부에 한정하여 배정된 주류					
위스키	1.59	1.27	0.96	0.80	0.54
브랜드	0.63	0.61	0.19	0.22	0.13
증류식 소주	0.36	0.34	0.28	0.25	0.19
일반증류주	0.15	0.09	0.07	0.05	0.05
청주	0.09	0.06	0.06	0.07	0.05
(간부 한정 행사 합계)	2.82	2.37	1.56	1.39	0.96
(2) 사병과 간부에게 공통으로 배정된 주류					
희석식 소주	7.96	7.32	6.72	8.00	7.16
맥주	27.73	31.14	27.41	33.27	29.85
과실주	0.45	0.37	0.25	0.23	0.15
약주	0.12	0.12	0.09	0.10	0.06
리큐르주	0.14	0.10	0.07	0.06	0.05
(공통 행사 합계)	36.40	39.05	34.54	41.66	37.27
(간부 행사 전체 합계)	39.22	41.42	36.10	43.05	38.23
3. 1인당 연간 총 구매실적					
간부 1인당	141.61	142.16	134.18	124.38	91.72
사병 1인당	36.4	39.05	34.54	41.66	37.27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0년 군납주류 구매실적을 1인당 알코올량으로 환산해보면 간부 1인당 연간 2,925.89ml, 병사 1인당 연간 1,067.49ml이었음
 - 주종 및 상품별로 용량 및 알코올 도수가 달라 병 또는 캔으로 집계한 수량의 평균은 주류 소비를 통한 알코올 섭취 수준을 보여주지 못함
 - 2020년 군납주류 60개 품목별 용량, 알코올 도수, 연간 총 판매량 자료를 활용하면 군납주류의 품목별 연간 1인당 알코올량을 계산할 수 있음
 - 품목별 연간 총 판매량을 주종별 간부 개별 구입 수량과 행사용 수량의 비율로 나눈 뒤, 해당 인원의 수로 나누면 간부 1인당 개별 구입 수량, 간부 1인당 행사용 수량, 병사 1인당 행사용 수량을 파악할 수 있음
 - 간부 개별 구입 수량은 군간부의 수로 나누어 간부 1인당 연간 품목별 개별 구입량을 구함
 - 행사용 수량은 군간부에게만 배정된 경우 간부의 수로, 간부와 병사 모두에게 공통으로 배정된 경우에는 간부와 병사 수의 합계로 나누어 1인당 연간 품목별 행사 구입량을 구함
 - 품목별 간부 1인당 개별 구입량, 행사 구입량 및 병사 1인당 행사 구입량에 각 품목의 알코올 도수를 곱하여 알코올량을 구함
 - 각 품목별·신분별·구분별 1인당 알코올량을 합산하여 연간 1인당 알코올량을 구함
 - 2020년 간부 1인당 개별적으로 구입한 주류의 총 알코올량은 1,825.64ml이었고, 행사용 주류 알코올량은 1,100.25ml이었음
 - 소주(360ml, 16.9도)로 환산하면 각각 약 30병, 18병에 해당함
 - 개별 구입과 행사를 합산하면 알코올량 기준으로 2020년의 군납면세주류 구매량은 간부 1인이 매 7.6일마다 소주 1병을 구입한 경우와 같음
 - 맥주(355ml, 4.5도)로 환산하면 각각 약 114캔, 69캔에 해당함
 - 개별 구입과 행사를 합산하면 알코올량 기준으로 2020년의 군납면세주류 구매량은 간부 1인이 매 2.0일마다 맥주 1캔을 구입한 경우와 같음
 - 2020년 병사 1인당 행사용으로 구매한 주류의 연간 총 알코올량은 1,067.49ml이었음
 - 소주(360ml, 16.9도)로 환산하면 약 18병에 해당함
 - 이는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병사 1인에게 매 20.8일마다 소주 1병을 구입해 준 경우와 같음

- 맥주(355ml, 4.5도)로 환산하면 약 67캔에 해당함
- 이는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병사 1인에게 매 5.5일마다 맥주 1캔을 구입해 준 경우와 같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21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알코올 8.3리터였음
 - 군간부들의 군납주류 구매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의 약 35%, 병사들의 구매량은 약 13%에 해당함
- 군납면세주류 외의 주류 섭취 가능성과 군인 중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인원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실수혜자의 연간 총 알코올 섭취량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표 II -6> 군납면세주류의 알코올 환산 연간 1인당 구매실적

(단위: ml)

주종	간부 1인당	간부 1인당	간부 1인당	병사 1인당
	개별 구입	행사 구입	합계	행사 구입
위스키	13.31	18.43	31.74	-
브랜디	7.17	4.44	11.60	-
증류식 소주	18.77	6.48	25.26	-
일반증류주	3.75	1.71	5.46	-
청주	4.44	1.71	6.14	-
희석식 소주	351.54	205.08	556.62	205.08
맥주	1,374.09	854.96	2,229.06	854.96
과실주	31.74	4.30	36.04	4.30
약주	13.31	1.72	15.03	1.72
리큐르주	7.51	1.43	8.94	1.43
합계(알코올 ml)	1,825.64	1,100.25	2,925.89	1,067.49
소주 환산(병) (360ml, 16.9도)	30.01	18.08	48.09	17.55
맥주 환산(캔) (355ml, 4.5도)	114.28	68.87	183.15	66.82

자료: 국방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군납주류면세 규모

- 2019년 기준 군납주류면세액 추정치는 주세 262억원, 교육세 99억원, 도합 433억원이었음
 - 주세 면세액은 맥주가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44억원, 소주 41억원, 브랜디 17억원 순으로 높았음
 - 주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면세액 또한 맥주가 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13억원, 소주 12억원, 브랜디 5억원 등으로 나타남
 - 현행 「주세법」에 따라 주정, 탁주, 약주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음
 - 국세청은 2019년 군납면세 신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주종별 출고수량을 기준도수 환산량으로 변환한 뒤 출고가격과 과세표준, 주세 면세액을 계산하였음
 - 기준도수 환산량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에 따라 기준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한 것임
 -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 소주 및 리큐르주 35도, 희석식 소주 및 기타주류 25도
 - 탁주와 기타주류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추정치 계산에서 제외됨

<표 II -7> 2019년 군납주류 주종·세목별 면세액 추정규모

(단위: 백만원)

주류의 종류	주세 면세액	교육세 면세액	합계
약주	139	-	139
청주	15	2	17
맥주	14,963	4,489	19,452
과실주	376	113	489
소주	4,087	1,226	5,313
위스키	4,395	1,319	5,714
브랜디	1,650	495	2,145
일반증류주	189	57	246
리큐르주	346	104	450
합계	26,160	9,852	43,293

주: 군납면세 신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추계한 수치임. 탁주, 기타주류는 집계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019.

□ 현행 주세율은 다음과 같음

-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 시 1kl당 4만 1,700원, 2021년 3월 1일 이후 1kl당 4만 1,900원
- 약주, 과일주, 청주: 30%
-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 시 1kl당 83만 300원, 2021년 3월 1일 이후 1kl당 83만 4,400원
 -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 시 80%
-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주: 72%

□ 교육세는 주세액에 10% 또는 30%를 가산하여 부과함

- 과일주, 청주: 10%
-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주: 30%
- 주정, 탁주, 약주에 대해서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II -8> 현행 주세율 및 교육세율

(단위: %)

주류명	기준 도수	주세율	교육세율	비고
발효주류	탁주	7도	41,900원/kl	-
	약주	11도	30	-
	과실주	12도	30	10
	청주	16도	30	10
	맥주	4도	834,400원/kl	30
증류주류		72	30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주
기타주류		72	30	별표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	10	별표 제4호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
		30	10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주정	95도	57,000원/kl	-	1도 초과마다 600원 가산

주: 1. 교육세율은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 초과인 주류는 100분의 30,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주류는 100분의 10이며, 탁주, 약주, 주정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주세법」 별표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자료: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0년의 군납주류면세액은 총 약 30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주세 면세액이 약 233억원, 교육세 면세액이 약 69억원이었음
 - 2020년 주종별 주세 면세액은 맥주가 약 1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약 43억원, 희석식 소주 약 24억원, 브랜디 약 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음
 - 2020년 주종별 교육세 면세액 역시 맥주가 약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약 13억원, 희석식 소주 약 7억원, 브랜디 약 5억원의 순으로 뒤를 이음
 - 2020년 군납주류 주종별 면세액 규모는 국방부에서 제공한 상품별 공급가 및 연간 총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 각 상품별 공급가에 연간 총판매량을 곱하고 해당 주세율을 적용하면 상품별 연간 총 주세 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연간 총 주세 면세액에 해당 교육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총 교육세 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각 상품별 주세 및 교육세 면세액을 주종별로 합산하면 주종별 연간 총면세액의 계산이 가능함
 - 상품별 판매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세 및 교육세 면세액은 조세지출예산서의 추정치와 거의 일치함

<표 II -9> 2020년 주종별 군납주류면세액 규모 추정

(단위: 백만원)

주류의 종류	주세액	교육세액	합계
약주	93	-	93
청주	14	1	16
맥주	12,894	3,868	16,762
과실주	434	43	477
증류식 소주	902	271	1,173
희석식 소주	2,407	722	3,129
위스키	4,274	1,282	5,557
브랜디	1,675	502	2,177
일반 증류주	175	53	228
리큐르주	466	140	606
합계	23,335	6,883	30,218

자료: 국방부에서 제공한 「2020년 상품별 공급가 및 연간 총판매량」 자료(내부자료)에 현행 주세율을 적용하여 저자 계산

- 2020년 군납면세주류의 판매 총액은 약 385억원이었고, 이는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구입비용 중 약 44.0%가 정부로부터 지원되었음을 의미함
 - 2020년 군납주류의 판매 총액 중 54%가 맥주 매출액이었고 17%가 위스키, 11%가 희석식 소주 매출액이었음
 - 총구입비 중 조세로 지원되는 비율인 조세지원율은 평균 44.0%이었음
 - 조세지원율 = 면세 총액 / (면세 총액 + 판매 총액)
 - 실제 판매액은 판매마진을 포함하므로 면세주류에 대한 조세지원율은 이보다 다소 낮아짐
 - 세율이 낮거나, 판매마진 비중이 높은 주류의 경우에도 조세지원율이 낮아지게 됨

〈표 II -10〉 2020년 주종별 군납주류 구입비에 대한 조세지원율

(단위: 백만원, %)

주류의 종류	판매 총액	면세 총액	조세지원율
약주	342	93	21.4
청주	57	16	21.9
맥주	20,669	16,762	44.8
과실주	1,642	477	22.5
증류식 소주	1,380	1,173	45.9
희석식 소주	4,356	3,129	41.8
위스키	6,531	5,557	46.0
브랜디	2,559	2,177	46.0
일반 증류주	273	228	45.5
리큐르주	699	606	46.4
합계	38,507	30,218	44.0

자료: 국방부에서 제공한 「2020년 상품별 공급가 및 연간 총판매량」 자료(내부자료)에 현행 주세율을 적용하여 저자 계산

- 2020년 군 행사에서 음용할 주류의 구입에 소진된 재정지출액은 약 395억원이었고, 이 중 44%인 약 175억원이 면세를 통한 조세지출로 집행됨
 - 행사용 주류 구입을 위해 군에서 2020년 예산으로 직접 지출한 금액은 약 220억원이었음
 - 이는 조세지출액을 합산한 총 주류 구입 재정지출 중 약 56%에 해당함

- 맥주 구입을 위한 지출액이 약 1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구입비 약 38억원, 회석식 소주 구입비 약 27억원 순으로 많았음
- 행사용 주류 구입을 위해 면세 형태로 지원된 조세지출액의 규모를 주종별로 살펴보면 맥주가 약 1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스키 약 32억원, 회석식 소주 약 20억원 순으로 많았음
- 간부와 병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회석식 소주와 맥주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약 127억원이었음
- 행사용 주류 구입을 위한 군 예산지출액 중 회석식 소주와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한 지출액은 약 49억원이었음
- 이는 군 행사용 회석식 소주와 맥주에 대한 조세지출액 규모의 약 38% 수준임

<표 II -11> 2020년 군 행사용 주류 구입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주류의 종류	군 예산지출	조세지출	합계
약주	93	25	118
청주	15	4	19
맥주	13,199	10,704	23,904
과실주	448	130	578
증류식 소주	379	322	702
회석식 소주	2,716	1,951	4,668
위스키	3,809	3,241	7,049
브랜드	998	849	1,847
일반증류주	89	74	163
리큐르주	253	219	473
합계	21,999	17,521	39,519

자료: 국방부에서 제공한 「2020년 상품별 공급가 및 연간 총판매량」 자료(내부자료)에 현행 주세율 및 각 주종별 행사용 물량 비율을 적용하여 저자 계산

- 2020년 군납주류 구매를 위해 정부가 조세지출로 지원한 금액은 간부 1인당 8만 4,659원, 병사 1인당 2만 432원이었음
- 간부의 경우 주류의 개별 구입 지원을 위해 1인당 4만 7,448원, 행사에서 음용할 주류의 구입을 위해 1인당 3만 7,211원을 지원함

- 주종별로는 맥주 구입을 위한 지원규모가 간부 1인당 3만 9,423원으로 가장 컸고, 위스키 구입을 위한 지원액이 간부 1인당 2만 765원으로 뒤를 이음
- 병사의 경우 행사에서 음용할 주류의 구입을 위해 1인당 2만 432원을 지원함
- 주종별로는 맥주 1만 6,785원, 희석식 소주 3,060원이었음

<표 II -12> 2020년 군납주류 주종별 1인당 조세지출액

(단위: 원)

간부 1인당	개별 구입			행사 수량			전체		
	주세	교육세	계	주세	교육세	계	주세	교육세	계
위스키	6,658	1,998	8,656	9,315	2,794	12,109	15,973	4,792	20,765
브랜디	3,818	1,145	4,963	2,441	732	3,173	6,258	1,877	8,136
증류식 소주	2,444	733	3,177	927	278	1,205	3,371	1,011	4,382
일반증류주	442	133	574	213	64	276	655	196	851
청주	39	4	43	14	1	15	53	5	59
희석식 소주	3,386	1,016	4,402	2,354	706	3,060	5,740	1,722	7,462
맥주	17,414	5,224	22,638	12,912	3,873	16,785	30,325	9,098	39,423
과실주	1,179	118	1,297	185	19	204	1,364	136	1,500
약주	254	0	254	40	-	40	294	-	294
리큐르주	1,111	333	1,444	265	79	344	1,376	413	1,788
합계	36,744	10,704	47,448	22,817	8,547	37,211	59,561	19,251	84,659
병사 1인당	개별 구입			행사 수량			전체		
	주세	교육세	계	주세	교육세	계	주세	교육세	계
희석식 소주	-	-	-	2,354	706	3,060	2,354	706	3,060
맥주	-	-	-	12,912	3,873	16,785	12,912	3,873	16,785
과실주	-	-	-	185	19	204	185	19	204
약주	-	-	-	40	-	40	40	-	40
리큐르주	-	-	-	265	79	344	265	79	344
합계	-	-	-	15,755	4,678	20,432	15,755	4,678	20,432

자료: 국방부에서 제공한 「2020년 상품별 공급가 및 연간 총판매량」 자료(내부자료)에 현행 주세율, 2020년 군간부 및 병사 수, 주종별 간부 개별구매비율을 적용하여 저자 계산

4. 군납주류의 유통

- 군납면세주류는 제조자가 군으로 직접 공급하고, 군에서 유통을 맡음
 - 제조자는 군납면세주류의 출고 시 국세청에 주세를 신고함
 - 면세주류 품목은 매년 군의 면세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
 - 매년 면세품 선정공고를 내고 납품 희망업체로부터 품목을 접수받아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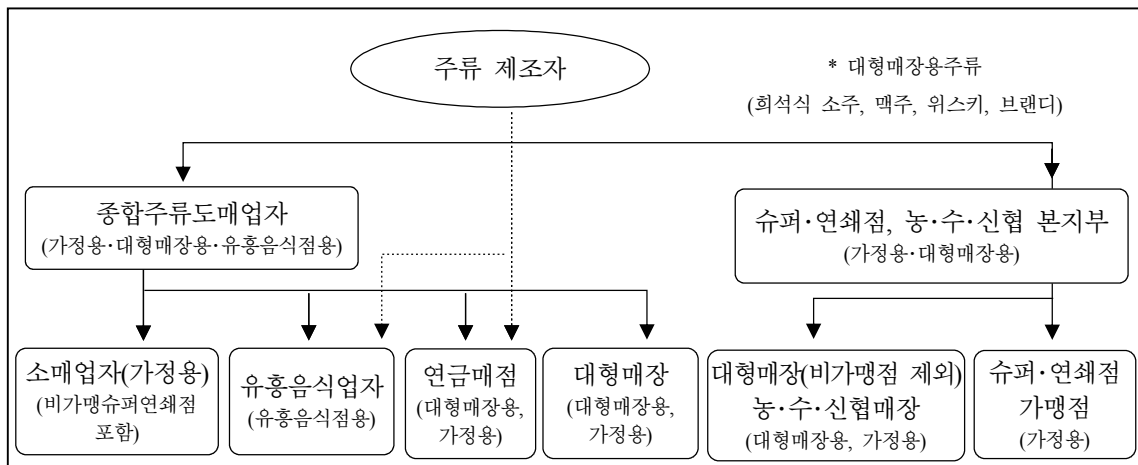
- 군납주류는 주상표와 납세병마개 등에 군납용을 표시해야 함
 -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해야 함
 -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함
 -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cm 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하고,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에는 적색으로 “군납”이라고 표시해야 함

- 군납 면세용이 아닌 주류의 유통은 일반주류와 특정주류별로 다르게 이루어짐
 - 특정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등임
 - 일반주류는 특정주류를 제외한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등의 주류임

- 일반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를 통해 유통됨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공급함
 - 가정용 주류는 소매업자(비가맹슈퍼연쇄점 포함), 연금매점, 대형매장을 통해 유통됨
 - 대형매장용 주류는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중 연금매점 또는 대형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주류임
 -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를 통해 유통됨
 - 슈퍼·연쇄점, 농·수신협 본지부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로 중기업 면허가 있는 경우, 가맹점에 대해 가정용 또는 대형매장용 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 대형매장용 주류는 희석식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로 대형매장(비가맹점 제외), 농·수·신협매장을 통해 유통됨
- 가정용은 가맹점인 슈퍼·연쇄점, 대형매장(비가맹점 제외), 농·수·신협매장을 통해 유통됨
- 주류 제조자는 연금매점 또는 유통음식업자에게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
 - 연금매장이 주류 제조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유통과정의 단축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

[그림 II -1] 일반주류의 유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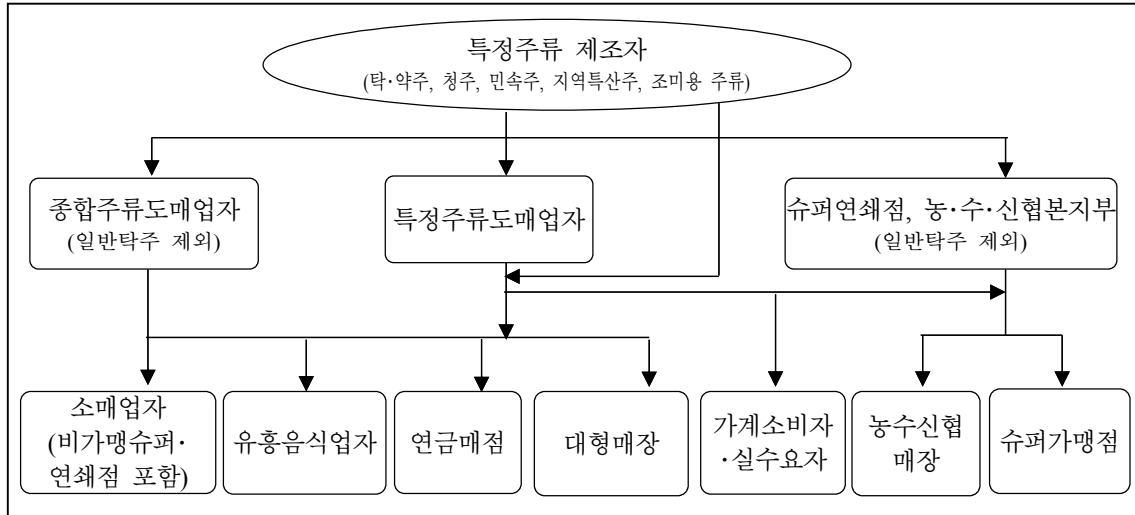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사무처리규정」

- 특정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를 통해 유통됨
 -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 탁주를 제외한 특정주류를 유통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비가맹슈퍼·연쇄점 포함), 유통음식업자, 연금매점, 대형매장에 공급함
 -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특정주류를 소매업자(비가맹슈퍼·연쇄점 포함), 유통음식업자, 연금매점, 대형매장, 가계소비자·실소비자, 농수신협 매장, 슈퍼 가맹점에 공급함
 - 슈퍼·연쇄점, 농·수신협 본지부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로 중기업 면허가 있는 경우 가맹점에 대해 일반탁주를 제외한 특정주류를 공급할 수 있음
 - 특정주류제조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함

-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직접 유통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도매업자이므로 직접 공급할 수 있음

[그림 II -2] 특정주류의 유통 과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사무처리규정」

Ⅲ.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Ⅲ.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 전 세계적으로 일부 저개발국을 제외하면 군납주류에 특정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연방 주세는 군납주류에 대해서도 부과되며, 주(state) 및 지방(county, local) 주세는 군 부대가 조세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됨
 - 일본의 경우 군 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음
 - 영국과 호주에서는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면세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일부 국가에서는 군납주류에 대한 면세 없이도 군부대 내에서 주류가 시중에서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
 - 군부대 내의 주류가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며 일반인보다 군인들의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저렴한 주류 가격은 일부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및 이에 따른 복무기강 저하와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주요국의 감사 및 보건 관련 기구들은 군내 주류의 판매가를 시중 판매가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 미국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주세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연방정부의 주세는 종량세로 과세됨(박상원 외, 2009)
 - 맥주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배럴당 18달러가 과세되는데, 2020년 임시 제정되었던 맥주 감면 세율이 영구적으로 적용됨
 - 감면 대상 외국 양조업자로부터 수입업자가 당해 연도에 미국으로 수입한 맥주 혹은 200만배럴 이상 생산하는 양조자의 맥주 최초 6만배럴에는 16달러 세율을 적용

- 연간 200만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배럴까지는 3.5달러 적용

<표 III-1>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맥주

(단위: 달러)

품목	구분	세금	
		기준(단위)	세율
맥주	기본	배럴(31갤런)	18.00
	감면 대상 수입업자 혹은 200만배럴 이상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배럴까지	배럴(31갤런)	16.00
	200만배럴 이하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배럴까지	배럴(31갤런)	3.50

자료: 박상원 외(2009) 및 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의 자료(<https://www.ttb.gov/tax-audit/tax-and-fee-rates#beer>, 검색일자: 2021. 7. 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와인의 경우 생산량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국내 와인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와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으며 세액공제를 수입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 사과와인을 제외한 와인의 경우 최초 3만와인갤런의 경우 1와인갤런당 1달러, 3만와인갤런 이상 13만와인갤런 미만의 경우 1와인갤런당 90센트, 13만와인갤런 이상 75만와인갤런 미만의 경우 53.5센트만큼 공제됨
 - 사과와인의 경우 최초 3만와인갤런의 경우 1와인갤런당 6.2센트, 3만와인갤런 이상 13만와인갤런 미만의 경우 1와인갤런당 5.6센트, 13만와인갤런 이상 75만와인갤런 미만의 경우 3.3센트만큼 공제됨

<표 III-2>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와인

(단위: 달러)

품목	구분	와인갤런당 세율	세액공제 후 유효세율		
			최초 3만와인갤런	3만~13만와인갤런	13만~75만와인갤런
와인	알코올 도수 16% 이하	1.07	0.07	0.17	0.535
	16% 초과 21% 이하	1.57	0.57	0.67	1.035
	21% 초과 24% 이하	3.15	2.15	2.25	2.615
	자연발포(naturally sparkling)	3.40	2.40	2.50	2.865
	인공탄산(artificially carbonated)	3.30	2.30	2.40	2.765
	사과와인(hard cider)	0.226	0.164	0.17	0.193

주: 와인갤런은 약 3.8리터

자료: 박상원 외(2009) 및 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의 자료(<https://www.ttb.gov/tax-audit/tax-and-fee-rates#wine>, 검색일자: 2021. 7. 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알코올 도수가 24%를 초과하는 와인은 증류주(distilled spirits)로 분류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III-3〉 미국 연방 주세 세율 - 증류주

(단위: 달러)

품목	구분	세금	
		기준(단위)	세율
증류주	기본	프루프갤런	13.50
	감면 대상 수입업자 혹은 국내 증류주 공장의 최초 10만프루프갤런	프루프갤런	2.70
	국내 증류주 공장의 10만프루프갤런 이상 2,223만프루프갤런 미만	프루프갤런	13.34

주: 프루프갤런 = 1갤런×알코올 도수×2÷100
 자료: 박상원 외(2009) 및 미국 주류담배과세무역청의 자료(<https://www.ttb.gov/tax-audit/tax-and-fee-rates#ds>, 검색일자: 2021. 7. 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연방정부의 주세(federal excise tax on alcoholic beverages)는 미국 내의 군 매점에서 판매되는 주류에 대해서도 부과됨
 - 연방정부의 주세는 제조업자(수입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부과됨
 -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즉시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정부의 주세를 포함한 각종 소비세(excise tax)의 과세 대상임
 - * US Department of the Army,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Operations(Army Regulation 215-8, AFI 34-211(I)), Chapter 15-1.
-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세는 면제됨
 - 일반적으로 군 매점 판매 물품에 대해서는 주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비세(excise tax)와 판매세(sales tax)가 면제됨
 - 이는 역사적으로 군 매점이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military reservation)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연방정부 직할구역(federal jurisdiction)이었기 때문임
 - CBO(1997, pp. 76~77)에 따르면 1995년 기준 군 매점 판매 주류에 대한 총면세액은 약 5천만달러에 달하였음

- 주세 면세에 따른 주 및 지방정부 세수 손실은 육군 및 공군 약 3,800만달러, 해군 약 1,200만달러, 해병대 약 300만달러로 추산됨

□ 최근 미군에서는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군 매점의 주류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 구입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한 연구에 따르면 18~25세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비율은 32.2%로 같은 연령대 민간인의 17.8%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Ames and Cunradi, 2004)

- 과도한 음주는 지난 30일 동안 적어도 한 주에 한 차례 이상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경우를 뜻함

- 군인들이 과도하게 음주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무료함, 외로움, 다른 여가 활동의 부재뿐만 아니라 손쉽고 저렴한 주류 구입 기회, 행사와 의식을 통한 과도한 음주 등이 지적됨

□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을 시중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미 국방부는 군 매점의 주류(증류주) 판매가격 수준을 시중가격의 90~95% 수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함(DOD, 1999; DOD Instruction #1330.09)

- 주정부 주류통제위원회(Alcohol Beverage Control Board)에서 규제하는 경우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함

- 이외의 주에서는 시중가보다 5%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해외 부대의 증류주 판매가격은 현지 가격이 미국 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 미국 내 부대 판매가격 수준으로, 현지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에는 현지 가격에서 10% 이내 수준으로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함

- 하지만 미국에서는 판매가에 판매세(sales tax)가 가산되며, 군 매점에서는 지방세인 판매세가 면세되므로 군 매점 주류의 실제 최종 판매가는 인근 소매상의 최종 판매가보다 9~27%가량 저렴함

-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내 판매 주류 가격을 지역 소매가보다 할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미군에서는 군 매점의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해군의 경우 2013년 8월부터 소규모 매점(mini mart)에서의 증류주 판매를 중단하였고, 군내 모든 매점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류 판매를 금지함

2. 일본

- 일본의 주세는 국세로, 알코올도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과세됨(박상원 외, 2009)
 - 일본의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발포성 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III-4〉 일본 주세 세율

(단위: 엔)

품목	구분	알콜도수	1kL당 세율
발포성 주류	맥주 및 맥아비율 50% 이상 발포주	20도 미만	220,000
	발포주(맥아비율 25~50%)	10도 미만	178,125
	발포주(맥아비율 25% 미만)	10도 미만	134,250
	그 외의 발포성 주류	10도 미만	80,000
양조주류	청주	22도 미만	120,000
	과실주	-	80,000
	그 외의 양조주	20도 미만	140,000
증류주류	소주	20도	200,000 ¹⁾
	위스키/브랜디/스피리츠	37도	370,000 ¹⁾
혼성주류	리큐어/감미 과실주	12도	120,000 ¹⁾
	그 외의 혼성주류	20도	220,000 ²⁾

주: 1. 기준 도수에서 1도 증가당 10,000엔씩 가산됨

2. 기준 도수에서 1도 증가당 11,000엔씩 가산됨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ake/senmonjoho/kaisei/aramashi2017/index.pdf>, 검색일자: 2021. 7. 9.

- 일본 육상 자위대(自衛隊)의 매점에서는 주류(酒類)를 판매하지 않으며, 따라서 군 매점 판매 주류에 대한 면세 혜택도 존재하지 않음
 - 즉, 영내 매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여 숙소로 가져가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영내의 대원 클럽에서는 주류를 판매함
 - 즉, 클럽의 운영규칙에 따른 통제하에 영내에서 주류의 음용이 가능함
- 영내외에서 개최되는 연회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

3. 영국

- 영국은 주류에 대해 종량세의 방식으로 주세를 과세함(박상원 외, 2009)
 - 과세 대상 주류는 증류주, 와인, 맥주, 과일주로 구분되며, 각 주종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함
 - 영국 주세는 2019년 2월 1일 개정 이후로 유지 중임

〈표 III-5〉 영국 주세 세율

(단위: 파운드)

품목	구분	알코올 도수	100L당 세율	
맥주 (Beer)	기본	2.8도 초과~7.5도 이하	19.08	
		7.5도 초과	24.77	
		2.8도 이하	8.42	
과실주 (Cider and Perry)	무탄산 과실주 (Still cider and perry)	1.2도 초과~6.9도 미만	40.38	
		6.9도 이상~7.5도 이하	50.71	
		7.5도 초과~8.5도 미만	61.04	
	스파클링 과실주 (Sparkling cider and perry)	1.2도 초과~5.5도 미만	40.38	
		5.5도 초과~8.5도 미만	288.10	
스피리츠 (Spirits)	기본	22도 초과	28.74	
와인 (Wine and made-wine)	기본	1.2도 초과~4도 이하	91.68	
		4도 초과~5.5도 이하	126.08	
		15도 초과~22도 이하	396.72	
	무탄산 와인 (Still wine and made-wine)	5.5도 초과~15도 이하	297.57	
		스파클링 와인 (Sparkling wine and made-wine)	5.5도 초과~8.5도 미만	288.10
			8.5도 이상~15도 이하	381.15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excise-duty-alcohol-duty/alcohol-duty-rates-from-24-march-2014>, 검색일자: 2021. 7. 12.

- 영국은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다만, 군내 주점(Mess)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이 외부 주점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함
 - 군내 주점의 저렴한 주류 가격은 주점 측의 가격 책정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정부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은 아님
 - 군내 주점의 저렴한 주류 가격은 영국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인으로 빈번히 지적됨

- 최근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 영국 군대에는 과도한 음주문화가 있으며, 군인들이 일반 민간인들보다 음주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음(Aguirre et al., 2014)

- 영국 군인들에게 과도한 음주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됨(Alcohol Concern, 2012)
 - 모병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음주량이 많은 집단이 선발되는 경향이 있음
 - 군대 내부의 강한 결속감, 전우애, 비공식적인 의례문화 등이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 높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훈련 등이 없는 평시기에 건전한 취미활동 등의 부재 및 폭넓은 대인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로 음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남성 군인들의 암묵적인 동료 압력(peer pressure)으로 여성 군인들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주류의 저렴한 가격 수준과 구매의 용이성으로 인해 과도한 음주가 조장되는 경향이 있음

- 군인들의 과도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들과 사회단체는 주류 가격 인상 및 판매 관련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Alcohol Concern, 2012)
 -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됨

- 주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타 상품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주류 소비 억제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적됨
- 군 매점 등의 주류 판매 억제 역시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4. 호주

- 호주 주세는 2021년 2월 1일 개정된 이후로 유지 중임
 - 맥주에 대한 소비세는 알코올 도수 1.15%를 초과하는 완제품에 대해서 과세됨
 - 또한 호주는 와인 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와인 가격의 29%에 해당함

〈표 III-6〉 호주 주세 세율

(단위: 파운드)

품목	구분	알코올 도수	알코올 리터당 세율
맥주 (Beer)	48리터 미만 개별 용기	3% 이하	44.45
		3% 초과~3.5% 이하	27.84
		3.5% 초과	51.77
	48리터 이상 개별 용기	3% 이하	8.89
		3% 초과~3.5% 이하	27.84
		3.5% 초과	36.47
	상업용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여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맥주	3% 이하	3.13
3% 초과		3.60	
기타주류 (Spirits and other)	브랜디	-	81.89
	기타	10% 이하	87.68
		10% 초과	87.68

자료: 호주 정부,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on-alcohol/lodging,-paying-and-rates---excisable-alcohol/excise-duty-rates-for-alcohol/>, 검색일자: 2021. 7. 13.

- 호주에서는 군 매점 판매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 군내 주점(Mess)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 및 와인 균등세를 면제하지 않음

- 호주의 군 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편임(Australian Government DOD, 2011)
 - 세금 면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매점 및 주점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용 일부를 군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비용 및 이윤 절감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함
 - 따라서 군인의 과도한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류의 최저 판매가를 제한하고, 판촉활동 및 판매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호주 국방부는 2015년 군내 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판매가를 일괄 인상하였음
 - 이전까지 군내 주점(Mess)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 주점 운영위원회(Mess committee)에서 결정해 왔음
 - 통상적으로 주점 운영위원회는 이윤을 줄이는 대신 주류의 가격을 원가 수준에 가깝도록 저렴하게 설정함
 -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주류 가격을 일괄 인상하였음
 - 첫째, 주류 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과도한 음주를 억제하고 군내 주취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둘째,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여 군내 주점 운영비를 확보하고 음주 관련 교육·홍보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함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 본 장에서는 동 제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 정책적 타당성은 계량적인 비용 편익 분석 외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제도의 평가에 필수적인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 예를 들어, 계량적으로는 비용 대비 편익이 작게 검토되어도, 특정 계층을 지원하거나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제도 및 법과의 부합성 문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교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임
 - 특히 국민의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의 주요 내용임
 - 동 제도가 제도 대상자 및 비대상자의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 기존 정책과의 일치성 여부 등을 검토
 - 본 장에서는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 제도 환경의 변화,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수단의 적절성 등을 위주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함

- 동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선 관련 법령의 내용을 검토함
 -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별소비세와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 또는 태극·을지무공훈자 수훈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군이 직영하는 매점을 예로 들면 군마트(영내 판매(PX), 공군 판매(BX)) 등이 있으며,
 - 영외마트는 계룡대쇼핑타운, 진해쇼핑타운, 두미르쇼핑타운(춘천), 상무대쇼핑타운(장성), 자운대쇼핑타운(대전), 창원쇼핑타운, 평택쇼핑타운 등이 있음

-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는 일부 면세주류 제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음
- 군 면세주류의 종류는 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양주), 청주, 과일주 등이 있음
- 또한 매년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정해지며, 개인별 구매 한도량이 있음
- 반면 군인 등에게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재 없음

□ 1975년 동 제도가 신설된 이후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가 적용된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1>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적용 품목

시행연도	주요 면제 품목
1975. 1. 1.	시계,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솔, 전기담비, 커피포트, 전기난로 및 풍로,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및 풍로,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선풍기, 사진기, 믹사, 라디오청취기, 재봉기,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 사탕, 구루타민산 소오다,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77. 7. 1.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솔, 전기담비, 커피포트, 전기난로 및 풍로, 가스레인지,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기, 전기세탁기,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냉장기, 전기세탁기
1981. 1. 1.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담비, 커피포트,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기,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82. 1. 1.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커피포트,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85. 12. 31.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빙과류,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90. 1. 1.	냉방냉풍기로서 창문형인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91. 12. 31.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1996. 1. 1.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청량음료, 기호음료, 영내에서 음용되는 주류

<표 IV-1>의 계속

시행연도	주요 면제 품목
1999. 1. 1.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수상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및 레코더, 축음기, 음성재생기를 포함한 녹음기, 냉장고, 전기세탁기,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진공청소기, 청량음료, 기호음료, 주류
2000. 1. 10.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주류
2001. 1. 1.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 주류
2004. 1. 1.	냉방냉풍기에 한하는 공기조절기,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프로젝션 TV)와 그 관련 제품, 주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위에서 정리한 면제 품목의 추이를 살펴보면, 개별소비세 면제 품목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정비 작업과 함께 면제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04년 10월 16일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 효력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는 주류만 군인 등 대상 면제 품목으로 남게 됨
 - 「특별소비세법」의 주요 개정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11개 품목에 대해 과세 품목에서 제외함
 - 과세 대상 제외 품목은 골프용품, 모터보트 및 요트,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 영상기 및 촬영기, 공기조절기(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등임

□ 본 장에서 살펴볼 정책적 타당성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정부 역할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정책 목적이 타당한지,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봄
 - 제도가 도입된 당시 상황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일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동 제도가 유효한지 검토함
- 다음으로 지원 대상이 적절한지 살펴봄
 - 군인에 대한 지원 정당성을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주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지원 수단이 적절한지 살펴봄
 - 세계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가상의 상황과 비교하여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검토함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 동 제도와 관련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정책 목적의 적절성은 정책 목적이 당시에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시점에서 초기 정책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봄으로써 판단함
 - 이를 위해 시대적 환경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정책 목적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함
 - 군인의 처우 개선 상황을 검토하고, 기타 직종과의 비교 검토를 진행
 - 또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 제도가 그 동안 정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 동 제도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앞으로 동 제도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그 정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함

가. 정책 목적의 적절성

- 군 면세품 운영의 시행 동기는 1973년 3월 31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부 연두 순시에서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에 따른 것임
 - 그 이후 동 제도는 197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입 당시 개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운영하다, 2004년 이후로는 주류만 면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목표는 직업 군인의 생활 안정이 1차적인 목적이며, 군인의 복지혜택을 보장함으로써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군인의 생활이 개선되고,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제도 적용범위는 점차 축소됨
-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군인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제도 도입 당시 군인의 평균 보수를 살펴봄으로써 정책 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함
 - 군 급여의 시작은 최초 회계연도인 1948년 4월 1일 기준이며, 소위는 월 1만원, 대장은 월 3만원이 지급되었음
 - 참고로 당시 백미 한가마(100L)가 1만 7,400원으로 초급장교의 급여 수준은 쌀 한가마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군인 보수는 과거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1950년대에는 6.25 전쟁과 전후 복구시기를 거치는 동안 악성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화폐가치의 급락과 세출·세입의 불균형, 2차에 걸친 통화개혁 등으로 봉급 정액이 13차례에 걸쳐 바뀌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음
 - 1950년 봉급 인상률은 150%, 1952년에는 200%, 1953년에는 433%였음
 - 이후 1962년 3월부터는 기존 계급별 단일 호봉제도를 개선하여 계급별 호봉제를 실시함
 -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하기 시작
 - 1963년에는 「군인보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제정으로 안정된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함
 - 이러한 노력 끝에, 1966~1970년까지는 많게는 한해 60%에서 적게는 18.5%씩 봉급 인상이 있었으나,
 - 1970년대 초까지 여전히 실질 생계비 보장은 미흡했음
 - 1972년에 들어서 적정 수준의 급여체계 보완 작업을 진행함
 - 1983년에 「군인보수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보수 통폐합에 따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의거하여 보수가 지급되기 시작함
 - 군인 보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과 1999년에는 급여가 동결됨
 - 동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역시 군인들의 봉급 수준이 실질 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를 적용한 동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남과 북의 대치가 삼엄하였던 과거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 처우에 대한 국가의 보장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였음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목적은 적절하게 설계되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연도별 군인의 봉급 수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인 군인의 생활 수준 변화를 검토함

- 우선 참고자료로 <표 IV-2>는 비교적 최근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군인 계급별 평균연봉을 보여줌
 - 군인 연봉은 최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2012~2019년을 기준으로 소위의 연평균 연봉 인상률은 약 3.4%이며,
 - 2012~2019년 하사의 연평균 연봉 인상률은 약 3.5%이며, 소위의 연평균 인상률은 약 3.4%임
 - 참고로 이 기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1.3%로 군인의 연봉 상승률은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2> 계급별 평균연봉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장	123,042	126,356	128,436	133,212	136,981	141,188	144,703	147,202
중장	116,447	119,702	121,745	126,434	130,136	134,270	137,723	140,173
소장	102,334	105,731	107,714	112,246	115,806	117,710	124,826	127,110
준장	93,110	96,251	98,074	102,238	105,510	108,907	114,023	116,104
대령	92,988	96,022	97,812	101,903	105,128	107,110	111,166	113,231
중령	82,079	84,774	86,362	89,990	92,848	94,831	98,171	99,991
소령	63,199	65,255	66,464	69,206	71,363	73,610	75,512	75,595
대위	43,492	44,894	45,701	47,549	48,871	50,237	51,976	52,926
중위	26,436	27,338	27,859	29,050	29,903	30,781	32,606	33,202
소위	24,202	25,020	25,493	26,572	27,342	28,138	29,735	30,284
준위	69,892	72,294	73,684	76,882	79,258	80,694	84,162	85,783
원사	65,503	68,497	70,937	73,870	76,033	77,376	80,496	82,075
상사	51,773	54,269	55,246	57,440	59,060	60,750	62,641	63,949
중사	36,896	38,620	39,276	40,764	41,840	42,956	44,681	45,685
하사	20,658	21,370	22,877	23,849	24,664	25,391	27,019	29,287

자료: 국방부, 『2019 국방통계연보』, 2019.

- <표 IV-3>은 1965년 이후 하사, 소위, 소령, 준장 등의 1호봉 월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정리함
 - 1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하사 및 소위의 경우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고, 생활수준이 기타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것이기 때문에 1호봉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본 소절 분석 목적에 부합함
 - 군인 월 보수는 동 제도가 시행된 197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1975년에 하사 기준으로 월 보수 1만 5,700원에서 1982년 11만 4,800원으로 약 7.3배 증가하였으며,
 - 소위 기준으로는 1975년 3만 3,100원에서 1982년 13만 5,100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였으며, 소령은 6만 7,200원에서 24만 7천원으로 약 3.7배, 준장은 14만 4,700원에서 46만 8천원으로 약 3.2배 증가하여 매우 가파르게 증가함
 - 1965년에서 199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하사의 경우 연평균 월 보수가 약 3.5배 증가, 소위는 약 2.3배 증가, 소령 역시 약 2.3배, 준장은 약 2.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함
 - 1995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하사의 경우 약 1.4배, 소위 및 소령은 약 1.3배, 준장 역시 약 1.3배 증가한 것을 확인함

<표 IV-3> 연도별·계급별 1호봉 월 기준 보수

(단위: 원, %)

구분	1965	1970	1975	1982	1985	1990	1995
하사	1,300	6,600	15,700	114,800	127,900	187,800	337,200
소위	5,350	13,800	33,100	135,100	148,500	218,400	392,400
소령	10,100	32,300	67,200	247,000	265,600	399,400	717,100
준장	21,900	70,300	144,700	468,000	497,300	687,200	1,234,700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1965~1990	1995~2020
하사	371,700	607,100	825,700	970,700	1,610,200	247.01	38.6
소위	432,600	706,500	961,600	1,130,500	1,657,500	132.59	34.8
소령	790,600	1,291,100	1,743,500	2,049,700	2,874,300	130.66	33.3
준장	1,360,500	2,220,000	2,997,900	3,524,500	4,888,900	118.94	32.9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표 IV-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군인 월 보수의 절대적인 상승이 확인되며, 상승률 역시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절대적인 수준에서 군인 생활 처우의 개선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계급이 낮은 군인의 보수 인상률이 더 높았던 점은, 군인 처우 개선의 정책 목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과 연결시켜 해석해볼 수 있음
 - 군인의 봉급 상승은 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목적과 일치하며,
 - 동 제도의 시행 외에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음
 - 봉급 인상과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 적용으로 동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군인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표 IV-2> 및 <표 IV-3>의 연도별 보수 변화가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부 품목의 가격 변화를 살펴봄(<표 IV-4>)
- <표 IV-4>는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담배, 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소주, 맥주 등의 품목에 대해 연도별 가격 변화 통계를 제시함
 - 시내버스는 1회 편도 기준으로 1970년에 10원에서 1980년에는 85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00원, 2020년에는 1,200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37.9%임
 - 택시 기본요금 및 지하철 1구역 요금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시내버스 증가율보다는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담배는 1970년에 50원, 1990년에는 1,300원, 2020년 이후에는 4,500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98.2%임
 - 쌀 값은 쌀 40kg 기준 가격으로 집계하였으며, 1970년에는 2,880원, 1990년에는 4만 9,200원, 2000년에는 8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6만 6천원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현재 9만 6,200원임
 -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정육 500g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닭고기는 2kg 1마리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를 작성함
 - 소고기는 1970년 375원, 1990년에는 5,500원, 2000년에는 1만 900원, 2010년에는 3만 7,500원, 2020년에는 5만원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18.3%임

- 돼지고기는 1970년 208원, 1990년에는 2,300원, 2000년에는 3,750원, 2010년에는 7,500원, 2020년에는 1만원으로 상승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약 177%임
- 닭고기는 1970년 420원, 1990년에는 6,700원, 2000년에는 6천원, 2010년에는 5,200원, 2020년에는 7천원으로 가격 상승 및 하락을 반복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6.2%임
- 계란은 황란 10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평균 약 120%의 상승률을 보여, 1970년 140원에서 2020년 5,990원으로 상승함
- 소주는 360ml 1병을 기준으로 가격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1970년에는 65원, 1990년에는 420원, 2020년에는 1,260원으로 연평균 약 66% 증가함
- 맥주는 500ml 1병을 기준으로 가격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1970년에는 175원, 1990년에는 660원, 2020년에는 1,410원으로 연평균 약 61% 증가함
- 증가율로 볼 때는 시내버스 요금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소고기, 쌀 등의 가격 인상률이 높았음
- 반면 본고에서 관심 있는 주류의 경우, 증가율은 조사 품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4> 주요 품목 물가 변화

(단위: 원,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증가율
시내버스	10	85	170	600	1,000	1,200	237.9
택시	60	400	700	1,300	2,400	3,800	174.1
지하철	30	80	200	500	900	1,250	117.1
담배	50	300	1,300	1,700	2,500	4,500	198.2
쌀	2,880	28,000	49,200	82,000	66,000	96,200	208.2
소고기	375	2,660	5,500	10,900	37,500	50,000	218.3
돼지고기	208	1,540	2,300	3,750	7,500	10,000	177.2
닭고기	420	2,890	6,700	6,000	5,200	7,000	146.2
계란	140	500	950	1,670	2,850	5,990	120.8
소주	65	190	420	830	1,000	1,260	66.3
맥주	175	430	660	1,270	1,180	1,410	60.8

자료: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총람』, 2020.

- 군인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표 IV-3>에서 살펴본 군인의 월 평균 보수 대비 가격 변화를 <표 IV-5>에서 계산하여 보여줌

- <표 IV-3>에서 군인 보수는 1980년 대신 1982년 값을 제시하였는데, 비율 계산에서는 1982년 값을 1980년으로 가정하고 계산함
- <표 IV-5>는 각각 품목의 가격을 하사, 소위, 소령, 준장의 1호봉 월 보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여줌
-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1970년 하사 1호봉 월 보수의 0.15%에서 2010년엔 0.12%, 2020년에는 0.07%였으며, 소위의 경우 1970년 월 보수 대비 0.07%가 시내 버스 요금, 2020년에도 0.07%인 것으로 확인됨
 -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군인의 월 보수 기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택시 요금은 1970년 하사 기준 0.91%에서 2020년에는 0.24%로 많이 줄었으며, 이는 소위, 소령, 준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감소함
 - 감소 비율은 하사가 가장 높고, 그다음 소위, 소령, 준장 순임
- 지하철 요금의 경우도 연도별로 월 보수 대비 비중이 많이 줄었으며, 하사는 1970년 0.45%에서 2020년 0.08%로 감소하였고, 소위는 1970년 0.22%에서 2020년 0.08%로 감소함
- 담배의 경우도 연도별로 월 보수 대비 요금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하사 기준 1970년에는 0.76%에서 2000년 0.46%, 2020년 0.28%로 감소하였음
 - 소위는 1970년 0.36%에서 2020년 0.27%로, 소령과 준장은 비중이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쌀의 경우는 매우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사 기준 1970년에는 쌀 가격이 월 보수의 약 4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약 5.9%이며, 소위 기준 1970년에는 약 21%에서 2020년 약 5.8%로 하락, 소령 기준 1970년에는 약 9.0%에서 2020년 약 3.4%로 감소하였고, 준장 기준 1970년에는 약 4.1%에서 2020년 약 1.9%로 감소함
- 소고기 가격의 경우 하사 기준 1970년 5.68%에서 2020년 3.11%로 하락하였으며, 소위 기준 1970년 2.72%에서 2000년 2.5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는 3.02%로 소폭 증가함
 - 소령과 준장의 경우도 소고기 가격의 경우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함
- 반면 돼지고기 가격의 월 보수 대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하사 기준 1970년에는 3.15%에서 2020년 0.62%로 하락하였고, 소위 기준 1970년에는 1.51%에서 2020년 기준 0.60%로 감소함

<표 IV-5> 주요 품목 가격의 군인 보수 대비 비율

(단위: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시내버스	하사	0.15	0.07	0.09	0.16	0.12	0.07
	소위	0.07	0.06	0.08	0.14	0.10	0.07
	소령	0.03	0.03	0.04	0.08	0.06	0.04
	준장	0.01	0.02	0.02	0.04	0.03	0.02
택시	하사	0.91	0.35	0.37	0.35	0.29	0.24
	소위	0.43	0.30	0.32	0.30	0.25	0.23
	소령	0.19	0.16	0.18	0.16	0.14	0.13
	준장	0.09	0.09	0.10	0.10	0.08	0.08
지하철	하사	0.45	0.07	0.11	0.13	0.11	0.08
	소위	0.22	0.06	0.09	0.12	0.09	0.08
	소령	0.09	0.03	0.05	0.06	0.05	0.04
	준장	0.04	0.02	0.03	0.04	0.03	0.03
담배	하사	0.76	0.26	0.69	0.46	0.30	0.28
	소위	0.36	0.22	0.60	0.39	0.26	0.27
	소령	0.15	0.12	0.33	0.22	0.14	0.16
	준장	0.07	0.06	0.19	0.12	0.08	0.09
쌀	하사	43.64	24.39	26.20	22.06	7.99	5.97
	소위	20.87	20.73	22.53	18.96	6.86	5.80
	소령	8.92	11.34	12.32	10.37	3.79	3.35
	준장	4.10	5.98	7.16	6.03	2.20	1.97
소고기	하사	5.68	2.32	2.93	2.93	4.54	3.11
	소위	2.72	1.97	2.52	2.52	3.90	3.02
	소령	1.16	1.08	1.38	1.38	2.15	1.74
	준장	0.53	0.57	0.80	0.80	1.25	1.02
돼지고기	하사	3.15	1.34	1.22	1.01	0.91	0.62
	소위	1.51	1.14	1.05	0.87	0.78	0.60
	소령	0.64	0.62	0.58	0.47	0.43	0.35
	준장	0.30	0.33	0.33	0.28	0.25	0.20
닭고기	하사	6.36	2.52	3.57	1.61	0.63	0.43
	소위	3.04	2.14	3.07	1.39	0.54	0.42
	소령	1.30	1.17	1.68	0.76	0.30	0.24
	준장	0.60	0.62	0.97	0.44	0.17	0.14
계란	하사	2.12	0.44	0.51	0.45	0.35	0.37
	소위	1.01	0.37	0.43	0.39	0.30	0.36
	소령	0.43	0.20	0.24	0.21	0.16	0.21
	준장	0.20	0.11	0.14	0.12	0.10	0.12
소주	하사	0.98	0.17	0.22	0.22	0.12	0.00
	소위	0.47	0.14	0.19	0.19	0.10	0.00
	소령	0.20	0.08	0.11	0.10	0.06	0.00
	준장	0.09	0.04	0.06	0.06	0.03	0.00
맥주	하사	2.65	0.37	0.35	0.34	0.14	0.09
	소위	1.27	0.32	0.30	0.29	0.12	0.09
	소령	0.54	0.17	0.17	0.16	0.07	0.05
	준장	0.25	0.09	0.10	0.09	0.04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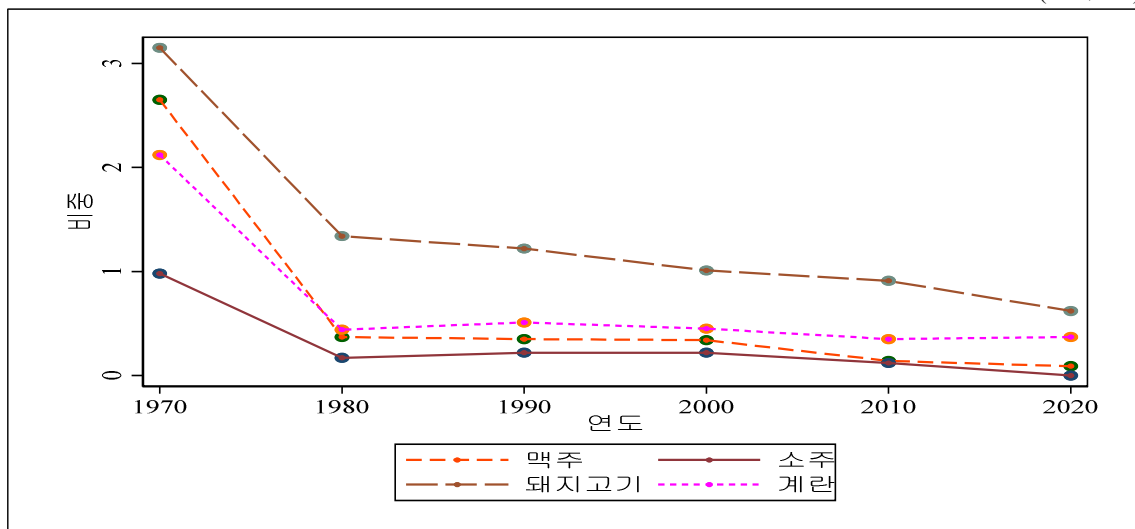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총람』 및 「공무원보수규정」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닭고기의 경우도 하사 기준 1970년 6.36%에서 2020년 0.43%로 감소하였으며, 소위 기준 1970년에 3.04%에서 2020년 0.42%로 감소하였고, 소령 기준으로 1970년에 1.30%에서 2020년 0.24%, 준장 기준 1970년에 0.60%에서 2020년 0.14%로 감소함
- 계란은 1970년 하사 기준 2.12%에서 2020년 0.37%로 감소하였고, 소위 기준 1970년에 1.01%에서 2020년 0.36%, 소령 기준 1970년 0.43%에서 2020년 0.21%, 준장 기준 1970년 0.20%에서 2020년 0.12%로 감소함
- 동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류의 경우 소주 및 맥주 가격을 토대로 변화를 살펴보면, 소주 가격은 하사 기준 1970년 0.98%에서 2000년 0.22%, 2020년 0% 가까이 감소하였고, 소위의 경우 1970년 0.47%에서 2000년 0.19%, 2020년 0% 가까이 감소함
- 맥주 가격 역시 군인 월 보수 대비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여, 하사 기준 1970년 2.65%에서 2020년 0.09%, 소위 기준 1.27%에서 2020년 0.09%, 소령 기준 0.54%에서 0.05%로 감소하였고, 준장 기준으로는 1970년 0.25%에서 2020년 0.03%로 감소함

□ [그림 IV-1]은 일부 품목인 맥주, 소주, 돼지고기, 계란 등의 가격이 하사 1호봉 기준 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보여줌

[그림 IV-1] 일부 품목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표 IV-5>의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표 IV-5>에서 살펴봤듯이, 군인 보수의 현실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군인의 생활환경이 많이 안정되고 개선된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주요 품목의 가격과 비교한 결과, 제도가 도입된 1970년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품목 가격이 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 몇몇 품목에서 소령 및 준장의 월 보수 대비 가격 비중이 미세하게 증가한 경우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또한 군 보수의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개선은 주로 하사 및 소위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군 보수의 현실화 작업이 이들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을 준 것을 확인
 - 이는 동 제도의 도입 목적과도 일치함
 - 군인의 처우 개선은 대부분 낮은 계급의 군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보수의 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

- 결과적으로 군인 월 보수의 상승이 군인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함
 - 군인 지원 정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었고, 소득 상승률도 높았던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군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짐

- 1970년대 제도 도입 당시 쌀 구입에 보수의 40% 가까이 지불해야 할 정도로 군인 처우가 열악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통한 일부 품목의 면세는 군인 생활 처우 개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것임
 - 특히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었던 품목에 대한 지원은 군인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함

-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군인 월 보수 대비 대부분의 품목 가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정책 목적의 타당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음

- 특히,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면세 품목으로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류 품목의 경우 군인 월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므로, 주류 과세 전환이 군인들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소주 가격의 경우 월 평균 보수 대비 비중이 2020년 기준 0%에 가깝고, 맥주 역시 0.09%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면세 적용 제외가 군인들 처우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함
- 결론적으로 정책 목적은 제도 도입 당시 적절했으며, 또한 일정 부분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환경을 고려할 때 동 제도 유지의 정책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책 목적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나. 정부 개입의 적절성

-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정부가 군인의 생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군인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지원, 개입하는 것의 타당성을 살펴봄
 - 군인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은 인정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의 범위 및 규모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사회적인 편익의 크기가 커져야 함
 - 정부는 개인 및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사회적인 편익을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대한 개입은 시장에 공공재 공급 결정을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량을 맞추기 어렵고,
 - 결과적으로 필요한 공공재 공급량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재 공급을 추진함
 - 군인 및 경찰 공무원을 국가가 담당하는 근본적인 이유 역시 시장에 맡길 경우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또 다른 예로써, 지나친 소득 불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계층에만 소득 지원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균형이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시정하였을 경우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임
 - 동 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군인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개입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가 변한 현재의 상황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임
- 정부의 개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경우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음
 - 정부는 담배, 술 등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개인의 소비 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역시 정부가 개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임
 - 다만, 정부가 개입하여 담배, 술 등의 물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개입하지만, 이러한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으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1975년 당시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인의 처우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열악하였으며, 또한 남과 북의 대치를 비롯한 이념 갈등이 최고조에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했음
- 특히, 국방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던 당시 박정희 정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주요 과제였음
 - 정부가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음
 - 또한 국가 재정이 넉넉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군인 보수 인상 정책은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 일부 소비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군인 처우를 일부 개선하려는 차선택이 적용됨

- 따라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개입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동 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음
 -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상황이지만,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에 비해 극한의 대치 상황은 없으며,
 -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Global Fire Power)에서 집계하는 전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전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이며, 북한은 28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설령 국방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라는 연결 고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
 - 이미 군인의 보수 개선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국방력의 한계적(marginal)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고,
 - 무기, 국방 예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력을 증가시킬 대체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 개선과 국방력의 연결 고리가 약해짐
 - 결과적으로 군인 처우 개선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의 실효성이 현 시점에서 높지 않고, 시대적 환경도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지지하지 않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대적 환경, 동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군인 등에게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주류뿐인데, 정부가 특정 물품인 주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봄
- 정부는 교정세(corrective tax) 혹은 죄악세(sin tax)의 형태로 특정 물품에 대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면서 개입하는 정책을 사용함
 - 대표적인 예로써 유류세, 담배세, 주세 등이 있음(정다운·권재현, 2020)

- 유류세의 부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휘발유 및 경유의 과도한 소비를 줄여 사회 전체적으로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함
 - 담배나 술 같은 제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의료비용이 증가하며, 의료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개인의 소비를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개입함
 - 개인의 소비행위를 교정하려는 목적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소비 행위 교정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크기 때문임
- 그런데 동 제도는 반대로 최악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주류에 대해 면세 조치를 특정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최악세의 목적으로 바라볼 때,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군인 대상 주세 면제를 통해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얻게 되는 편익과 군인의 주류 소비에 따른 의료비용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야 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시점에서 주세 면제를 통한 군인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효과는 의문이 있으며,
 - 비록 개인당 주류 구매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주류 소비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사회적 비용을 국가가 유발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적절성은 인정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군인에게만 주세 면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지며, 면세를 통한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동 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안중석 외(2015)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군납주류에 대해 특정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 일부 국가에서 군부대 내의 주류 판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서, 이들 정부는 군부대 내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함
 -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주류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도 군납주류면세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 개입의 적절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동 제도의 일몰을 연장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 본 소절에서는 동 제도의 지원 대상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함
- 동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군인이며, 지원 물품 대상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류 물품뿐임
 - 따라서 군인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러 물품 가운데 주류만을 지원해야 하는 것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시점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면세 품목을 적용하는 것의 정책 타당성은 높지 않음
- 본 소절에서 추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원 대상 관련 형평성 문제를 위주로 검토하고자 함
- 같은 군인이라도 주류 면세에 따른 혜택은 주류를 구매하는 군인과 주류를 구매하지 않는 군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군인과 같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경찰, 일반공무원, 교원 공무원 등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군인과 비군인 일반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우선, 같은 군인이라도 주류 면제에 따른 혜택이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검토하여 군인 집단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살펴봄
 - 주류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은 주류를 구매하는 군인에게만 귀속되며, 주류를 구매하지 않는 군인은 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 동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는 주류를 구매하는 군인만을 지원하는 상황임
 - 기존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경우 군인 처우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주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주류 구매 군인에 대한 차별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류 구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차별적 적용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함
 - 예를 들어, 만약 주류를 소비하는 군인의 전투력이 주류를 소비하지 않는 군인에 비해 크다면, 동 제도 존치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려움
 - 비군인 집단에서도 음주 여부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크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음주는 생산성을 저하시킴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군간부의 경우 6.5%가 전혀 마시지 않고, 6개월에 1~2회 음주 비율은 5.5%로, 주류를 거의 구매하지 않는 비율은 10%를 넘으며,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소비하는 군간부의 비율은 8.5%임
 - 동 제도는 결과적으로 8.5%의 군간부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 군간부의 10%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됨
 - 이들이 기타 다른 측면에서 크게 다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류 구매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짐
 - 동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려면, 군인들의 다양한 소비 행태 중에서 유독 주류에 대해서만 군인의 소비 행태에 따라 다르게 지원해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함
 -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면세 담배 혜택도 줄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주류만 여전히 지원 대상으로 남겨둘 근거가 부족함
 - 결론적으로, 동 제도가 일부 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의 적절성 역시 인정받기 어려우며,

-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군인 내에서 차별적 적용이 되는 것 역시 정책 목적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표 IV-6> 음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 에 3회 이상	일주일 에 1~2회	월 1~2회	6개월 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군간부: 현재 음주 횟수	201	8.5	50.7	28.9	5.5	6.5	100.0
현역사병: 입대 전 음주 횟수	200	4.0	42.5	34.5	4.0	15.0	100.0
군제대자: 입대 전 음주 횟수	400	11.3	33.8	32.5	12.0	10.5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으로는 군인과 같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경찰, 일반공무원, 교원 공무원 등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표 IV-6> 참조)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83년부터 군인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되어,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짐
 - 자료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였으며 1965년, 1975년, 1982년에는 순경 및 교원의 월 보수액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생략됨
 - 동 제도가 도입되었던 1975년 이전인 1965년에 1호봉을 기준으로 하사 및 소위의 보수 월액은 일반공무원 9급 1호봉에 비해 많이 적었으며,
 - 1970년 및 1975년에는 소위의 월급은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985년부터 군인의 월 보수액과 기타 직종의 1호봉 월 보수액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즉, 다른 직종에 비해 군인의 보수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군인의 처우가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
 - 앞서 언급하였듯이 1970년대 전후에는 그러한 현상이 관찰되어, 제도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였으나,
 - 1980년대 이후 그러한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이는 군인 보수가 공무원 보수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단순히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군인을 다른 직종과 차별하여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특히 현재 시점으로는 공무원의 월급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절대적인 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 군인에게만 특정 물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기타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등의 군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표 IV-7>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 월액

(단위: 원)

구분	1965	1970	1975	1982	1985	1990	1995
하사	1,300	6,600	15,700	114,800	127,900	187,800	337,200
소위	5,350	13,800	33,100	135,100	148,500	218,400	392,400
일반	8,980	12,630	24,740	48,000	134,000	187,000	338,000
순경	-	12,630	-	-	147,500	205,000	369,000
교원	-	-	-	-	144,500	212,000	380,000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하사	371,700	607,100	825,700	970,700	1,610,200		
소위	432,600	706,500	961,600	1,130,500	1,657,500		
일반	485,100	617,300	1,119,400	1,282,800	1,642,800		
순경	529,600	694,000	1,210,400	1,387,100	1,642,800		
교원	545,400	694,000	1,243,700	1,425,300	1,656,0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 비록 월 보수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연금 규모에서 군인이 더 적게 지급받는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공무원의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 규모와 군인연금의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을 비교함(<표 IV-8> 참조)
 - 단순히 1인당 연금 평균 수령액을 비교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일반공무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237만원, 군인은 272만원, 국민연금은 43만 9천원임

- 2019년 3월 기준으로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 3,765명이었으며, 이 중 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총 3만 1,777명으로 전체 수급자 가운데 30%가 넘는 수준임
- 참고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은 14%임
-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기에는 집단 간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위주로 분석해보면,
 - 보험료율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의 경우 군인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연금으로는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함
 - 실제로, 2016년 기준으로 군인들은 평균 매월 25만 1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공무원들은 32만원을 납부함
 - 2016년 당시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로 인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증가한 현재는 납부 규모가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임
 - 결과적으로, 현재 제도 상 군인연금의 경우 ‘덜 내고 더 받는’ 현상이 기타 다른 연금에 비해 명확하게 나타남

<표 IV-8> 1인당 연금 평균 수령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무원연금	224.0	231.0	232.0	233.0	235.0	237.0
군인연금	-	-	249.5	-	-	272.0
국민연금	36.6	37.5	38.9	40.5	43.3	43.9

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단순 합계한 총금액에서 수급자 수로 나눈 평균값을 계산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9>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을 비교한 표임
 - 국가보전금은 매년 연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 이는 연금 적립금이 고갈됨에 따라 연금 적자가 불어나기 때문임
 - 2016년 기준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 3,665억원,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 3,189억원으로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의 절대적인 액수가 크지만,

- 총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살펴보면,
- 군인연금은 2014년 51.0%, 2016년 46.2%, 2018년 46.9%로 거의 절반을 보전 받고 있으며,
- 공무원연금은 2014년에 24.9%, 2016년에는 19.2%, 2018년에는 16.7%로 약 1/5를 보전받고 있어서
-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의존율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음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국가보전 비율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공무원연金的 국가보전 비율의 감소 속도가 더 빠름

<표 IV-9>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국가보전

(단위: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무원연금	25,548	30,727	23,189	22,820	22,806
군인연금	13,733	13,431	13,665	14,657	15,100
공무원연금/총지급금	24.9	26.9	19.2	17.8	16.7
군인연금/총지급금	51.0	46.8	46.2	47.8	46.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및 『국방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또한 군인연금은 이미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들어선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는 다른 연금에 비해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적 특권을 누려왔음에 대한 반증임
- 물론,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인연금과 기타 다른 연금의 직접적인 비교가 지나칠 수 있으나, 기타 다른 연금들의 경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과 대조됨
- 결론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 외에 연금 측면에서도 군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면을 고려할 때, 동 제도 지원의 축소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상 품목이 현재 주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적절성은 인정되기 더욱 어려움

- 결국 군인은 비슷한 직종의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비교할 때 정부의 지원 규모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에 대한 면세를 통한 정부의 추가적인 별도의 지원 제도는 일몰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만약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면, 동 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측면에서 군인에 대한 주류 면세 제도의 적절성은 인정되기 어려움
 -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월 보수 수준이 적은 것도 아니며, 은퇴 후의 연금 수준 역시 적은 수준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동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표 IV-10>~<표 IV-12> 참조)
 - <표 IV-10>~<표 IV-12>는 군 계급별 연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한 표임
 - 2019년 기준 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4,771만 9천원이었으며, 가구 소득 기준 1분위의 평균 소득은 1,323만 7천원, 가구 소득 기준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940만 3천원, 가구 소득 기준 3분위의 평균 소득은 4,291만 1천원, 가구 소득 기준 4분위의 평균 소득은 5,840만 7천원, 가구 소득 기준 5분위의 평균 소득은 9,458만 9천원임
 - 2015년 기준 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4,264만 1천원이었으며, 가구 소득 기준 1분위의 평균 소득은 1,437만 1천원, 가구 소득 기준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856만 8천원, 가구 소득 기준 3분위의 평균 소득은 3,938만 9천원, 가구 소득 기준 4분위의 평균 소득은 5,125만 9천원, 가구 소득 기준 5분위의 평균 소득은 8,147만 5천원임
 - 2012년 기준 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은 4,092만 6천원이었으며, 가구 소득 기준 1분위의 평균 소득은 1,271만원, 가구 소득 기준 2분위의 평균 소득은 2,662만 9천원, 가구 소득 기준 3분위의 평균 소득은 3,685만 6천원, 가구 소득 기준 4분위의 평균 소득은 4,856만 7천원, 가구 소득 기준 5분위의 평균 소득은 7,984만 7천원임
 - 이를 이용하여 군인 계급별로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소위, 중위 및 하사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구 전체 평균 소득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IV-10>에서 <표 IV-12>를 비교하면, 연도별 일반 가구 대비 군인 소득의 비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가구 소득 대비 군인 소득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2012년과 2015년에 가구 전체 평균 소득 대비 하사의 보수는 0.5배였으며, 2019년에는 0.6배로 상승하였으며, 소득 2분위 가구와 비교해 보면, 2012년에는 1.6배, 2015년에는 1.7배, 2019년에는 2.2배로 증가함
- <표 IV-10>~<표 IV-12>의 군인 보수는 1인 기준으로 만약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여 군인 계급별 가구 소득을 계산해 보면, 일반 가구와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임
- 따라서 군인 처우 개선이 군인 소득이 열악한 부분을 세제 혜택으로 보전하겠다는 의미라면, 이는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설 명임
- 소득 수준 자체로는 이미 군인의 소득 수준이 일반 국민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상황은 아님

<표 IV-10> 2019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단위: 천원, 배수)

구분	군인 소득	가구 전체 대비	소득 1분위 가구	소득 2분위 가구	소득 3분위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소득 5분위 가구
대장	147,202	3.1	11.1	5.0	3.4	2.5	1.6
중장	140,173	2.9	10.6	4.8	3.3	2.4	1.5
소장	127,110	2.7	9.6	4.3	3.0	2.2	1.3
준장	116,104	2.4	8.8	3.9	2.7	2.0	1.2
대령	113,231	2.4	8.6	3.9	2.6	1.9	1.2
중령	99,991	2.1	7.6	3.4	2.3	1.7	1.1
소령	75,595	1.6	5.7	2.6	1.8	1.3	0.8
대위	52,926	1.1	4.0	1.8	1.2	0.9	0.6
중위	33,202	0.7	2.5	1.1	0.8	0.6	0.4
소위	30,284	0.6	2.3	1.0	0.7	0.5	0.3
준위	85,783	1.8	6.5	2.9	2.0	1.5	0.9
원사	82,075	1.7	6.2	2.8	1.9	1.4	0.9
상사	63,949	1.3	4.8	2.2	1.5	1.1	0.7
중사	45,685	1.0	3.5	1.6	1.1	0.8	0.5
하사	29,287	0.6	2.2	1.0	0.7	0.5	0.3

자료: 국방부, 『2019 국방통계연보』, 201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V-11> 2012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단위: 천원, 배수)

구분	군인 소득	가구 전체 대비	소득 1분위 가구	소득 2분위 가구	소득 3분위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소득 5분위 가구
대장	123,042	3.0	9.7	4.6	3.3	2.5	1.5
중장	116,447	2.8	9.2	4.4	3.2	2.4	1.5
소장	102,334	2.5	8.1	3.8	2.8	2.1	1.3
준장	93,110	2.3	7.3	3.5	2.5	1.9	1.2
대령	92,988	2.3	7.3	3.5	2.5	1.9	1.2
중령	82,079	2.0	6.5	3.1	2.2	1.7	1.0
소령	63,199	1.5	5.0	2.4	1.7	1.3	0.8
대위	43,492	1.1	3.4	1.6	1.2	0.9	0.5
중위	26,436	0.6	2.1	1.0	0.7	0.5	0.3
소위	24,202	0.6	1.9	0.9	0.7	0.5	0.3
준위	69,892	1.7	5.5	2.6	1.9	1.4	0.9
원사	65,503	1.6	5.2	2.5	1.8	1.3	0.8
상사	51,773	1.3	4.1	1.9	1.4	1.1	0.6
중사	36,896	0.9	2.9	1.4	1.0	0.8	0.5
하사	29,287	0.6	2.2	1.0	0.7	0.5	0.3

자료: 국방부, 『2019 국방통계연보』, 201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V-12> 2015년 계급별 평균연봉 비교

(단위: 천원, 배수)

구분	군인 소득	가구 전체 대비	소득 1분위 가구	소득 2분위 가구	소득 3분위 가구	소득 4분위 가구	소득 5분위 가구
대장	133,212	3.0	9.3	4.7	3.4	2.6	1.6
중장	126,434	2.9	8.8	4.4	3.2	2.5	1.6
소장	112,246	2.6	7.8	3.9	2.8	2.2	1.4
준장	102,238	2.3	7.1	3.6	2.6	2.0	1.3
대령	101,903	2.3	7.1	3.6	2.6	2.0	1.3
중령	89,990	2.1	6.3	3.2	2.3	1.8	1.1
소령	69,206	1.6	4.8	2.4	1.8	1.4	0.8
대위	47,549	1.1	3.3	1.7	1.2	0.9	0.6
중위	29,050	0.7	2.0	1.0	0.7	0.6	0.4
소위	26,572	0.6	1.8	0.9	0.7	0.5	0.3
준위	76,882	1.8	5.3	2.7	2.0	1.5	0.9
원사	73,870	1.7	5.1	2.6	1.9	1.4	0.9
상사	57,440	1.3	4.0	2.0	1.5	1.1	0.7
중사	40,764	0.9	2.8	1.4	1.0	0.8	0.5
하사	23,849	0.5	1.7	0.8	0.6	0.5	0.3

자료: 국방부, 『2019 국방통계연보』, 201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아닌 제3의 요인 때문에 일반 국민과 군인을 다르게 처우해야 하는 정책적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세제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사기 진작 및 국방력 강화가 국민들의 세 부담에 비해 커야 하지만,
 -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류 면세가 군인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실증적 근거도 찾기 어려움
 - 또한 은퇴 후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군인은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큰 혜택을 제공받기 때문에, 이 역시 동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지지할 수 없는 근거임

-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군 마트와 일반 시장 마트와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임
 - 동 제도와 별개로 같은 제품이라도 군 마트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음
 - 군 마트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낮은 재고율 덕분임
 - 또한 임대료, 인건비 등이 일반 시장에 비해 매우 저렴하거나 별도 소요되지 않은 부분도 이유임
 - 따라서 전반적으로 군 마트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이 낮은 상황임
 -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어도 이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일부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관찰되기도 하고, 주위 시장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과도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군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 간의 비효율적인 경쟁 문제도 제기됨
 -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군 마트가 종종 이와 같이 시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편익은 크지 않은 상황
 -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통한 동 제도의 시행은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원 대상의 적절성 관련 이슈는 주류 품목과 관련된 것임
 - 이미 언급하였듯이, 주류 품목만을 대상으로 면세를 하는 것의 정당성을 살펴 봐야 함
 - 주류 제품과 유사한 담배의 경우 과거 면세 물품으로 혜택을 받다가 면세 담배는 2009년부터 지급이 전면 중단됨
 - 2005년부터 군납 면세 담배 중단을 진행하여, 2005년에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싼 250원에 매달 개인당 15갑씩 구매 제한을 두고, 2006년부터는 매달 개인당 10갑, 2007~2008년에는 5갑으로 줄인 뒤,
 - 2009년부터는 군납 담배 지급을 전면 중단함
 - 당시 면세 담배 중단의 이유로 국방부는 면세 담배가 흡연을 조장하여 군인의 흡연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 이로 인해, 군 장병의 건강 등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언급함
 - 주류 제품 역시 담배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 비슷한 특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정다운·권재현, 2020), 담배는 과세하되 주류 제품은 면세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없음
 - 주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담배는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없으며,
 - 주류의 소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 소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는 근거도 없음
 - 또한 저렴한 가격에 따른 주류 수요의 증가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 이어서,
 - 군납 담배 중단과 마찬가지로 논리로, 동 제도의 일몰을 통한 금주를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따라서 현재 주류에만 면세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은 기존 정책과의 비일관성, 동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주류 가격은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해외의 경우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함

- 해외 국가에서 이들 제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작아질수록 추가적인 세금에 따른 경제적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임
 - 이들 제품에 대한 세율이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들 제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부담스러운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기 위함임
 - 최근 우리나라도 음주 등의 문제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 군의 주류 면세를 국가가 용인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 및 여론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괴리된 것임
 -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류 제품에 면세 적용까지 더해진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주류 구매를 독려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및 여론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음
- 설문조사 결과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1%,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7%에 달하고, 따라서 면세주류 한도 확대를 주장하는 비율도 76.1%임
- 설문조사 결과 수치는 군납주류의 면세는 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류 품목의 면세의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
 - 이미 주류 소비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표본 선택 편익(selection bias)가 포함되어 있어, 통계 그 자체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즉, 실제로 음주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류 면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당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간단한 통계 비교를 해보면, 주류 구매가 전혀 없는 간부 및 6개월에 1~2회에 불과한 간부의 비율은 12%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8%가 주류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간부이며,

- 이 수치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86.1%와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이들로부터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면세주류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류 구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주류 품목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은 설문조사로부터도 명확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 <표 IV-13>은 국민건강조사에서 집계한 월간 음주율 통계임

- 월간 음주율은 우리나라 성인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을 의미함
- 2015년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약 59%가 월 1회 이상 음주하였으며, 2016년에는 59.4%, 2017년에는 59.2%, 2018년에는 57.8%, 2019년에는 57.7%임
- 남자와 여자의 음주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30%p 높게 나타남
- 남성들의 경우 2015년 월간 음주율은 74.4%, 2016년에는 74.5%, 2017년에는 73.1%, 2018년에는 70.0%, 2019년에는 72.4%로,
- 여자들의 경우 2015년 43.3%, 2016년 44.5%, 2017년 45.4%, 2018년 45.7%, 2019년 4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함

<표 IV-13> 월간 음주율 통계

(단위: %, 명)

연도	음주율	표본수	남자	여자
2015	58.7	5,413	74.4	43.3
2016	59.4	6,017	74.5	44.5
2017	59.2	6,123	73.1	45.4
2018	57.8	6,188	70.0	45.7
2019	57.7	6,195	72.4	43.2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표 IV-13>의 결과와 본고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검토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의 설문조사 결과 군간부의 경우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약 90%이며,

- 이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 IV-13>의 남성 월간 음주율인 약 70% 수치와 비교하면 20%p 가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해석은 불가능하나, 이러한 통계 수치는 주류 면세 등에 따른 주류 수요 증가가 빈번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통계일 수 있음
 - 만약 군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원래 음주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음주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 일반 집단과 비교할 때 음주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기타 정책적, 제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음
 - 실제로 흡연의 경우도, 군납 면세 담배가 군인의 흡연율을 증가시켰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오히려 군인의 음주율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임
 -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군인의 음주율을 감소하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부 정책상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류 구매는 담배 구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입으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표 IV-14>는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 통계를 보여줌
- 고위험 음주율이란, 주 2회 이상 음주하면서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국민건강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12.7%, 2016년은 13.2%, 2017년에는 13.4%, 2018년에는 13.8%, 2019년에는 12.1%이며,
 - 남자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높아서 2015년에는 20.5%, 2016년에는 21.2%, 2017년에는 20.6%, 2018년에는 20.7%, 2019년에는 18.7%임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군간부의 경우 주 2회 이상 음주는 최대로 59%에 달함
 - 본고의 설문조사는 주 1~2회를 같은 범주에서 물어보았기 때문에, 주 2회만을 식별할 수는 없음

-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참고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는 8.5%, 일주일에 1~2회 음주는 50.7%, 월 1~2회는 28.9%, 6개월에 1~2회는 5.5%,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의 비율은 6.5%임
- 또한 1회 음주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주 1.43병으로 <표 IV-12>에서 정의한 고 위험 음주량에 포함되어 본고의 설문조사 결과와 <표 IV-12>의 간접적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질문 구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군간부의 고위험 음주율은 일반 국민의 평균값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 앞선 논리와 동일하게, 만약 군인과 일반 국민의 이러한 차이가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군의 주류 소비를 줄일 유인이 있음
- 결과적으로 동 제도의 시행보다는 동 제도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으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음

<표 IV-14> 고위험 음주율 통계

(단위: %, 명)

연도	음주율	표본수	남자	여자
2015	12.7	5,410	20.5	5.1
2016	13.2	6,017	21.2	5.4
2017	13.4	6,116	20.6	6.3
2018	13.8	6,188	20.7	7.0
2019	12.1	6,195	18.7	5.6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이러한 검토 결과, 정부가 동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3. 정책 수단(지원 방식)의 적절성

- 본 소절에서는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일환으로 동 제도의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함
 - 동 제도의 지원 방식은 주류 면세, 즉 일종의 가격 보조를 통해 군인의 주류 소비를 지원하는 것임
 - 따라서 가격 지원 정책이 최선의 지원 방식인지 검토함

- 또한 군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보조라는 정책적 목적을 비슷한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지원 방식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함
- 기본적으로 군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은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맞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음
-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외진 곳 근무, 사회 재취업 곤란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으로 국가가 그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일반 국민 및 기타 다른 공무원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함
 - 또한 현재 군인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직업의 특성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 이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함
- 정부의 이전(transfer) 지원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소득 보조 정책과 가격 보조 정책이 있음
- 소득 보조 정책은 현금 이전(cash transfer) 정책, 근로장려금과 같이 조건부 현금 이전 정책(conditional cash transfer),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가격 보조(price subsidy) 정책이 있음
 - 개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 정책은 현금 이전 정책이며, 가격 보조 정책의 경우 개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임
 - 기본적으로 가격 보조는 시장의 상대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왜곡으로 인한 효율성의 희생이 있음
 - 비효율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격 보조를 통해 소비량을 진작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가격 보조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동 제도를 통해 주류의 소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음
 - 또한 군인의 생활 처우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세금 감면 정책을 사용하였으나, 만약 동일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전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이론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후자가 더 나옴

- 따라서 정부가 일부 계층의 소비만을 보전하는 주류 세금 감면을 통한 가격 보조 정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정부의 개입 타당성 측면에서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표 IV-15>는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연도별로 보여주며, 본 소절에서는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대한 가상의 상황을 검토함
 - 매년 300억이 넘는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며, 이를 단순히 매년 입영하는 현역병 장병 수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표 IV-15>의 조세지출 중 대부분이 주세에서 발생하며 주세 조세지출은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표 IV-16>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역병 입영 현황임
 - <표 IV-17>은 동 제도의 조세지출 예산을 현역병 입영수로 단순히 나눈 숫자임
 - 만약 동 제도가 폐지되고 조세지출 예산을 현역병 관련 예산에 투입하였다면, 현역병 1인당 2015년에는 약 14만 5천원, 2017년에는 약 17만 4천원, 2019년에는 약 15만 7천원 투입될 수 있었음

<표 IV-15> 동 제도 관련 조세지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전망)
주세	281	308	305	248	266	274
교육세	82	91	90	73	85	85
합계	363	399	395	320	351	359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V-16> 현역병 입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49,477	261,203	227,115	222,517	224,062
징집	111,971	120,395	109,458	101,733	107,269
모집	137,506	140,808	117,657	120,784	116,79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V-17> 현역병 대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인당 금액	145.5	152.8	173.9	143.8	156.7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표 IV-18>은 군 장병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월 보수규모를 보여주며, 가상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이를 <표 IV-17>에서 계산한 1인당 투입 가능했던 지원 금액과 비교하여 보여줌
 - <표 IV-17>에서 계산한 1인당 투입 가능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별로 1인당 사병에게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가정함
 - 그럴 경우, 2015년에는 1만 2,125원, 2016년에는 1만 2,733원, 2017년에는 1만 4,492원, 2018년에는 1만 1,983원, 2019년에는 1만 3,058원이 투입될 수 있으며,
 - 이 정도 규모를 월 군 장병 보수와 비교하였을 경우에, 그 비중이 <표 IV-18>에 제시됨
 - 2015년 이병의 월 보수 12만 9,400원의 약 9.4%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으며, 병장의 경우 월 보수 17만 1,400원의 약 7.1%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에는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3~4% 정도 차지함
 - 2019년 이병의 월 보수 30만 6,100원의 약 4.3%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으며, 병장의 경우 월 보수 40만 5,700원의 약 3.2%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가상의 상황이지만, 사병에게 월 보수의 5% 내외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 동 제도의 조세지출을 활용했을 경우 가능했다고 판단됨
 - 가상의 상황이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표 IV-18>과 같은 지원 방식은 오히려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 시간이 지날수록 현역병 입대 장병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동 제도의 조세지출 예산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동 제도의 조세지출을 현역병 장병을 위해 사용할 경우 장병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군인의 생활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됨

<표 IV-18> 현역병 월 보수 및 가상 지원 금액 비중

(단위: 천원,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보수	비중	보수	비중	보수	비중	보수	비중
2015	129.4	9.37	140.0	8.66	154.8	7.83	171.4	7.07
2016	148.8	8.56	161.0	7.91	178.0	7.15	197.1	6.46
2017	163.0	8.89	176.4	8.22	195.0	7.43	216.0	6.71
2018	306.1	3.91	331.3	3.62	366.2	3.27	405.7	2.95
2019	306.1	4.27	331.3	3.94	336.2	3.88	405.7	3.22

자료: 저자 작성

- 대부분의 군납주류는 연간 구매 물량의 절반 이상이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각종 행사 및 회식에서 소비되는 주류가 만약 군인 집단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 동 제도와 같은 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안종석 외(2015)에서도 언급하듯이, 최근 들어 장병들의 회식 문화 비선호와 개인적 시간 선호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 동 제도와 같은 방식의 지원 정책은 시대와 맞지 않으며, 장병을 격려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별도의 지원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입대 연도가 늦은 비교적 젊은 간부들의 경우 입대 연도가 오래된 간부들에 비해 음주 빈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표 IV-19>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이 2000년도 이전에 입대한 간부들의 경우 63.1%, 2016년 이후에 입대한 간부들은 42.5%이며,
 - 전혀 마시지 않는 비율은 2000년도 이전에 입대한 간부들의 경우 1.5%, 2016년 이후 입대한 간부들의 경우 9.6%로 큰 차이가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음주 시 평균 음주량에서도 차이가 나타남(<표 IV-20> 참조)

<표 IV-19> 입대연도별 음주 횟수 분포

(단위: 명, %)

입대연도	사례수	일주일 3회 이상	월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2000년 이전	65	63.1	24.6	6.2	1.5
2001~2010년	35	51.4	28.6	5.7	2.9
2011~2015년	28	42.9	25.0	3.6	14.3
2016년 이후	73	42.5	34.2	5.5	9.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20> 입대연도별 음주량 분포

(단위: 명, 병, cc)

입대연도	사례수	소주	맥주
2000년 이전	64	1.55	732.11
2001~2010년	34	1.34	986.91
2011~2015년	24	1.35	876.04
2016년 이후	66	1.40	938.64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따라서 주류 구매에 대한 가격 보조 정책을 지원 수단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군인 내부에서의 차별적 지원, 특히 세대 간의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젊은 간부들이 계속해서 충원되며,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군인 생활 개선을 목표로 동 제도와 같은 지원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지원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동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여러 품목에 걸쳐 가격 보조 정책을 시행하여 소비를 보조하고, 또한 수요를 장려하여, 군인 처우 개선과 내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원 방식의 수정 등이 필요함
- 여전히 군인에 대한 생활 보조를 정책 목적의 하나로 인식할 경우, 동 제도의 가격 보조 정책 대신,

- 일부 하급 장교들 위주로 소득 보전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 가격 보조 정책이 정책 시행 면에서 더 편리하다면, 주류 품목 대신 다른 물품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따라서 지원 방식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지원 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동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제도의 수정 혹은 일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4. 소결

- 이번 장에서는 동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크게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수단의 적절성 차원에서 검토함
- 정부 역할의 적절성은 정부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검토하였으며,
 - 지원 대상은 군인 집단 지원의 필요성, 주류 물품에 대한 가격 보조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 마지막으로 가격 보조 정책인 동 제도의 지원 방식과 기타 가능한 다른 지원 방식을 비교하여 동 제도의 정책 타당성을 검토함
- 동 제도가 도입되었던 1975년과 현재는 시대적 상황과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며,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로 주류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는 정책적 타당성은 찾기 어렵다는 결론임
 - 타당성 측면에서, 면세 담배와 유사한 성격의 면세주류는 군대 면세 담배를 폐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몰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가 부재하고,
 - 무엇보다도 국가가 주류 소비에 대해서만 보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를 장려한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어,
 - 동 제도와 관련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적절하게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동 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임

- 또한 동 제도는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군인 지원 정책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군인에 대한 혜택이 작지 않다고 판단되며, 혜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원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함
 -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소득, 연금 수준 등이 일반 국민 및 기타 공무원에 비해 작다고 판단되지 않음
 - 본고가 다루지 못한 이유로 군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류 물품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제도의 정책효과 달성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면세 담배 제도를 없앴던 것과 같이, 일몰을 염두에 두고, 주류 구입 한도의 축소 등을 점차적으로 진행하며, 제도의 일몰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V.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본 제도의 활용도, 정책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등을 분석
 - 본 제도의 활용도는 지원 실적 등의 자료를 통해 검증하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세 면제 금액과 함께 정부의 제도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 주류 구입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세하여 가처분 소득이 상승되는 효과로 인해 국방부에서는 복지 향상 측면에서 계속 유지를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음주량을 초과하는 정도로의 음주를 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견주어 본 혜택의 크기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음
 - 군대 내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 개최를 통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 효과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면세 대상을 주류로 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기 진작 외에 군대 내 음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경우 또한 본 특례제도의 정확한 비용효율 계산에 포함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 여부와 함께 수혜자들의 행태 변화, 관련 경제적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목적
 - 현재 시행 중인 “군인 대상 물품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제도의 활용도를 군간부, 군제대자 그리고 현역사병을 대상으로 분석

- 제도의 목표인 군장병과 간부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

□ 주요 내용

- 군간부의 면세주류 구입 파악
- 군간부의 장병 회식용 면세주류 구입 파악
- 군제대자의 면세주류 구입 파악
- 군제대의 현역 복무 당시 회식/행사의 군 사기 및 군 복지 기여도 파악
- 현역 사병의 군납주류면세제도 인지 및 구입 파악
- 현역 사병의 복무 중 회식/행사의 군 사기 및 군 복지 기여도 파악

□ 설문 대상

- 군간부 201명
- 군제대자 400명
- 현역사병 200명

□ 설문 방식: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온라인 설문조사

나. 군간부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 문항
 -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거주 지역
 - 가구 한달 평균소득, 가구 순 자산
 - 계급
 - 지난 1년 군납면세주류 구입 내역
 - 장병들에게 사기 진작 목적의 주류 구입 제공 여부
 - 장병들에게 사기 진작 목적의 주류 구입 제공 횟수
 - 장병들에게 사기 진작 목적의 주류 구입 제공 종류
 -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지 못한 경험 여부

- 군납 면세 양주 정책의 현행 유지와, 현금 보조 선호도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 흡연 여부, 흡연 정도, 주량

다. 군제대자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 문항

-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거주지, 최종 학력,
- 가구 한달 평균 소득, 가구 순 자산
- 군복무 형태, 제대 시기, 제대 시 계급,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여부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종류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횟수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당시 계급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간부가 주류를 사주는 것이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흡연 여부, 흡연 정도, 주량

라. 현역 사병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조사 문항

-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거주지, 최종 학력,
- 가구 한달 평균소득, 가구 순 자산
- 군복무 형태, 현재 계급, 소속 군

- 군납면세주류에 대해서 아는지 여부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여부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종류
- 군복무 기간 군납면세주류 구입 횟수
- 군복무 기간 음주를 동반한 회식 여부
- 군복무 기간 음주를 동반한 회식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
- 음주를 동반한 회식과 다과를 제공하는 회식이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 흡연 여부, 흡연 정도, 주량

2. 자료 분석 및 결과

가. 군간부에 대한 설문조사

□ 군간부 응답자 기초통계량

- 평균 나이는 33세이며, 최저령자는 19세, 최고령자는 51세임
- 간부 92.5%가 남성으로, 간부 대부분이 남성인 것을 알 수 있음
- 장교 이상이 25.4%이고, 나머지는 부사관 계급임
- 평균 입대 시기는 2007년으로, 평균 14년 정도 근무함
- 가구 전체의 한 달 평균 소득은 447만원, 가구 순자산은 평균 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남
- 기혼이 51.2%, 미혼이 48.8%로 나타남
- 음주 횟수와 관련하여, 전혀 마시지 않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 6개월에 1~2회 마시는 응답자가 5.5%, 한 달에 1~2회 마시는 응답자가 28.9%로 나타남
 - 보다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여 일주일에 1~2회 마시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50.7%,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는 응답자가 8.5%로 나타남

<표 V-1> 군간부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1	100.0
계급	부사관	150	74.6
	장교 이상	51	25.4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32.3
	2001~2010년	35	17.4
	2011~2015년	28	13.9
	2016년 이후	73	36.3
혼인 상태	미혼	98	48.8
	기혼	103	51.2
음주 횟수	일주일 1회 이상	119	59.2
	한달에 1~2회	58	28.9
	6개월 1회 이하	24	11.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간부 응답자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 2020년 기준 간부 1인당 면세주류 구입 기준량은 소주 20병, 맥주 72개, 위스키 1병임
- 전체 간부샘플 201명 중, 지난 1년 군납면세주류를 한 병이라도 구매한 인원은 185명으로(92%), 구입한 사람 중 조사된 구입량 평균을 살펴보면, 소주는 평균 23병, 맥주는 평균 72병, 양주는 평균 1.6병임
-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소주와 양주의 경우 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군간부의 경우,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여 1년 동안 절약했다고 생각하는 액수는 평균 15만원임
- 전체 응답자의 46.2%가 작년 1년 동안 부대에 배속된 한도가 초과되어 구입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많은 경우 한도 초과로 인해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됨

<표 V-2> 군간부 군납면세주류 구입량

(단위: 명, 병)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양주
전체		201	23.36	72.20	1.58
계급	부사관	150	25.98	80.23	1.71
	장교 이상	51	15.67	48.61	1.1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사비로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간부는 전체 응답자의 13%로, 대부분의 경우 사병을 위해서 구입한 경우보다는 본인의 소비를 위해서 구입함을 알 수 있음
 - 사병을 위해 구입한 경우 평균적으로 소주 약 14.8병, 맥주 약 30.6병, 양주 약 0.2병으로 나타남
 - 부사관은 약 12%가 사병을 위한 주류 구매 경험이 있고, 장교 이상의 경우 이보다 높은 약 16%가 사병을 위해 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음
 - 가구 연소득이 높을수록 사병을 위해서 주류를 구매한 확률이 높아짐
 - 미혼 응답자의 6%가 사병을 위해 구입, 기혼 응답자의 19.4%가 사병을 위해 구입한 경험이 있음
 -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26명 중 구입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2회 구입한 경우가 65.4%, 3회 이상 구입한 경우는 약 34.6%임

<표 V-3> 군간부의 사병 사기 진작을 위한 군납면세주류 구입량

(단위: 명, 병)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양주
전체		26	14.81	30.62	0.19
계급	부사관	18	16.11	37.61	0.22
	장교 이상	8	11.88	14.88	0.1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재 군납면세주류는 시중 가격에서 세금이 제외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할인된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음

- 면세 양주 두 병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두 병을 면세가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간부가 57.7%, 그리고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간부가 42.3%로, 현행 현물 지급 정책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금 지급이 주류 외의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면세주류를 구입하는 제도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간부들이 현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주류를 구입하지 않는 간부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으나 현금으로 제공될 때에는 모든 간부가 동일하게 현금 지급을 받는 것이 현물 지급보다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음
- 이처럼 소비의 제약이 보다 큰 현행 군납면세주류 제공안을 현금지급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첫째, 설문조사가 군납면세주류의 효용에 대한 질문지라는 것을 파악한 응답자의 경우, 현금보조안을 선택할 경우 군납주류면세제도의 폐지 근거로만 이용되고 실제 차액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은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음
 - 둘째, 현금으로 보조받을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지급받은 현금의 사용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주류 구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 셋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여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선호와는 달리 군납주류면세제도의 현행 유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군납주류면세제도에 대한 군간부의 의견

- 다음의 네 가지 군납주류면세제도에 대한 군간부의 의견을 구함.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라는 선택지를 줌
- 면세주류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의 평균값은 4.1로, 이 중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3%를 차지했음
-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므로 면세주류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질문의 평균값은 2.9로 가장 많은 응답자(33%)가 “보통이다”를 선택함

- 면세주류는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의 평균값은 4.4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7%를 차지함
- 면세주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의 평균값은 3.7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를 차지함

〈표 V-4〉 군간부의 군납주류면세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면세주류 한도 상향 필요	201	3.0	3.5	17.4	22.9	53.2
면세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 필요	201	18.9	18.9	33.3	12.4	16.4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	201	0.5	0.0	13.4	28.9	57.2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	201	4.5	7.0	26.9	30.3	31.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군간부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 (<부표 I-1> 참조)
 - 정기적으로 음주를 할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혼 대비 기혼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급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나이 역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가구 순 자산과 가구 총소득 역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군간부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I-1> 참조)
 - 정기적으로 음주를 할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급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나이와 혼인상태 역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가구 순 자산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총소득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군납주류면세제도가 사병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군간부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1> 참조)
 - 정기적으로 음주를 할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급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나이와 혼인상태 역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가구 순 자산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총소득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군납면세주류의 군간부 대한 사기 진작 회귀분석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임

나. 군제대자에 대한 설문조사

- 군제대자는 현역 사병에 비해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를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군납주류면세제도에 대해서 현역 사병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군제대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역 사병보다 먼저 분석함
- 군제대자 응답자 기초통계량
 - 평균 나이는 24세이며, 최저령자는 19세, 최고령자는 29세임
 - 응답자 모두 현역사병으로 복무한 남성이며 2019년 1월 이후 병장 제대자임
 - 응답자는 육군이 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군 2.5%, 공군 8.5%, 해병대 3%로 구성됨
 - 응답 시점 기준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11%, 대학 재학이 61%, 대학 졸업이 24%, 대졸 이상이 4%로 응답함
 - 현재 학생인 비율이 62.5%, 직장인이 29.5%, 무직이 9%를 차지함
 - 경제적 계층으로는 중상층 이상이 18.6%, 중간층이 44%, 중하층 이하가 38%를 차지함
 - 가구 연간 총소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이고, 해당 응답자의 평균 연가구 소득은 6,649만원, 최저소득은 1천만원, 최고소득은 5억원임

<표 V-5> 군제대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1	100.0
군 소속	육군	344	86.0
	해군/공군/해병대	56	14.0
연령별	19~22세	117	29.3
	23~26세	207	51.8
	27~29세	76	19.0
학력	고졸 이하	43	10.8
	대학 재학(휴학)	243	60.8
	대학 졸업 이상	114	28.5
직업	학생	250	62.5
	직장인	114	28.5
	무직	36	9.0
경제적 계층	상층	1	0.3
	중상층	71	17.8
	중간층	176	44.0
	중하층	136	34.0
	하층	16	4.0
거주지역	서울	105	26.3
	인천/경기/강원	115	28.8
	대전/세종/충청	42	10.5
	광주/전라/제주	42	10.5
	대구/경북	38	9.5
	부산/울산/경남	58	14.5
입대 전 음주 횟수	일주일 1회 이상	180	45.0
	한 달에 1~2회	130	32.5
	6개월 2회 이하	90	22.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주류면세제도 인지 여부 및 구매실태

- 군 제대 응답자 중 군납면세주류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6%, 없는 응답자가 44%를 차지함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우, 당시 계급을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이병(5.4%), 일병(18.3%), 상병(60.3%)과 병장(65.6%)으로 응답하여 계급이 높을수록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 이상의 응답자가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할 확률이 높음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평균 군납면세 소주 구매량은 3.5병, 맥주는 5.3병, 양주는 2.66병임
 - 군간부조사에 평균 군납면세주류 구매량이 소주 23.36병, 맥주 72.2병, 양주 1.58병임을 고려할 때 군간부에 비해서 군제대자가 소주나 맥주는 훨씬 적게 구매하였지만, 양주의 경우에는 군제대자가 현역 복무 시절에 간부보다도 평균적으로 많이 구매했음을 알 수 있음
 - 2020년 기준 일반 병사의 구입 기준량이 희석식 소주 5병, 맥주 12병 등이며 면세 위스키는 구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양주의 구입량이 기준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구매하지 않은 이유를 <표 V-6>에 정리함
 - 군납주류면세제도 자체를 모른 응답자가 14.20%를 차지함. 육군의 경우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4.9%, 해군/공군/해병대 응답자의 경우 9.1%로 육군에 비해 낮음
 - 약 52.3%의 응답자가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응답
 - 즉 군제대자의 경우, 군납면세주류 정책을 모르거나, 현역 병사 역시 군납면세주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가 66%를 넘어 군납면세주류의 병사 사기 진작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비구매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 11.36%를 차지했는데, 이를 군 소속별로 나눈 경우 육군은 이 응답이 8.4%에 그쳤으나 해군/공군/해병대 소속 응답자의 경우 평균 31.8%에 달함

<표 V-6> 군복무 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25	14.20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92	52.27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20	11.36
영내 군납면세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1	0.57
기타	38	21.59
전체	176	10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복무 기간 동안 군 공식행사를 목적으로 한 회식 횟수는 평균 4.1회로, 14.8%가 0회, 21%가 1~2회, 28.5%가 3~4회 그리고 35.8%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함
 - 육군은 평균 회식 횟수가 4.21회인 반면,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평균 회식 횟수는 3.43번으로 응답함. 또한 육군은 5회 이상 회식을 경험한 군제자가 36.9%인 반면,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5회 이상 회식을 경험한 군제대자는 28.6%임
 - 육군이 여타 소속 군인보다는 회식 횟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임
- 공식행사 목적의 회식을 경험한 경우, 이 중 술이 제공된 회식을 경험한 응답자가 76%, 술이 제공되지 않은 회식을 경험한 응답자가 2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회식에는 주류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됨
 - 술이 제공된 회식의 경우 평균 음주량은 소주 0.94병, 맥주 894.47cc로 응답함
 - 회식 횟수와 마찬가지로 음주량 역시 평균적으로 육군은 소주 0.94병, 맥주 938.31cc로 해군/공군/해병대의 평균 음주량인 소주 0.92병, 맥주 603.00cc보다 많음
 - 학력별로 나눠 보았을 때는 고졸 이하보다는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자가 평균 음주량이 높았음

<표 V-7> 주류 제공 회식 시 음주량

(단위: 명, 병, cc)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260	0.94	894.47	
군 소속	육군	226	0.94	938.31
	해군/공군/해병대	34	0.92	603.00
연령별	19~22세	71	0.94	650.36
	23~26세	133	0.77	997.44
	27~29세	56	1.34	959.40
학력	고졸 이하	27	0.73	511.23
	대학 재학(휴학)	152	0.83	914.67
	대학 졸업	68	1.26	1,070.99
	대학원 재학 이상	13	1.01	530.82
경제적 계층	상층	0	0.00	0.00
	중상층	50	1.13	1,842.50
	중간층	110	0.95	808.26
	중하층	90	0.86	542.52
	하층	10	0.55	270.0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복무 중에 술이 제공되는 회식을 경험한 군제대자들에게 회식이 사기에 미친 영향을 질문하였을 때 그 응답이 <표 V-8>에 정리되어 있음
 - 사기에 회식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로 응답함

<표 V-8>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1.5	0.9	3.5	27.9	28.4	25.2	12.6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1.5	1.8	5.3	18.2	26.7	22.9	23.8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1.5	2.1	3.8	16.7	24.6	28.4	22.9
군 사기	1.5	2.1	3.2	17.9	29.9	23.2	22.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공식 목적의 회식이 다양한 형태의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66.3~76.0%로 부정적인 의견을 압도함
 - 연령별로는 27~29세에 비해서 19~26세의 제대자들의 긍정평가가 더 높음
- <표 V-9>에서는 군복무 기간 주류를 동반한 공적 회식이 병사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함
- 주류를 동반한 회식 역시 군 사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서 우세함
 - 다만,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표 V-8>에서 보다는 낮아 음주 여부보다는 회식 자체가 병사 사기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표 V-9> 주류를 동반한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1.8	1.8	5.3	19.9	26.1	24.3	20.8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1.5	3.5	5.0	29.3	27.3	19.9	13.5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2.1	2.9	3.5	18.2	26.4	24.6	22.3
군 사기	2.1	2.9	2.1	16.4	28.7	26.7	21.1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 시 주류 제공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주류가 제공되는 회식 대신 음료/간식이 제공되는 회식이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표 V-10>과 같이 응답함
- 주류를 동반한 회식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56.3%, 그리고 무관하거나 오히려 주류가 아닌 다과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43.7%를 차지함

<표 V-10>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류 제공과 무관함	주류 제공이 긍정적	음료 및 간식 제공이 긍정적
전체		341	28.7	56.3	15.0
군 소속	육군	296	27.0	56.8	16.2
	해군/공군/해병대	45	40.0	53.3	6.7
연령별	19~22세	95	27.4	54.7	17.9
	23~26세	177	28.2	58.2	13.6
	27~29세	69	31.9	53.6	14.5
학력	고졸 이하	41	36.6	41.5	22.0
	대학 재학(휴학)	198	27.8	57.6	14.6
	대학 졸업	85	27.1	63.5	9.4
	대학원 재학 이상	17	29.4	41.2	29.4
직업	학생	205	27.8	56.6	15.6
	직장인	102	30.4	56.9	12.7
	무직	34	29.4	52.9	17.6
경제적 계층	상층	0	0.0	0.0	0.0
	중상층	65	26.2	58.5	15.4
	중간층	146	27.4	59.6	13.0
	중하층	119	31.1	52.9	16.0
	하층	11	36.4	36.4	27.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병사의 경우 회식 외에도 간부와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군제대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3회 이상 한 경우가 11.8%, 1~2회 한 경우가 26.5%,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61.8%를 차지함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표 V-11>과 같음
 - 전반적으로 응답 비율이 주류가 제공되는 회식과 비슷하나,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조금 더 높고, 5~7의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조금 더 낮음
 - 즉 군복무 기간의 사기에는 개인적인 간부들과의 술자리보다는 공적 목적의 회식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표 V-11>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0.7	1.3	5.2	22.2	32.7	24.8	13.1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1.3	1.3	5.9	18.3	26.8	25.5	20.9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1.3	0.7	3.9	21.6	25.5	28.1	19.0
군 사기	0.7	2.0	8.5	23.5	31.4	19.6	14.4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재 군납면세주류는 시중 가격에서 세금이 제외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할인된 액수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음
 - 면세 양주 두병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두 병을 면세가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군제대자가 70.3%, 그리고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 군제대자가 29.8%로, 현행 현물지급 정책을 선호함

〈표 V-12〉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면세가 구입 선호	차액 현금 지급 선호
학력	고졸 이하	43	60.5	39.5
	대학 재학(휴학)	243	69.5	30.5
	대학 졸업	97	76.3	23.7
	대학원 재학 이상	17	70.6	29.4
직업	학생	250	70.0	30.0
	직장인	114	78.1	21.9
	무직	36	47.2	52.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학력이 높을수록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나타남
 - 앞서 군간부 설문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현금지급의 경우 용처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지급이 현물지급보다 합리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군제대자의 경우 군간부보다도 더 현물지급을 선호하는 성향이 나타남
 - 군간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 이런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에 대한 충성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군제대자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조)
 - 음주를 하지 않은 제대자에 비해서 일주일에 1~2회 또는 한 달에 1~2회 음주를 하는 군제대자의 경우 회식이 충성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함
 - 나이나 계급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관적 경제계층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수록 (대인관계 변수) 공식적 목적의 회식이 충성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군제대자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조)

- 나이가 많을수록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주관적 사회적 계층을 중간층으로 평가한 군제대자는 상층으로 평가한 군제대자에 비해서 공식 목적의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조)
- 나이가 많을수록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음주를 하지 않는 군제대자에 비해(생략된 더미변수), 음주를 정기적으로 하는 군제대자들은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수록 (대인관계 변수) 공식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에 대한 충성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조)
- 나이가 많을수록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음주를 하지 않는 군제대자에 비해(생략된 더미변수), 음주를 정기적으로 하는 군제대자들은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주관적 사회적 계층을 중하층으로 평가한 군제대자는 상층으로 평가한 군제대자에 비해서 공식 목적의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수록 (대인관계 변수)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군제대자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조)
 - 나이가 많을수록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음주를 하지 않는 군제대자에 비해(생략된 더미변수), 한 달에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군제대자들은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군제대자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2> 참고)
 - 음주를 하지 않는 군제대자에 비해(생략된 더미변수), 한 달에 1~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군제대자들은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일부 가구소득 구간에서 주류 제공 여부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통일된 패턴이 보이지는 않음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다. 현역 사병에 대한 설문조사

- 현역 사병 응답자 기초통계량
 - 평균 나이는 21세이며, 최저령자는 19세, 최고령자는 27세임
 - 응답자 모두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이며 육군이 77.5%이고,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각 7.5%를 차지함
 - 현재 계급은 일병 33.5%, 상병 33%, 그리고 병장 33.5%로 구성됨
 - 응답 시점 기준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23%, 대학 재학 이상이 77%을 차지함
 - 가구 연간 총소득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이고, 해당 응답자의 평균 연가구 소득은 6,649만원, 최저소득은 1천만원, 최고소득은 5억원임

<표 V-13> 현역 사병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	100.0
군 소속	육군	155	77.5
	해군/공군/해병대	45	22.5
계급	일병 이하	67	33.5
	상병	66	33.0
	병장	67	33.5
학력	고졸 이하	46	23.0
	대학 재학(휴학) 이상	154	77.0
경제적 계층	중상층	14	7.0
	중간층	102	51.0
	중하층	81	40.5
	하층	3	1.5
가구 연소득	2천만원 미만	32	16.0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21	10.5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92	46.0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1	20.5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	1.0
	모르겠다	12	6.0
가구 순자산	1억원 미만	1	0.5
	1억~2억원 미만	2	1.0
	2억~4억원 미만	44	22.0
	4억~6억원 미만	63	31.5
	6억~8억원 미만	42	21.0
	8억원 이상	25	12.5
	모르겠다	23	11.5
입대 전 거주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	88	44.0
	대전/세종/충청	21	10.5
	광주/전라/제주	29	14.5
	대구/경북	26	13.0
	부산/울산/경남	36	18.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주류면세제도 인지 여부 및 구매실태

- 군납면세주류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72.5%로 알지 못했다 27.5% 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남
- 계급이 높아질수록 인지하고 있는 확률이 높아짐

<표 V-14>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00	72.5	27.5
군 소속	육군	155	69.7	30.3
	해군/공군/해병대	45	82.2	17.8
계급	일병 이하	67	52.2	47.8
	상병	66	74.2	25.8
	병장	67	91.0	9.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현역 사병은 전체 응답자 200명 중 5명으로 2.5%를 차지했고, 대다수인 97.5%의 현역 사병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 군제대자에 비해서 현역 사병은 군납면세주류 구매 비율이 상당히 낮음
 - 현재 계급이 상병 이상인 사병이 66.5%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주류를 구입해본 응답자가 거의 없음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5명 중 소주와 맥주를 구입한 사병은 없었고, 양주를 1병 구입한 사병이 4명, 양주를 7병 구입한 사병이 1명 조사됨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로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가 64.1%로 가장 높았으며,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가 23.1%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74.4%), 병장(70.8%), 고졸 이하(72.1%)에서 높게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병 이하(37.9%)에서 높게 나타남

<표 V-15>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군납면세 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군납면세 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기타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영내 군납면세 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전체	195	64.1	23.1	11.3	4.6	0.0	
군 소속	육군	152	61.2	24.3	12.5	5.9	0.0
	해군/공군/해병대	43	74.4	18.6	7.0	0.0	0.0
계급	일병 이하	66	54.5	37.9	4.5	7.6	0.0
	상병						
	병장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 입대 이후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횟수는 0회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8.0%, 5회 이상 15.5%, 3~4회 14.0% 순으로 나타남
 - 회식 횟수는 평균 2.04회임
 - 육군의 경우 평균 2.01회,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평균 2.16으로 응답
 - 군 입대 이후 군 공식행사 중 주류 제공 회식 횟수는 평균 1.26회로, 0회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5.2%, 3회 이상 17.4% 순으로 나타남
 - 육군의 경우 평균 1.4회,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평균 0.87회로 응답
- <표 V-16>에서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살펴봄
- 회식이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해소,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87.0%, 83.5%로 가장 높았으며, 군 사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61.6%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본인의 스트레스 해보나 전우들과의 우애에 관련해서는 공식 회식이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군제대자들에 비해서 현역 사병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회식행사가 상사, 조식 및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29.6%로 군제대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타나, 회식이 충성심 고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57.4%로 집계됨

<표 V-16>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0.0	2.6	10.4	57.4	23.5	6.1	0.0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0.0	0.0	0.0	16.5	44.3	39.1	0.0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0.0	0.0	0.9	12.2	31.3	41.7	13.9
군 사기	0.0	0.9	0.0	37.4	39.1	17.4	5.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17>에서는 군복무 기간 주류를 동반한 공적 회식이 병사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적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회식이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해소,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67.0%, 62.6%로 가장 높았으며, 군 사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47.0%으로 나타남
- <표 V-16>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확률이 낮아지고, 주류를 동반한 공적 회식이 오히려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응답함
- 반면, 주류를 동반한 공적 회식이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34.8%로 이전보다는 약간 높아짐

<표 V-17> 공적 목적의 주류 제공 회식이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0.0	2.6	6.1	56.5	23.5	8.7	2.6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0.0	0.0	0.0	37.4	34.8	24.3	3.5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0.0	0.0	0.0	33.0	32.2	22.6	12.2
군 사기	0.0	2.6	4.3	46.1	28.7	15.7	2.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시 주류 제공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주류가 제공되는 회식 대신 음료/간식이 제공되는 회식이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표 V-18>과 같이 응답함
 - 주류를 동반한 회식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33.9%로, 군제대자의 응답이었던 56.3%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현재 사병들은 군제대자들에 비해서 주류가 제공되는 회식에 대한 선호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주류 제공이 사기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57.4%로 가장 높았고, 주류가 아닌 다과 및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8.7%를 차지함

<표 V-18>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현역 군인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류 제공과 무관함	주류 제공이 긍정적	음료 및 간식 제공이 긍정적
전체		115	57.4	33.9	8.7
군 소속	육군	85	52.9	40.0	7.1
	해군/공군/해병대	30	70.0	16.7	13.3
계급	일병 이하	22	45.5	27.3	27.3
	상병	41	63.4	34.1	2.4
	병장	52	57.7	36.5	5.8
학력	고졸 이하	21	61.9	23.8	14.3
	대학 재학(휴학) 이상	94	56.4	36.2	7.4
경제적 계층	상층	0	0.0	0.0	0.0
	중상층	8	50.0	37.5	12.5
	중간층	52	63.5	28.8	7.7
	중하층	53	52.8	37.7	9.4
	하층	2	50.0	5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병사의 경우 회식 외에도 간부와 개인적으로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
 - 현역 사병의 경우 개인적으로 간부와 술자리를 3회 이상 한 경우가 6%, 1~2회 한 경우가 7.5%,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가 86.5%를 차지함
 - 군제대자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현역 사병 중에서는 이병도 있어서 아직 군생활이 길지 않다는 점

- 둘째, 조사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시기라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있던 시기일 수 있음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군복무 기간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표 V-19>와 같음
 - 모든 항목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없으며, 6의 값을 응답한 항목도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증진 외에는 없음
 - 대부분의 항목에서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는 군 사기 항목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V-19>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상관, 조직, 나라에 대한 충성심 고취	0.0	0.0	0.0	92.6	7.4	0.0	0.0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0.0	0.0	0.0	3.7	81.5	14.8	0.0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0.0	0.0	0.0	29.6	70.4	0.0	0.0
군 사기	0.0	0.0	0.0	85.2	14.8	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에 대한 충성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I-3> 참조)
 - 정기적으로 음주를 할수록 충성심에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이나 계급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관적 경제계층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수록 (대인관계 변수) 공식적 목적의 회식이 충성심과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I-3> 참조)
 -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그보다 음주를 덜 하는 경우에 비해서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에 대한 충성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3> 참조)
 - 입대 전 흡연을 한 경우는 흡연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에 대한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군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3> 참조)
 - 모든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확인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충성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3> 참조)
 - 입대 전 흡연을 한 사병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병보다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3> 참조)
 - 음주를 하지 않은 사병에 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를 한 사병과 일주일에 1~2회 음주를 하는 사병의 경우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군복무 중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현역 사병의 특성 회귀분석 결과(<부표 1-3> 참조)
 - 육군 소속의 사병이 다른 소속의 사병들보다 주류 제공 회식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병장이 이병보다 주류 제공 회식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음주를 하지 않은 사병에 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를 한 사병과 일주일에 1~2회 음주를 하는 사병의 경우 주류가 제공되는 공식 목적의 회식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병에 비해서 대학재학 이상인 사병이 주류가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함
-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Ⅵ.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Ⅵ.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 「군인 대상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 제도」는 1975년 직업군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함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면세를 인정하여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주류 가격탄력성(-0.45로 가정)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통해 약 40% 가격 인하 시 맥주 및 소주·위스키·브랜디 등의 증류주 수요를 평균 약 22% 증가시킴
 - 군납주류면세 혜택은 음주빈도가 높거나 음주량이 많은 자에게 편중되어 제공되며, 분석결과 면세주류는 대부분 간부들에 의해 소비되는 상황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 명분이 줄어들음
 - 군인 복지제도와 인상된 군인들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소방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현행 군납주류면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본 제도에 할당된 재원을 군 사기 진작 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와 직업군인의 복지 향상에 활용하도록 권고함
 - 군의 격려 및 단합행사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하므로 개최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군에서는 음주 외의 보다 효과적인 격려 및 단합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 복지수요에 비추어 당면과제인 근무여건·주거여건·자녀교육여건·문화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정책여건상 군납주류면세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면세 한도를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 국민연금,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박상원·송은주·김태훈, 『외국의 개별소비세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세법연구 09-08,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종석·송헌재·고선,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주세 면제에 관한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정다운·권재현, 『교정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0.
-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총람』, 2020.

<외국 문헌>

- Aguirre, M., Greenberg, N., J. Sharpley, R. Simpson, and C. Wall “Alcohol Consumption in the UK armed Forces: Are we drinking too much?,” *Journal of the Royal Army Medical Corps*, 160(1), 2014, pp. 72~73.
- Ames, Genevieve and Carol Cunradi, “Alcohol Use and Preventing Alcohol Related Problems Among Young Adults in the Military,”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8(4), 2004, pp. 252~257.
- Alcohol Concern, “Alcohol and the armed forces,” Alcohol Concern Cymru Briefing, 201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DOD), “The Use of Alcohol in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Report of the Independent Advisory Panel on Alcohol,” Reviews into aspects of Defence and Australian Defence Force Culture, 201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rgebnisse des Länderfinanzausgleichs 2018,” Monatsbericht des BMF, März 2019.

_____, “The Federal Financial Equalisation System in Germany,” 2018.

Department of Defense(DOD), “DoD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Alcohol Abuse Prevention Strategic Plan, 1999.

Federal Ministry of Finance, “Extracts from the monthly report,” Germany, Aug, 2019.

US Department of the Army,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Operations,”(Army Regulation 215-8, AFI 34-211(I)).

<웹사이트>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26>

부 록



<부록 I> 회귀분석표

1. 군간부 자료 회귀분석

<부표 I-1> 군간부의 특성이 주류면세제도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면세주류 한도를 늘려야 한다	면세주류는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면세주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계급(장교)	-0.123 (0.222)	0.002 (0.159)	-0.088 (0.247)
남성	-0.165 (0.292)	-0.145 (0.230)	0.228 (0.350)
정기적 음주	0.449** (0.172)	0.298** (0.122)	0.349* (0.183)
가구 월평균 소득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로그 가구 순자산	0.111 (0.069)	0.113** (0.050)	0.194*** (0.068)
기혼	0.574*** (0.220)	0.169 (0.183)	-0.228 (0.272)
나이	-0.002 (0.015)	-0.002 (0.010)	0.003 (0.015)
표본수	151	151	151
R-squared	0.197	0.118	0.117

주: 1. *** p<0.01, ** p<0.5, * p<0.1

2.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군제대자 자료 회귀분석

〈부표 1-2〉 군제대자의 특성이 회식과 군 사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에서 주류 제공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이	-0.041 -(0.031)	-0.123*** -(0.034)	-0.091*** -(0.034)	-0.071** -(0.033)	-0.081** -(0.034)	0 -(0.011)
육군	0.143 -(0.206)	0.333 -(0.225)	0.051 -(0.221)	-0.111 -(0.219)	0.217 -(0.224)	0.109 -(0.074)
흡연	0.17 -(0.159)	-0.039 -(0.174)	0.008 -(0.171)	0.038 -(0.170)	0.096 -(0.173)	0.023 -(0.060)
일주일에 3회 이상	0.498 -(0.323)	0.414 -(0.353)	0.866** -(0.347)	1.011*** -(0.345)	1.164*** -(0.351)	0.367*** -(0.118)
일주일에 1~2회	0.496* -(0.273)	0.427 -(0.298)	1.024*** -(0.293)	0.712** -(0.291)	0.830*** -(0.296)	0.205** -(0.096)
한 달에 1~2회	0.496* -(0.271)	0.296 -(0.296)	0.762*** -(0.291)	0.597** -(0.289)	0.574* -(0.295)	0.356*** -(0.096)
6개월에 1~2회	0.304 -(0.328)	0.312 -(0.359)	0.771** -(0.353)	0.641* -(0.350)	0.468 -(0.357)	0.176 -(0.114)
대학 재학 이상	0.372 -(0.237)	0.391 -(0.259)	0.255 -(0.254)	0.21 -(0.253)	0.183 -(0.257)	0.057 -(0.091)
연평균 소득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0.251 -(0.656)	-0.357 -(0.717)	-0.147 -(0.704)	0.056 -(0.699)	-0.144 -(0.713)	0.338 -(0.214)
연평균 소득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0.476 -(0.655)	-0.038 -(0.716)	0.004 -(0.703)	0.331 -(0.699)	0.343 -(0.712)	0.395* -(0.215)
연평균 소득 6,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0.403 -(0.666)	-0.249 -(0.728)	-0.172 -(0.715)	0.183 -(0.710)	0.106 -(0.724)	0.272 -(0.216)
연평균 소득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51 -(0.669)	0.17 -(0.731)	0.196 -(0.718)	0.61 -(0.713)	0.286 -(0.727)	0.470** -(0.221)
연평균 소득 1억원 이상	0.17 -(0.647)	-0.354 -(0.707)	-0.187 -(0.695)	0.124 -(0.690)	-0.091 -(0.703)	0.304 -(0.210)

<부표 I -2>의 계속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에서 주류 제공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중간층	0.195 -(0.194)	0.380* -(0.212)	0.256 -(0.209)	0.271 -(0.207)	0.18 -(0.211)	-0.002 -(0.073)
중하층	0.193 -(0.210)	0.283 -(0.229)	0.092 -(0.225)	0.469** -(0.224)	0.178 -(0.228)	-0.012 -(0.078)
하층	0.412 -(0.415)	0.275 -(0.454)	0.286 -(0.446)	0.319 -(0.443)	0.438 -(0.451)	-0.236 -(0.146)
기혼	0.029 -(0.423)	-0.051 -(0.462)	-0.508 -(0.454)	0.255 -(0.451)	-0.166 -(0.460)	0.055 -(0.159)
대인관계	0.203*** -(0.076)	0.018 -(0.083)	0.178** -(0.081)	0.178** -(0.081)	0.013 -(0.082)	-0.001 -(0.029)
표본수	312	312	312	312	312	362
R-squared	0.087	0.086	0.102	0.093	0.094	0.093

주: 1. *** p<0.01, ** p<0.5, * p<0.1

2.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현역 사병 자료 회귀분석

<부표 1-3> 현역 사병의 특성이 회식과 군 사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이 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충성심에 미치는 영향	주류 제공 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회식에서 주류 제공이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이	-0.032 (0.079)	0.134 (0.094)	0.117 (0.096)	0.051 (0.098)	-0.011 (0.102)	-0.007 (0.027)
육군	0.273 (0.174)	0.002 (0.206)	0.298 (0.211)	0.341 (0.215)	0.042 (0.224)	0.118* (0.067)
흡연 여부	0.110 (0.157)	-0.295 (0.186)	-0.233 (0.190)	-0.450** (0.193)	-0.295 (0.201)	0.063 (0.061)
상병	0.115 (0.206)	0.027 (0.243)	-0.031 (0.249)	0.379 (0.253)	0.213 (0.264)	0.111 (0.068)
병장	0.055 (0.202)	-0.036 (0.239)	-0.089 (0.244)	0.341 (0.248)	0.411 (0.259)	0.157** (0.073)
일주일에 3회 이상	-1.523*** (0.385)	0.961** (0.455)	0.725 (0.466)	0.231 (0.474)	1.854*** (0.494)	0.359** (0.161)
일주일에 1~2회	-0.621** (0.261)	0.225 (0.309)	-0.105 (0.316)	0.423 (0.322)	1.138*** (0.335)	0.179** (0.087)
한 달에 1~2회	-0.328 (0.272)	0.224 (0.322)	-0.116 (0.329)	0.271 (0.335)	0.851** (0.349)	0.136 (0.088)
6개월에 1~2회	-0.832 (0.597)	-0.535 (0.707)	-0.387 (0.723)	0.277 (0.736)	0.825 (0.767)	0.016 (0.158)
대학 재학 이상	0.012 (0.207)	0.162 (0.246)	0.096 (0.251)	-0.273 (0.256)	0.133 (0.266)	0.131* (0.068)
중간층	0.323 (0.301)	-0.234 (0.356)	0.050 (0.364)	-0.060 (0.371)	-0.212 (0.386)	-0.003 (0.113)
중하층	0.021 (0.307)	0.210 (0.364)	0.130 (0.372)	-0.165 (0.378)	0.195 (0.394)	0.108 (0.116)
하층	-0.253 (0.636)	1.042 (0.753)	0.900 (0.770)	0.444 (0.784)	0.459 (0.817)	0.258 (0.252)
대인관계	-0.219* (0.112)	-0.121 (0.132)	-0.125 (0.135)	-0.008 (0.138)	0.177 (0.143)	0.020 (0.042)
표본수	115	115	115	115	115	200
R-squared	0.238	0.158	0.120	0.113	0.207	0.145

주: 1. *** p<0.01, ** p<0.5, * p<0.1

2. () 안은 Robust Standard Error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II>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가. 조사개요

<부표 II -1> 조사 개요

구분		군간부	현역사병	군제대자
조사지역 및 기간	지역	대구	서울	전국
	기간	4월 14일~24일	4월 12일~20일	4월 5일~18일
표본 설계	조사대상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근무 하사 이상 모두	현재 군복무 중인 현역사병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군제대자 모두
	조사방법	유치조사	현장 면접조사 (서울역, 용산역, 동서울터미널)	온라인조사
	표본크기	201명	200명	400명
	표집방법	계급 기준 임의할당추출	군유형, 계급 기준 임의할당추출	성, 연령, 지역 기준 임의할당추출
조사 기관	의뢰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기관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응답자 특성표

<부표 II -2> 군간부 응답자 특성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1	100.0
계급	부사관	150	74.6
	장교 이상	51	25.4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32.3
	2001~2010년	35	17.4
	2011~2015년	28	13.9
	2016년 이후	73	36.3
혼인상태	미혼	98	48.8
	기혼	103	51.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3> 현역사병 응답자 특성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1	100.0
군 소속	육군	155	77.5
	해군/공군/해병대	45	22.5
계급	일병 이하	67	33.5
	상병	66	33.0
	병장	67	33.5
학력	고졸 이하	46	23.0
	대학 재학(휴학) 이상	154	77.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	88	44.0
	대전/세종/충청	21	10.5
	광주/전라/제주	29	14.5
	대구/경북	26	13.0
	부산/울산/경남	36	18.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4> 군제대자 응답자 특성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0	100.0
군 소속	육군	344	86.0
	해군/공군/해병대	56	14.0
연령	19~22세	117	29.3
	23~26세	207	51.8
	27~29세	76	19.0
학력	고졸 이하	43	10.8
	대학 재학(휴학)	243	60.8
	대학 졸업	97	24.3
	대학원 재학 이상	17	4.3
직업	학생	250	62.5
	직장인	114	28.5
	무직	36	9.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	220	55.0
	대전/세종/충청	42	10.5
	광주/전라/제주	42	10.5
	대구/경북	38	9.5
	부산/울산/경남	58	14.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조사결과

가. 조사결과 요약

□ 음주 횟수 및 평균 음주량

-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일주일에 3회 이상+일주일에 1~2회)은 군간부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현역사병(46.5%), 군제대자(45.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5> 음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월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군간부: 현재 음주 횟수	201	8.5	50.7	28.9	5.5	6.5	100.0
현역사병: 입대 전 음주 횟수	200	4.0	42.5	34.5	4.0	15.0	100.0
군제대자: 입대 전 음주 횟수	400	11.3	33.8	32.5	12.0	10.5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1회 평균 음주량은 현역사병(소주 1.54병, 맥주 1,094.41cc)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군제대자(소주 1.45병, 맥주 955.98cc), 군간부(소주 1.43병, 맥주 869.07cc) 순으로 음주량이 많았음

<부표 II -6> 음주 시 평균 음주량

(단위: 병, cc)

구분	사례수	1. 소주(병)	2. 맥주(cc)
군간부: 현재 음주 횟수	188	1.43	869.07
현역사병: 입대 전 음주 횟수	170	1.54	1,094.41
군제대자: 입대 전 음주 횟수	358	1.45	955.9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간부 군납면세주류 구매 실태

- 군간부들이 작년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 구매량은 소주 23.36병, 맥주 72.20병, 양주 1.58병이었음
- 군납면세주류 구매로 절약한 금액은 10만원 이하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11~20만원은 22.9%로 나타났으며, 절약 금액 평균은 1.75만원임

[부도 II -1]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병)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간부들이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9%, 없다는 87.1%로 나타남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횟수는 1~2회가 65.4%, 3회 이상은 34.6%로 나타났으며, 구매 횟수 평균은 1.35회임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평균은 소주 14.81병, 맥주 30.62병, 양주 0.19병으로 나타남
- 군간부들이 부대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 구매하지 못한 경험 있다는 응답은 46.3%, 없다는 53.7%로 나타남

□ 현역사병 및 군제대자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및 구매실태

- 군납면세주류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현역사병(72.5%)이 군제대자(56.0%)보다 높게 나타남

<부표 II -7>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현역사병	200	72.5	27.5	100.0
군제대자	400	56.0	44.0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역사병 중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5%로 대다수가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역사병들이 군납면세주류를 비구매한 이유로는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가 64.1%로 가장 높았으며,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가 23.1%로 나타남

- 군제대자 중 군복무 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평균은 소주 3.47병, 맥주 5.25병, 양주 2.66병이었으며, 군납면세주류 구매 당시 계급이 병장 및 상병이었다가 각각 65.6%, 60.3%로 10명 중 6명은 상병 이후에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로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가 52.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14.2%,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11.4%의 순으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으로 군간부, 현역사병, 군제대자 모두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이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 보다 높게 나타남
-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은 현역사병(75.5%)과 군제대자(70.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은 군간부 중 ▶부사관(61.3%), ▶입대연도 2000년 이전(64.6%), ▶기혼(62.1%)에서 높게 나타남
 - 현역사병 중에서는 ▶입대 전 거주지역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각각 90.5%, 82.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1.7%)에서 특히 높았음
 - 군제대자 중에서는 ▶27~29세(77.6%), ▶대학 졸업 이상(75.4%), ▶직장인(78.1%), ▶입대 전 거주지역 대구/경북(76.3%),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5.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8>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면세 구입 선호	차액 현금 지급 선호	계
군간부	201	57.7	42.3	100.0
현역사병	200	75.5	24.5	100.0
군제대자	400	70.3	2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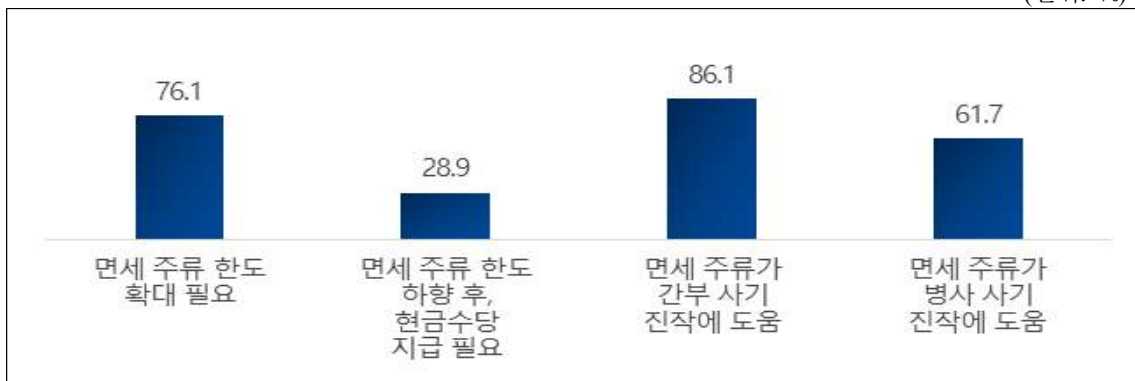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간부 면세주류 관련 의견

- 면세주류 관련 의견 네 가지 중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면세주류 한도 확대 필요’(76.1%),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6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면세주류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 필요’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은 28.9%로 가장 낮았음

[부도 II -2] 면세주류 관련 의견: 긍정 응답 비율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 군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평균 횟수는 군제대자가 4.1회로 현역사병 2.04회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역사병의 군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횟수는 0회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8.0%, 5회 이상 15.5%, 3~4회 14.0% 순이었음
 - 군제대자의 군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횟수는 5회 이상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4회 28.5%, 1~2회 21.0% 순이었음

<부표 II -9>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4회	5회 이상	계	평균
현역사병	200	42.5	28.0	14.0	15.5	100.0	2.04
군제대자	400	14.8	21.0	28.5	35.8	100.0	4.1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술 제공 회식 평균 횟수는 군제대자가 2.21회로 현역사병 1.26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역사병의 술 제공 회식 횟수는 0회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5.2%, 3회 이상 17.4% 순이었으며, 술 제공 회식 시의 음주량 평균은 소주 0.09병, 맥주 391.02cc인 것으로 나타남
 - 군제대자의 술 제공 회식 횟수는 1~2회가 44.6%, 3회 이상 31.7%의 순이었으며, 술 제공 회식 시의 음주량 평균은 소주 0.94병, 맥주 894.47cc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10> 술 제공 회식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평균 횟수
현역사병	115	57.4	25.2	17.4	100.0	1.26
군제대자	341	23.8	44.6	31.7	100.0	2.21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 군행사 이외에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는 현역사병 및 군제대자 모두 0회가 각각 86.5%,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이상은 군제대자가 38.3%, 현역사병이 13.5%로 나타남

<부표 II -11>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현역사병	200	86.5	7.5	6.0	100.0
군제대자	400	61.8	26.5	11.8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대 회식/행사 관련 의견

- 군대 회식/행사, 주류 제공 회식/행사, 간부들과 술자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와 ‘군복무 중 스트레스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충성심 고취’와 ‘군 사기’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현역사병에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은 의견은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96.3%),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87.0%),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83.5%)이었던 반면, ‘간부들과 술자리가 충성심 고취’(7.4%), ‘간부들과 술자리가 군 사기’(14.8%),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29.6%),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34.8%)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군대 회식/행사가 군 사기와 충성심 고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군제대자에서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은 의견은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76.5%),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76.0%), ‘회식/행사가 군 사기’(75.4%)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12>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명, %)

구분		현역사병				군제대자			
		사례수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사례수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회식 행사	충성심 고취	115	13.0	57.4	29.6	341	5.9	27.9	66.3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115	0.0	16.5	83.5	341	8.5	18.2	73.3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115	0.9	12.2	87.0	341	7.3	16.7	76.0
	군 사기	115	0.9	37.4	61.7	341	6.7	17.9	75.4
주류 제공 회식 행사	충성심 고취	115	8.7	56.5	34.8	341	10.0	29.3	60.7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115	0.0	37.4	62.6	341	8.5	18.2	73.3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115	0.0	33.0	67.0	341	7.0	16.4	76.5
	군 사기	115	7.0	46.1	47.0	341	8.8	19.9	71.3
간부들과 술자리	충성심 고취	27	0.0	92.6	7.4	153	7.2	22.2	70.6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27	0.0	3.7	96.3	153	8.5	18.3	73.2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27	0.0	29.6	70.4	153	5.9	21.6	72.5
	군 사기	27	0.0	85.2	14.8	153	11.1	23.5	65.4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라는 응답은 현역사병(57.4%)이 군제대자(28.7%)보다 높았으며,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군제대자(56.3%)가 현역사병(33.9%)보다 높게 나타남

-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현역사병 중 ▶육군(40.0%), ▶병장(36.5%),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군제대자 중에서는▶입대 전 거주지역 인천/경기/강원 및 부산/울산/경남(각각 61.2%),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64.4%)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13>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영향 없음	주류 제공 선호	다과 및 음료 선호	계
현역사병	115	57.4	33.9	8.7	100.0
군제대자	341	28.7	56.3	15.0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관련 의견

- 대인관계 관련 네 가지 의견에 대해 현역사병은 ‘사교적인 모임 편안’(59.5%),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52.0%)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제대자에서는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이라는 응답이 4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현역사병에서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이라는 응답이 12.0%로 다른 의견 대비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부표 II -14> 대인관계 관련 의견

(단위: %)

구분	현역사병(n=200)			군제대자(n=400)		
	그렇지 않다 ①+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⑤	그렇지 않다 ①+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⑤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33.0	55.0	12.0	26.0	39.5	34.5
사교적인 모임 편안	6.0	34.5	59.5	20.3	40.0	39.8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6.0	42.0	52.0	25.3	35.3	39.5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14.5	42.0	43.5	24.3	32.5	43.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군간부 결과

□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부도 II -3]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병)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작년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 구매량은 소주 23.36병, 맥주 72.20병, 양주 1.58병이었음

- 소주, 맥주, 양주 구매량 모두 ▶부사관, ▶입대연도 2000년 이전, ▶기혼,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많았음

<부표 II -15>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명, 병)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양주
전체		201	23.36	72.20	1.58
계급	부사관	150	25.98	80.23	1.71
	장교 이상	51	15.67	48.61	1.18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31.91	101.85	2.00
	2001~2010년	35	24.31	85.31	1.49
	2011~2015년	28	20.14	62.43	1.71
	2016년 이후	73	16.53	43.27	1.19
혼인상태	미혼	98	17.01	49.72	1.33
	기혼	103	29.41	93.59	1.82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29.42	86.60	1.70
	월 1~2회	58	14.26	55.24	1.55
	6개월 2회 이하	24	15.33	41.83	1.04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로 절약한 금액은 10만원 이하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11~20만원은 22.9%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에 따른 절약 금액 평균은 1.75만원임
 - 절약 금액 평균은 ▶부사관(1.88만원), ▶입대연도 2000년 이전(2.12만원), ▶기혼(1.92만원),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1.87만원)에서 많았음

<부표 II -16>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를 통해 절약한 금액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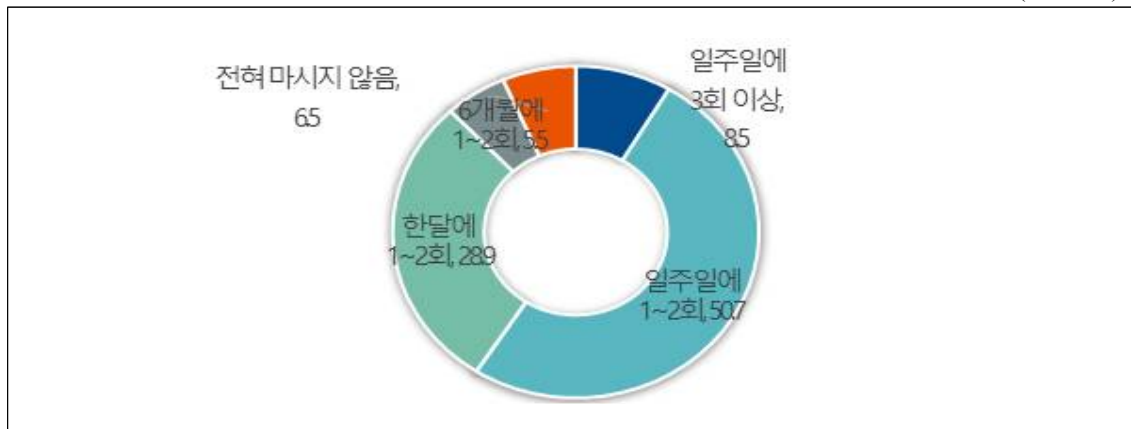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0만원 이하	11~20만원	21~30만원	31만원 이상	계	평균
전체		201	55.7	22.9	11.9	9.5	100.0	1.75
계급	부사관	150	50.7	22.7	14.7	12.0	100.0	1.88
	장교 이상	51	70.6	23.5	3.9	2.0	100.0	1.37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40.0	26.2	15.4	18.5	100.0	2.12
	2001~2010년	35	57.1	20.0	11.4	11.4	100.0	1.77
	2011~2015년	28	57.1	25.0	10.7	7.1	100.0	1.68
	2016년 이후	73	68.5	20.5	9.6	1.4	100.0	1.44
혼인상태	미혼	98	62.2	23.5	9.2	5.1	100.0	1.57
	기혼	103	49.5	22.3	14.6	13.6	100.0	1.92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50.4	23.5	14.3	11.8	100.0	1.87
	월 1~2회	58	60.3	22.4	10.3	6.9	100.0	1.64
	6개월 2회 이하	24	70.8	20.8	4.2	4.2	100.0	1.4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음주 횟수

[부도 II -4] 음주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음주 횟수는 주 1~2회가 50.7%로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는 28.9%로 나타남
 - 주 1~2회는 ▶입대연도 2000년 이전(63.1%), ▶기혼(59.2%)에서 높게 나타남
 - 월 1~2회는 ▶입대연도 2016년 이후(34.2%), ▶미혼(3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17> 응답자 특성별 음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월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전체	201	8.5	50.7	28.9	5.5	6.5	100.0	
계급	부사관	150	8.7	50.0	28.0	6.0	7.3	100.0
	장교 이상	51	7.8	52.9	31.4	3.9	3.9	10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4.6	63.1	24.6	6.2	1.5	100.0
	2001~2010년	35	11.4	51.4	28.6	5.7	2.9	100.0
	2011~2015년	28	14.3	42.9	25.0	3.6	14.3	100.0
	2016년 이후	73	8.2	42.5	34.2	5.5	9.6	100.0
혼인상태	미혼	98	6.1	41.8	34.7	6.1	11.2	100.0
	기혼	103	10.7	59.2	23.3	4.9	1.9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기준으로 1.43병, 맥주 기준으로 869.07cc로 나타남
 - 1회 평균 음주량은 소주 기준으로 ▶부사관(1.51병), ▶입대연도 2000년 이전 (1.55병),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2.45병)에서 많았음
 - 1회 평균 음주량은 맥주 기준으로 ▶장교 이상(957.14cc), ▶입대연도 2001~2010년(986.91cc),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910.97cc)에서 많았음

<부표 II -18> 응답자 특성별 1회 평균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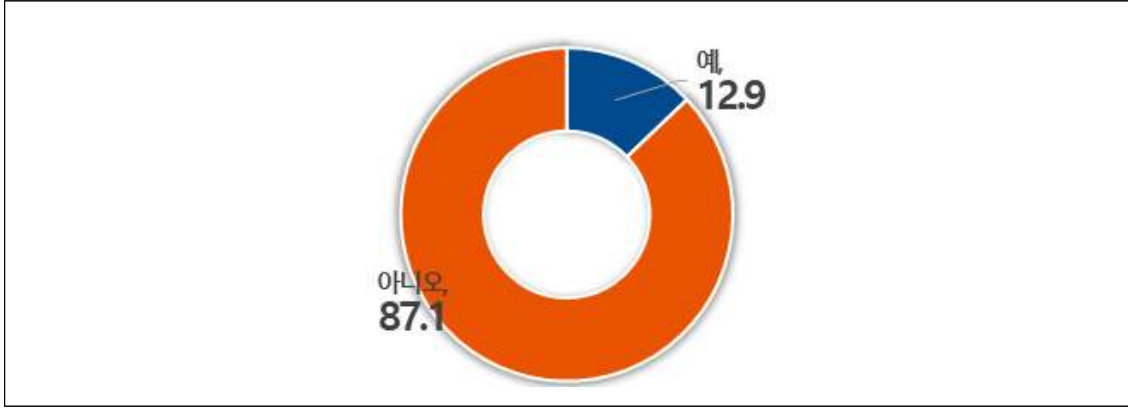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병)	맥주(cc)	
전체	188	1.43	869.07	
계급	부사관	139	1.51	838.02
	장교 이상	49	1.21	957.14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4	1.55	732.11
	2001~2010년	34	1.34	986.91
	2011~2015년	24	1.35	876.04
	2016년 이후	66	1.40	938.64
혼인상태	미혼	87	1.40	894.60
	기혼	101	1.46	847.08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1.47	910.97
	월 1~2회	58	1.16	865.17
	6개월 2회 이하	11	2.45	436.3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부도 II -5]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9%, 없다는 87.1%로 나타남
- 구매 경험 있다는 ▶입대연도 2000년 이전(24.6%), ▶기혼(19.4%)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19> 응답자 특성별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1	12.9	87.1	100.0
계급	부사관	150	12.0	88.0	100.0
	장교 이상	51	15.7	84.3	10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24.6	75.4	100.0
	2001~2010년	35	5.7	94.3	100.0
	2011~2015년	28	14.3	85.7	100.0
	2016년 이후	73	5.5	94.5	100.0
혼인상태	미혼	98	6.1	93.9	100.0
	기혼	103	19.4	80.6	100.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15.1	84.9	100.0
	월 1~2회	58	10.3	89.7	100.0
	6개월 2회 이하	24	8.3	91.7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횟수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횟수는 1~2회가 65.4%, 3회 이상은 34.6%로 나타남
- 구매 횟수 평균은 1.35회였음

<부표 II -20> 응답자 특성별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1~2회	3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26	65.4	34.6	100.0	1.35
계급	부사관	18	66.7	33.3	100.0	1.33
	장교 이상	8	62.5	37.5	100.0	1.38
입대연도	2000년 이전	16	50.0	50.0	100.0	1.50
	2001~2010년	2	100.0	0.0	100.0	1.00
	2011~2015년	4	75.0	25.0	100.0	1.25
	2016년 이후	4	100.0	0.0	100.0	1.00
혼인상태	미혼	6	83.3	16.7	100.0	1.17
	기혼	20	60.0	40.0	100.0	1.4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61.1	38.9	100.0	1.39
	월 1~2회	6	66.7	33.3	100.0	1.33
	6개월 2회 이하	2	100.0	0.0	100.0	1.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평균은 소주 14.81병, 맥주 30.62병, 양주 0.19병으로 나타남
- 소주, 맥주 구매량 평균은 ▶부사관, ▶입대연도 2000년 이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많았음

<부표 II -21> 응답자 특성별 장병 사기 진작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명,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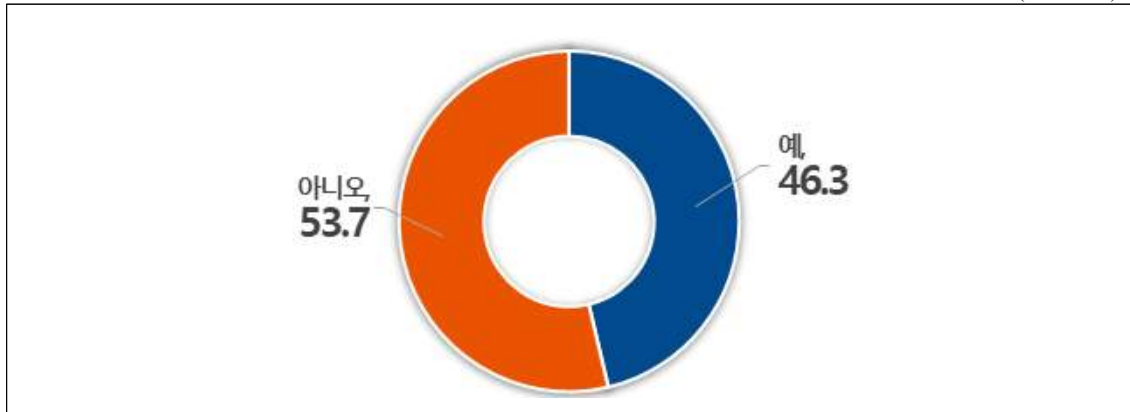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양주
전체		26	14.81	30.62	0.19
계급	부사관	18	16.11	37.61	0.22
	장교 이상	8	11.88	14.88	0.13
입대연도	2000년 이전	16	18.50	40.19	0.13
	2001~2010년	2	10.00	29.00	0.00
	2011~2015년	4	10.75	11.25	0.25
	2016년 이후	4	6.50	12.50	0.50
혼인상태	미혼	6	12.00	18.67	0.50
	기혼	20	15.65	34.20	0.1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16.94	34.00	0.22
	월 1~2회	6	11.00	30.67	0.17
	6개월 2회 이하	2	7.00	0.00	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대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 구매하지 못한 경험

[부도 II -6] 부대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 구매하지 못한 경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대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지 못한 경험 있다는 응답은 46.3%, 없다는 53.7%로 나타남
- 구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입대연도 2000년 이전(66.2%), ▶기혼(57.3%),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58.0%)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2> 응답자 특성별 부대 배속 한도 초과로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지 못한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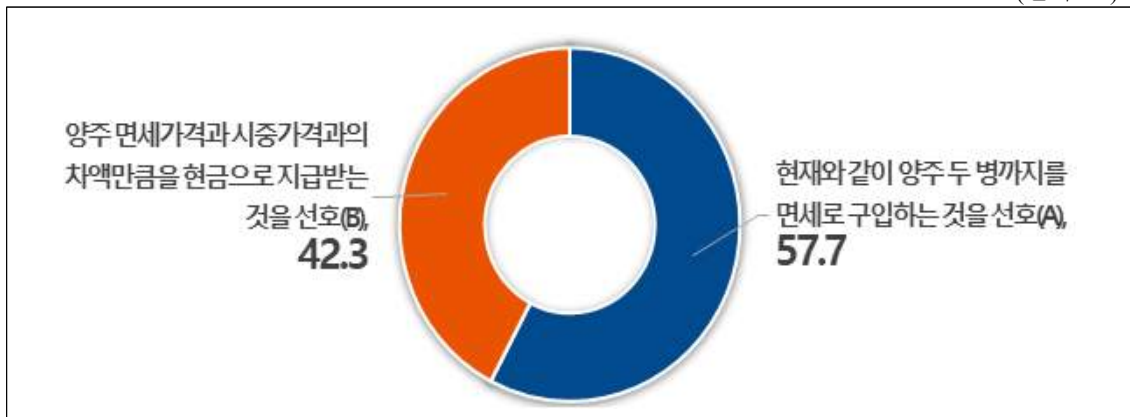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1	46.3	53.7	100.0
계급	부사관	150	48.7	51.3	100.0
	장교 이상	51	39.2	60.8	10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66.2	33.8	100.0
	2001~2010년	35	37.1	62.9	100.0
	2011~2015년	28	42.9	57.1	100.0
	2016년 이후	73	34.2	65.8	100.0
혼인상태	미혼	98	34.7	65.3	100.0
	기혼	103	57.3	42.7	100.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58.0	42.0	100.0
	월 1~2회	58	34.5	65.5	100.0
	6개월 2회 이하	24	16.7	83.3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부도 II -7]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이 57.7%로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는 응답 42.3%보다 15.4%p 높게 나타남

-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은 ▶부사관(61.3%), ▶입대연도 2000년 이전(64.6%), ▶기혼(62.1%)에서 높게 나타남
-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는 응답은 ▶장교 이상(5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3〉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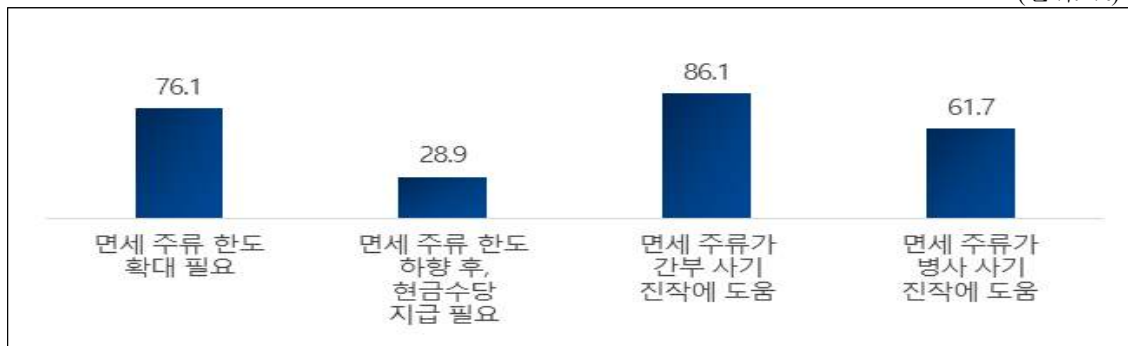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면세 구입 선호(A)	차액 현금 지급 선호(B)	계
전체		201	57.7	42.3	100.0
계급	부사관	150	61.3	38.7	100.0
	장교 이상	51	47.1	52.9	10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64.6	35.4	100.0
	2001~2010년	35	57.1	42.9	100.0
	2011~2015년	28	53.6	46.4	100.0
	2016년 이후	73	53.4	46.6	100.0
혼인상태	미혼	98	53.1	46.9	100.0
	기혼	103	62.1	37.9	100.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59.7	40.3	100.0
	월 1~2회	58	55.2	44.8	100.0
	6개월 2회 이하	24	54.2	45.8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면세주류 관련 의견: 긍정 응답 비율 기준

[부도 II -8] 면세주류 관련 의견: 긍정 응답 비율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면세주류 관련 의견 네 가지 중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면세주류 한도 확대 필요’(76.1%),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6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면세주류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 필요’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28.9%로 가장 낮았음

□ 면세주류 한도 확대 필요

- 면세주류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6.1%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6.5%보다 높게 나타남
 - 필요하다는 응답은 ▶입대연도 2000년 이전, 2001~2010년(각각 86.2%, 82.9%), ▶기혼(86.4%),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8.2%)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4> 응답자 특성별 면세주류 한도 확대 필요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1	3.0	3.5	17.4	22.9	53.2	76.1	6.5
계급	부사관	150	2.7	3.3	17.3	20.7	56.0	76.7	6.0
	장교 이상	51	3.9	3.9	17.6	29.4	45.1	74.5	7.8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1.5	1.5	10.8	16.9	69.2	86.2	3.1
	2001~2010년	35	2.9	5.7	8.6	31.4	51.4	82.9	8.6
	2011~2015년	28	0.0	3.6	32.1	10.7	53.6	64.3	3.6
	2016년 이후	73	5.5	4.1	21.9	28.8	39.7	68.5	9.6
혼인상태	미혼	98	3.1	6.1	25.5	23.5	41.8	65.3	9.2
	기혼	103	2.9	1.0	9.7	22.3	64.1	86.4	3.9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0.0	0.8	10.9	27.7	60.5	88.2	0.8
	월 1~2회	58	6.9	5.2	22.4	13.8	51.7	65.5	12.1
	6개월 2회 이하	24	8.3	12.5	37.5	20.8	20.8	41.7	20.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면세주류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 필요

- 면세주류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8.9%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37.8%보다 낮았음

<부표 II -25> 응답자 특성별 면세주류 한도 하향 후, 현금수당 지급 필요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1	18.9	18.9	33.3	12.4	16.4	28.9	37.8
계급	부서관	150	22.0	15.3	29.3	14.7	18.7	33.3	37.3
	장교 이상	51	9.8	29.4	45.1	5.9	9.8	15.7	39.2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27.7	24.6	23.1	12.3	12.3	24.6	52.3
	2001~2010년	35	20.0	17.1	25.7	11.4	25.7	37.1	37.1
	2011~2015년	28	10.7	14.3	57.1	7.1	10.7	17.9	25.0
	2016년 이후	73	13.7	16.4	37.0	15.1	17.8	32.9	30.1
혼인상태	미혼	98	15.3	13.3	37.8	14.3	19.4	33.7	28.6
	기혼	103	22.3	24.3	29.1	10.7	13.6	24.3	46.6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21.8	23.5	30.3	13.4	10.9	24.4	45.4
	월 1~2회	58	15.5	17.2	34.5	6.9	25.9	32.8	32.8
	6개월 2회 이하	24	12.5	0.0	45.8	20.8	20.8	41.7	12.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서관(33.3%), ▶입대연도 2001~2010년(37.1%), ▶미혼(33.7%),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4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필요하지 않다는 ▶입대연도 2000년 이전(52.3%), ▶기혼(46.6%),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5.4%)에서 높게 나타남

□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

-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86.1%로 10명 중 약 9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0.5%로 나타남
-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입대연도 2001~2010년(94.3%), ▶기혼(89.3%),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91.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6> 응답자 특성별 면세주류가 간부 사기 진작에 도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1	0.5	0.0	13.4	28.9	57.2	86.1	0.5	
계급	부사관	150	0.7	0.0	13.3	28.0	58.0	86.0	0.7
	장교 이상	51	0.0	0.0	13.7	31.4	54.9	86.3	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0.0	0.0	12.3	21.5	66.2	87.7	0.0
	2001~2010년	35	2.9	0.0	2.9	31.4	62.9	94.3	2.9
	2011~2015년	28	0.0	0.0	32.1	21.4	46.4	67.9	0.0
	2016년 이후	73	0.0	0.0	12.3	37.0	50.7	87.7	0.0
혼인상태	미혼	98	0.0	0.0	17.3	33.7	49.0	82.7	0.0
	기혼	103	1.0	0.0	9.7	24.3	65.0	89.3	1.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0.0	0.0	8.4	23.5	68.1	91.6	0.0
	월 1~2회	58	0.0	0.0	13.8	39.7	46.6	86.2	0.0
	6개월 2회 이하	24	4.2	0.0	37.5	29.2	29.2	58.3	4.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

-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61.7%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11.4%보다 높게 나타났음
-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입대연도 2000년 이전(73.8%), ▶기혼(66.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66.4%)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7> 응답자 특성별 면세주류가 병사 사기 진작에 도움 의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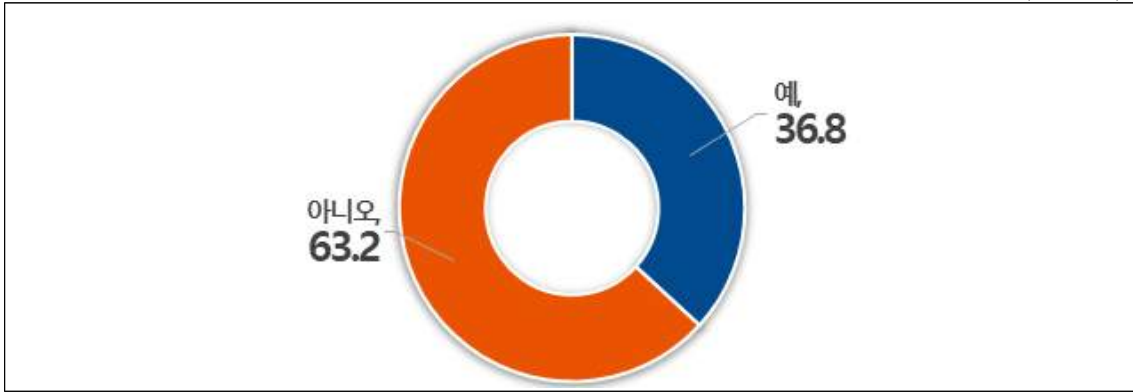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1	4.5	7.0	26.9	30.3	31.3	61.7	11.4	
계급	부사관	150	4.7	6.0	25.3	32.7	31.3	64.0	10.7
	장교 이상	51	3.9	9.8	31.4	23.5	31.4	54.9	13.7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3.1	6.2	16.9	32.3	41.5	73.8	9.2
	2001~2010년	35	5.7	2.9	31.4	40.0	20.0	60.0	8.6
	2011~2015년	28	7.1	3.6	28.6	21.4	39.3	60.7	10.7
	2016년 이후	73	4.1	11.0	32.9	27.4	24.7	52.1	15.1
혼인상태	미혼	98	3.1	9.2	30.6	29.6	27.6	57.1	12.2
	기혼	103	5.8	4.9	23.3	31.1	35.0	66.0	10.7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5.0	3.4	25.2	26.1	40.3	66.4	8.4
	월 1~2회	58	3.4	12.1	24.1	37.9	22.4	60.3	15.5
	6개월 2회 이하	24	4.2	12.5	41.7	33.3	8.3	41.7	16.7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흡연 여부

[부도 II -9] 흡연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재 흡연을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36.8%인 것으로 나타남
 - 흡연을 한다는 응답자는 ▶입대연도 2016년 이후(43.8%), ▶미혼(42.9%),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3.7)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28> 응답자 특성별 흡연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1	36.8	63.2	100.0
계급	부사관	150	38.0	62.0	100.0
	장교 이상	51	33.3	66.7	100.0
입대연도	2000년 이전	65	30.8	69.2	100.0
	2001~2010년	35	34.3	65.7	100.0
	2011~2015년	28	35.7	64.3	100.0
	2016년 이후	73	43.8	56.2	100.0
혼인상태	미혼	98	42.9	57.1	100.0
	기혼	103	31.1	68.9	100.0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9	43.7	56.3	100.0
	월 1~2회	58	32.8	67.2	100.0
	6개월 2회 이하	24	12.5	8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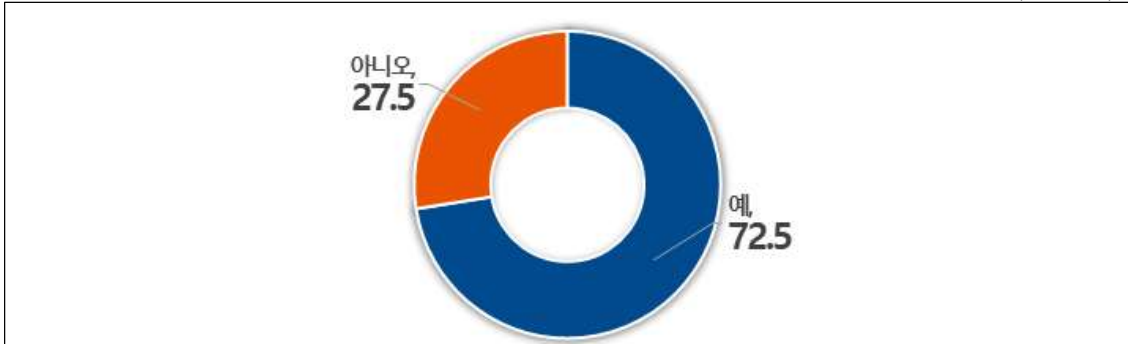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현역사병 결과

□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부도 II -10]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72.5%로 알지 못했다 27.5%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남
- 알고 있었다는 ▶해군/공군/해병대(82.2%), ▶병장(91.0%), ▶입대 전 거주지역 인천/경기/강원(80.4%)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29> 군납면세주류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0	72.5	27.5	100.0	
군소속	육군	155	69.7	30.3	100.0
	해군/공군/해병대	45	82.2	17.8	100.0
계급	일병 이하	67	52.2	47.8	100.0
	상병	66	74.2	25.8	100.0
	병장	67	91.0	9.0	100.0
학력	고졸 이하	46	76.1	23.9	100.0
	대학 재학 이상	154	71.4	28.6	10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76.2	23.8	100.0
	인천/경기/강원	46	80.4	19.6	100.0
	대전/세종/충청	21	71.4	28.6	100.0
	광주/전라/제주	29	65.5	34.5	100.0
	대구/경북	26	65.4	34.6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부산/울산/경남	36	69.4	30.6	100.0
	주 1회 이상	93	75.3	24.7	100.0
음주 횟수	월 1~2회	69	71.0	29.0	100.0
	6개월 2회 이하	38	68.4	31.6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로 대다수가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30>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200	2.5	97.5	100.0	
군소속	육군	155	1.9	98.1	100.0
	해군/공군/해병대	45	4.4	95.6	100.0
계급	일병 이하	67	1.5	98.5	100.0
	상병	66	3.0	97.0	100.0
	병장	67	3.0	97.0	100.0
학력	고졸 이하	46	6.5	93.5	100.0
	대학 재학 이상	154	1.3	98.7	10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4.8	95.2	100.0
	인천/경기/강원	46	0.0	100.0	100.0
	대전/세종/충청	21	4.8	95.2	100.0
	광주/전라/제주	29	0.0	100.0	100.0
	대구/경북	26	0.0	100.0	100.0
	부산/울산/경남	36	5.6	94.4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3.2	96.8	100.0
	월 1~2회	69	2.9	97.1	100.0
	6개월 2회 이하	38	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로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가 64.1%로 가장 높았으며,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가 23.1%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74.4%), ▶병장(70.8%), ▶고졸 이하(72.1%), ▶입대 전 거주지역 대전/세종/충청(75.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0.0%)에서 높게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는 ▶일병 이하(37.9%), ▶입대 전 거주지역 광주/전라/제주(31.0%),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3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1>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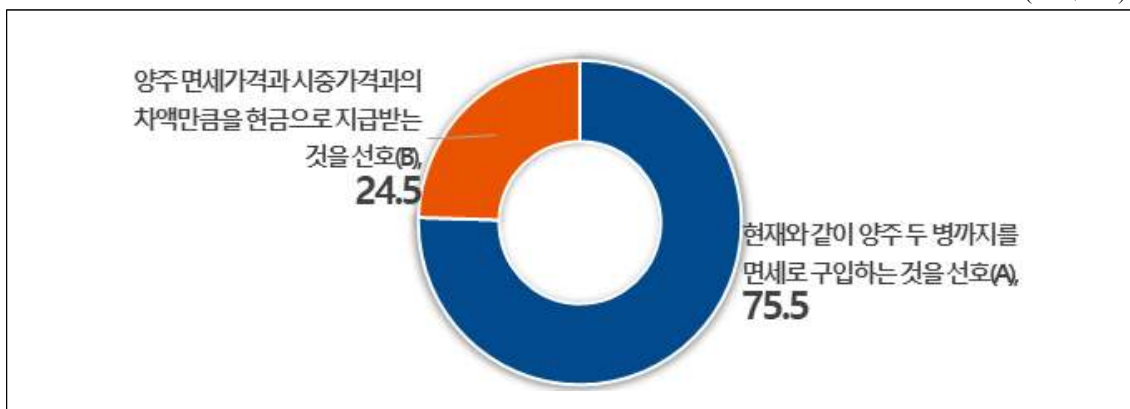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군납면세 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군납면세 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영내 군납 면세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기타	
전체	195	64.1	23.1	4.6	0.0	11.3	
군소속	육군	152	61.2	24.3	5.9	0.0	12.5
	해군/공군/해병대	43	74.4	18.6	0.0	0.0	7.0
계급	일병 이하	66	54.5	37.9	7.6	0.0	4.5
	상병	64	67.2	21.9	4.7	0.0	7.8
	병장	65	70.8	9.2	1.5	0.0	21.5
학력	고졸 이하	43	72.1	20.9	2.3	0.0	9.3
	대학 재학 이상	152	61.8	23.7	5.3	0.0	11.8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0	65.0	25.0	2.5	0.0	7.5
	인천/경기/강원	46	67.4	15.2	8.7	0.0	13.0
	대전/세종/충청	20	75.0	15.0	5.0	0.0	10.0
	광주/전라/제주	29	48.3	31.0	6.9	0.0	17.2
	대구/경북	26	65.4	26.9	3.8	0.0	7.7
	부산/울산/경남	34	64.7	26.5	0.0	0.0	11.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0	70.0	17.8	3.3	0.0	10.0
	월 1~2회	67	58.2	31.3	6.0	0.0	9.0
	6개월 2회 이하	38	60.5	21.1	5.3	0.0	18.4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부도 II -11]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가 75.5%로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 24.5%보다 약 51.0%p 높았음
 -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은 ▶입대 전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각각 90.5%, 82.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1.7%)에서 높게 나타남
 -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는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40.5%),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3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2>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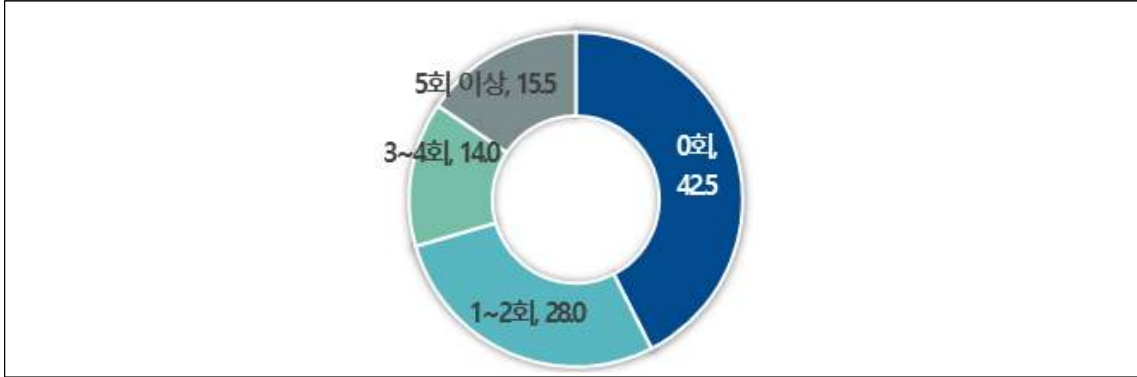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	계	
전체	200	75.5	24.5	100.0	
군소속	육군	155	74.2	25.8	100.0
	해군/공군/해병대	45	80.0	20.0	100.0
계급	일병 이하	67	76.1	23.9	100.0
	상병	66	74.2	25.8	100.0
	병장	67	76.1	23.9	100.0
학력	고졸 이하	46	80.4	19.6	100.0
	대학 재학 이상	154	74.0	26.0	10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59.5	40.5	100.0
	인천/경기/강원	46	78.3	21.7	100.0
	대전/세종/충청	21	90.5	9.5	100.0
	광주/전라/제주	29	82.8	17.2	100.0
	대구/경북	26	69.2	30.8	100.0
	부산/울산/경남	36	80.6	19.4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81.7	18.3	100.0
	월 1~2회	69	72.5	27.5	100.0
	6개월 2회 이하	38	65.8	34.2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부도 II -12]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입대 이후 군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횟수는 0회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8.0%, 5회 이상 15.5%, 3~4회 14.0% 순으로 나타남

<부표 II -33> 응답자 특성별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4회	5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200	42.5	28.0	14.0	15.5	100.0	2.04	
군소속	육군	155	45.2	25.2	12.9	16.8	100.0	2.01
	해군/공군/해병대	45	33.3	37.8	17.8	11.1	100.0	2.16
계급	일병 이하	67	67.2	26.9	4.5	1.5	100.0	0.60
	상병	66	37.9	33.3	13.6	15.2	100.0	2.05
	병장	67	22.4	23.9	23.9	29.9	100.0	3.48
학력	고졸 이하	46	54.3	28.3	4.3	13.0	100.0	1.41
	대학 재학 이상	154	39.0	27.9	16.9	16.2	100.0	2.23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35.7	21.4	16.7	26.2	100.0	2.81
	인천/경기/강원	46	41.3	32.6	17.4	8.7	100.0	1.80
	대전/세종/충청	21	42.9	28.6	0.0	28.6	100.0	2.10
	광주/전라/제주	29	51.7	41.4	3.4	3.4	100.0	1.03
	대구/경북	26	46.2	15.4	26.9	11.5	100.0	2.23
	부산/울산/경남	36	41.7	27.8	13.9	16.7	100.0	2.0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31.2	35.5	14.0	19.4	100.0	2.48
	월 1~2회	69	44.9	23.2	14.5	17.4	100.0	2.01
	6개월 2회 이하	38	65.8	18.4	13.2	2.6	100.0	1.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 횟수 평균은 2.04회임

- 회식 횟수 평균은 ▶병장(3.48회), ▶입대 전 거주지역 서울(2.81회),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2.48회)에서 높게 나타남

□ 술 제공 회식 횟수

○ 군입대 이후 군 공식행사 중 술 제공 회식 횟수는 0회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1~2회 25.2%, 3회 이상 17.4% 순이었음

○ 술 제공 회식 횟수 평균은 1.26회임

- 술 제공 회식 횟수 평균은 ▶육군(1.40회), ▶병장(1.71회), ▶대학 재학 이상(1.45회), ▶입대 전 거주지역 서울(2.30회)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4> 응답자 특성별 술 제공 회식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115	57.4	25.2	17.4	100.0	1.26
군소속	육군	85	52.9	27.1	20.0	100.0	1.40
	해군/공군/해병대	30	70.0	20.0	10.0	100.0	0.87
계급	일병 이하	22	81.8	18.2	0.0	100.0	0.27
	상병	41	61.0	17.1	22.0	100.0	1.22
	병장	52	44.2	34.6	21.2	100.0	1.71
학력	고졸 이하	21	81.0	14.3	4.8	100.0	0.43
	대학 재학 이상	94	52.1	27.7	20.2	100.0	1.45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29.6	37.0	33.3	100.0	2.30
	인천/경기/강원	27	70.4	14.8	14.8	100.0	0.93
	대전/세종/충청	12	75.0	8.3	16.7	100.0	1.00
	광주/전라/제주	14	78.6	21.4	0.0	100.0	0.29
	대구/경북	14	35.7	42.9	21.4	100.0	1.64
	부산/울산/경남	21	66.7	23.8	9.5	100.0	0.9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53.1	28.1	18.8	100.0	1.39
	월 1~2회	38	55.3	23.7	21.1	100.0	1.39
	6개월 2회 이하	13	84.6	15.4	0.0	100.0	0.2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평균은 소주 0.09병, 맥주 391.02cc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35>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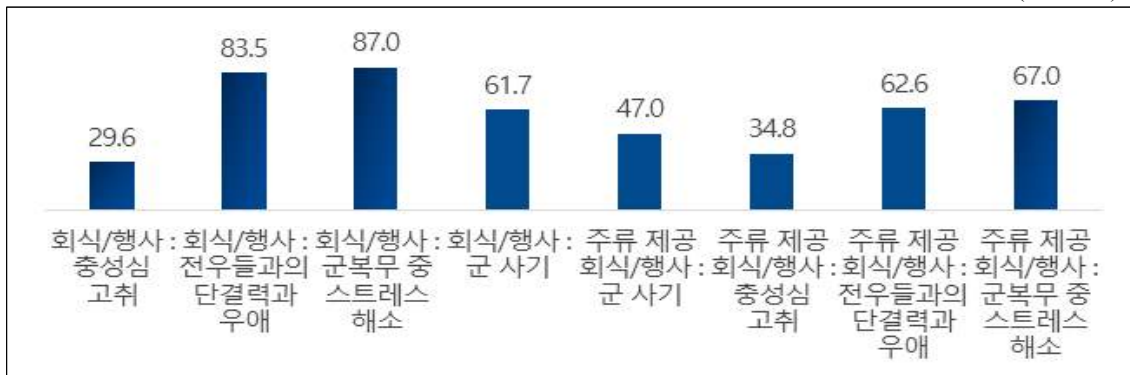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49	0.09	391.02
군소속	육군	40	0.11	403.50
	해군/공군/해병대	9	0.00	335.56
계급	일병 이하	4	0.00	497.50
	상병	16	0.00	457.81
	병장	29	0.16	339.48
학력	고졸 이하	4	0.75	420.00
	대학 재학 이상	45	0.03	388.44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19	0.08	407.89
	인천/경기/강원	8	0.00	376.25
	대전/세종/충청	3	0.00	400.00
	광주/전라/제주	3	0.00	336.67
	대구/경북	9	0.00	354.44
	부산/울산/경남	7	0.43	428.57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30	0.13	347.50
	월 1~2회	17	0.03	473.82
	6개월 2회 이하	2	0.00	34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의견: 긍정 응답 기준

[부도 II -13]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의견: 긍정 응답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여덟 가지 의견 중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과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각각 87.0%, 83.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67.0%),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62.6%), ‘회식/행사가 군 사기에 도움’(6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29.6%),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34.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29.6%로 부정적인 영향 13.0%보다 16.6%p 높았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57.4%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36>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2.6	10.4	57.4	23.5	6.1	0.0	29.6	13.0	
군소속	육군	85	0.0	2.4	9.4	56.5	24.7	7.1	0.0	31.8	11.8
	해군/공군/해병대	30	0.0	3.3	13.3	60.0	20.0	3.3	0.0	23.3	16.7
계급	일병 이하	22	0.0	4.5	18.2	40.9	27.3	9.1	0.0	36.4	22.7
	상병	41	0.0	0.0	12.2	56.1	24.4	7.3	0.0	31.7	12.2
	병장	52	0.0	3.8	5.8	65.4	21.2	3.8	0.0	25.0	9.6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19.0	61.9	19.0	0.0	0.0	19.0	19.0
	대학 재학 이상	94	0.0	3.2	8.5	56.4	24.5	7.4	0.0	31.9	11.7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7.4	44.4	37.0	11.1	0.0	48.1	7.4
	인천/경기/강원	27	0.0	7.4	7.4	55.6	22.2	7.4	0.0	29.6	14.8
	대전/세종/충청	12	0.0	0.0	25.0	58.3	8.3	8.3	0.0	16.7	25.0
	광주/전라/제주	14	0.0	0.0	14.3	57.1	21.4	7.1	0.0	28.6	14.3
	대구/경북	14	0.0	0.0	7.1	71.4	21.4	0.0	0.0	21.4	7.1
	부산/울산/경남	21	0.0	4.8	9.5	66.7	19.0	0.0	0.0	19.0	14.3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4.7	15.6	59.4	15.6	4.7	0.0	20.3	20.3
	월 1~2회	38	0.0	0.0	5.3	55.3	31.6	7.9	0.0	39.5	5.3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53.8	38.5	7.7	0.0	46.2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육군(31.8%), ▶일병 이하(36.4%), ▶대학 재학 이상(31.9%),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 월 1~2회(각각 46.2%, 39.5%)에서 높게 나타남

□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83.5%로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상병(87.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9.1%)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7>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0.0	0.0	16.5	44.3	39.1	0.0	83.5	0.0	
군소속	육군	85	0.0	0.0	0.0	17.6	44.7	37.6	0.0	82.4	0.0
	해군/공군/해병대	30	0.0	0.0	0.0	13.3	43.3	43.3	0.0	86.7	0.0
계급	일병 이하	22	0.0	0.0	0.0	22.7	27.3	50.0	0.0	77.3	0.0
	상병	41	0.0	0.0	0.0	12.2	56.1	31.7	0.0	87.8	0.0
	병장	52	0.0	0.0	0.0	17.3	42.3	40.4	0.0	82.7	0.0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0.0	14.3	47.6	38.1	0.0	85.7	0.0
	대학 재학 이상	94	0.0	0.0	0.0	17.0	43.6	39.4	0.0	83.0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0.0	22.2	40.7	37.0	0.0	77.8	0.0
	인천/경기/강원	27	0.0	0.0	0.0	25.9	40.7	33.3	0.0	74.1	0.0
	대전/세종/충청	12	0.0	0.0	0.0	25.0	33.3	41.7	0.0	75.0	0.0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0.0	71.4	28.6	0.0	100.0	0.0
	대구/경북	14	0.0	0.0	0.0	21.4	35.7	42.9	0.0	78.6	0.0
	부산/울산/경남	21	0.0	0.0	0.0	0.0	47.6	52.4	0.0	100.0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0.0	0.0	10.9	45.3	43.8	0.0	89.1	0.0
	월 1~2회	38	0.0	0.0	0.0	21.1	42.1	36.8	0.0	78.9	0.0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30.8	46.2	23.1	0.0	69.2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행사: 군 사기

- 회식/행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61.7%로 부정적인 영향 0.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7.4%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육군(65.9%), ▶일병 이하 68.2%, ▶대학 재학 이상(63.8%),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 월 1~2회(각각 76.9%, 71.1%)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8>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0.9	0.0	37.4	39.1	17.4	5.2	61.7	0.9	
군소속	육군	85	0.0	0.0	0.0	34.1	41.2	17.6	7.1	65.9	0.0
	해군/공군/해병대	30	0.0	3.3	0.0	46.7	33.3	16.7	0.0	50.0	3.3
계급	일병 이하	22	0.0	0.0	0.0	31.8	50.0	13.6	4.5	68.2	0.0
	상병	41	0.0	0.0	0.0	39.0	39.0	17.1	4.9	61.0	0.0
	병장	52	0.0	1.9	0.0	38.5	34.6	19.2	5.8	59.6	1.9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0.0	47.6	33.3	9.5	9.5	52.4	0.0
	대학 재학 이상	94	0.0	1.1	0.0	35.1	40.4	19.1	4.3	63.8	1.1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3.7	0.0	33.3	48.1	14.8	0.0	63.0	3.7
	인천/경기/강원	27	0.0	0.0	0.0	40.7	37.0	22.2	0.0	59.3	0.0
	대전/세종/충청	12	0.0	0.0	0.0	50.0	33.3	8.3	8.3	50.0	0.0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35.7	35.7	14.3	14.3	64.3	0.0
	대구/경북	14	0.0	0.0	0.0	42.9	35.7	14.3	7.1	57.1	0.0
	부산/울산/경남	21	0.0	0.0	0.0	28.6	38.1	23.8	9.5	71.4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1.6	0.0	45.3	23.4	20.3	9.4	53.1	1.6
	월 1~2회	38	0.0	0.0	0.0	28.9	57.9	13.2	0.0	71.1	0.0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23.1	61.5	15.4	0.0	76.9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 사기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47.0%로 부정적인 영향 7.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46.1%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병장(5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54.7%)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39>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2.6	4.3	46.1	28.7	15.7	2.6	47.0	7.0
군소속	육군	85	0.0	2.4	4.7	44.7	25.9	18.8	3.5	48.2	7.1
	해군/공군/해병대	30	0.0	3.3	3.3	50.0	36.7	6.7	0.0	43.3	6.7
계급	일병 이하	22	0.0	4.5	9.1	40.9	27.3	9.1	9.1	45.5	13.6
	상병	41	0.0	0.0	4.9	51.2	24.4	19.5	0.0	43.9	4.9
	병장	52	0.0	3.8	1.9	44.2	32.7	15.4	1.9	50.0	5.8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4.8	52.4	19.0	23.8	0.0	42.9	4.8
	대학 재학 이상	94	0.0	3.2	4.3	44.7	30.9	13.8	3.2	47.9	7.4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7.4	40.7	33.3	18.5	0.0	51.9	7.4
	인천/경기/강원	27	0.0	7.4	0.0	59.3	18.5	7.4	7.4	33.3	7.4
	대전/세종/충청	12	0.0	0.0	8.3	50.0	16.7	16.7	8.3	41.7	8.3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64.3	7.1	28.6	0.0	35.7	0.0
	대구/경북	14	0.0	0.0	14.3	21.4	50.0	14.3	0.0	64.3	14.3
	부산/울산/경남	21	0.0	4.8	0.0	38.1	42.9	14.3	0.0	57.1	4.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4.7	4.7	35.9	29.7	20.3	4.7	54.7	9.4
	월 1~2회	38	0.0	0.0	2.6	52.6	31.6	13.2	0.0	44.7	2.6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7.7	76.9	15.4	0.0	0.0	15.4	7.7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34.8%, 부정적인 영향 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56.5%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육군(38.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37.5%)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40>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2.6	6.1	56.5	23.5	8.7	2.6	34.8	8.7
군소속	육군	85	0.0	2.4	4.7	54.1	28.2	7.1	3.5	38.8	7.1
	해군/공군/해병대	30	0.0	3.3	10.0	63.3	10.0	13.3	0.0	23.3	13.3
계급	일병 이하	22	0.0	9.1	9.1	45.5	31.8	4.5	0.0	36.4	18.2
	상병	41	0.0	0.0	7.3	58.5	22.0	9.8	2.4	34.1	7.3
	병장	52	0.0	1.9	3.8	59.6	21.2	9.6	3.8	34.6	5.8
학력	고졸 이하	21	0.0	4.8	0.0	61.9	19.0	4.8	9.5	33.3	4.8
	대학 재학 이상	94	0.0	2.1	7.4	55.3	24.5	9.6	1.1	35.1	9.6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3.7	40.7	48.1	7.4	0.0	55.6	3.7
	인천/경기/강원	27	0.0	3.7	7.4	70.4	11.1	7.4	0.0	18.5	11.1
	대전/세종/충청	12	0.0	8.3	8.3	50.0	16.7	16.7	0.0	33.3	16.7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71.4	14.3	7.1	7.1	28.6	0.0
	대구/경북	14	0.0	0.0	7.1	57.1	28.6	7.1	0.0	35.7	7.1
	부산/울산/경남	21	0.0	4.8	9.5	52.4	14.3	9.5	9.5	33.3	14.3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3.1	10.9	48.4	21.9	10.9	4.7	37.5	14.1
	월 1~2회	38	0.0	2.6	0.0	63.2	26.3	7.9	0.0	34.2	2.6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76.9	23.1	0.0	0.0	23.1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62.6%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자는 없었음
-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육군(65.9%), ▶병장(67.3%), ▶대학 재학 이상(66.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1.9%)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41>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0.0	0.0	37.4	34.8	24.3	3.5	62.6	0.0	
군소속	육군	85	0.0	0.0	0.0	34.1	35.3	25.9	4.7	65.9	0.0
	해군/공군/해병대	30	0.0	0.0	0.0	46.7	33.3	20.0	0.0	53.3	0.0
계급	일병 이하	22	0.0	0.0	0.0	45.5	27.3	27.3	0.0	54.5	0.0
	상병	41	0.0	0.0	0.0	39.0	31.7	26.8	2.4	61.0	0.0
	병장	52	0.0	0.0	0.0	32.7	40.4	21.2	5.8	67.3	0.0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0.0	52.4	19.0	23.8	4.8	47.6	0.0
	대학 재학 이상	94	0.0	0.0	0.0	34.0	38.3	24.5	3.2	66.0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0.0	37.0	37.0	25.9	0.0	63.0	0.0
	인천/경기/강원	27	0.0	0.0	0.0	29.6	44.4	22.2	3.7	70.4	0.0
	대전/세종/충청	12	0.0	0.0	0.0	33.3	33.3	33.3	0.0	66.7	0.0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64.3	14.3	14.3	7.1	35.7	0.0
	대구/경북	14	0.0	0.0	0.0	35.7	35.7	28.6	0.0	64.3	0.0
	부산/울산/경남	21	0.0	0.0	0.0	33.3	33.3	23.8	9.5	66.7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0.0	0.0	28.1	34.4	32.8	4.7	71.9	0.0
	월 1~2회	38	0.0	0.0	0.0	39.5	39.5	18.4	2.6	60.5	0.0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76.9	23.1	0.0	0.0	23.1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67.0%였으며,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자는 없었음
-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병장(76.9%),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6.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42>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15	0.0	0.0	0.0	33.0	32.2	22.6	12.2	67.0	0.0	
군소속	육군	85	0.0	0.0	0.0	30.6	31.8	27.1	10.6	69.4	0.0
	해군/공군/해병대	30	0.0	0.0	0.0	40.0	33.3	10.0	16.7	60.0	0.0
계급	일병 이하	22	0.0	0.0	0.0	50.0	22.7	13.6	13.6	50.0	0.0
	상병	41	0.0	0.0	0.0	36.6	31.7	22.0	9.8	63.4	0.0
	병장	52	0.0	0.0	0.0	23.1	36.5	26.9	13.5	76.9	0.0
학력	고졸 이하	21	0.0	0.0	0.0	38.1	19.0	28.6	14.3	61.9	0.0
	대학 재학 이상	94	0.0	0.0	0.0	31.9	35.1	21.3	11.7	68.1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0.0	0.0	0.0	33.3	40.7	22.2	3.7	66.7	0.0
	인천/경기/강원	27	0.0	0.0	0.0	37.0	37.0	18.5	7.4	63.0	0.0
	대전/세종/충청	12	0.0	0.0	0.0	41.7	8.3	25.0	25.0	58.3	0.0
	광주/전라/제주	14	0.0	0.0	0.0	57.1	14.3	14.3	14.3	42.9	0.0
	대구/경북	14	0.0	0.0	0.0	21.4	28.6	28.6	21.4	78.6	0.0
	부산/울산/경남	21	0.0	0.0	0.0	14.3	42.9	28.6	14.3	85.7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0.0	0.0	0.0	23.4	31.3	29.7	15.6	76.6	0.0
	월 1~2회	38	0.0	0.0	0.0	36.8	36.8	15.8	10.5	63.2	0.0
	6개월 2회 이하	13	0.0	0.0	0.0	69.2	23.1	7.7	0.0	30.8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33.9%인 것으로 나타남
 -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70.0%), ▶상병(63.4%),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92.3%)에서 높게 나타남
 -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육군(40.0%), ▶병장(36.5%),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43>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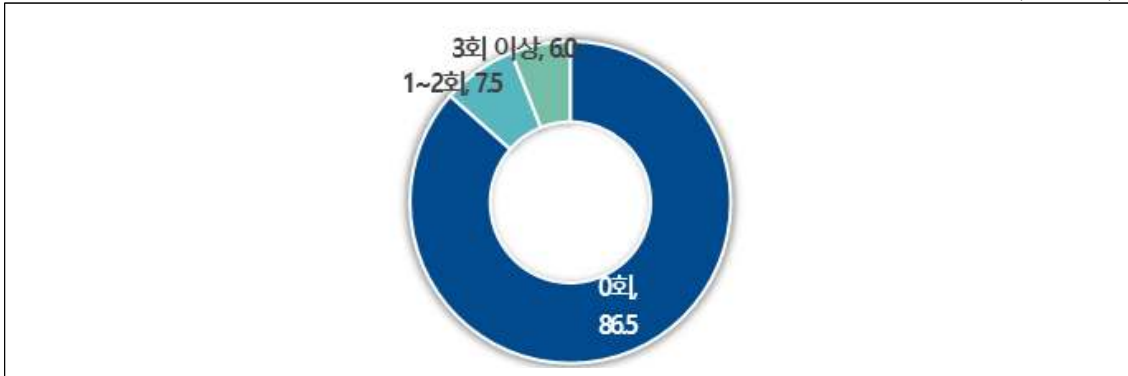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 없음	주류 제공 선호	다과 및 음료 선호	계
전체		115	57.4	33.9	8.7	100.0
군소속	육군	85	52.9	40.0	7.1	100.0
	해군/공군/해병대	30	70.0	16.7	13.3	100.0
계급	일병 이하	22	45.5	27.3	27.3	100.0
	상병	41	63.4	34.1	2.4	100.0
	병장	52	57.7	36.5	5.8	100.0
학력	고졸 이하	21	61.9	23.8	14.3	100.0
	대학 재학 이상	94	56.4	36.2	7.4	10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27	55.6	40.7	3.7	100.0
	인천/경기/강원	27	55.6	22.2	22.2	100.0
	대전/세종/충청	12	66.7	25.0	8.3	100.0
	광주/전라/제주	14	50.0	42.9	7.1	100.0
	대구/경북	14	71.4	21.4	7.1	100.0
	부산/울산/경남	21	52.4	47.6	0.0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64	51.6	37.5	10.9	100.0
	월 1~2회	38	55.3	36.8	7.9	100.0
	6개월 2회 이하	13	92.3	7.7	0.0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부도 II -14]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행사 이외에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는 0회가 86.5%로 10명 중 약 9명이 간부들과 술자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회는 7.5%, 3회 이상은 6.0%였음

<부표 II -44>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200	86.5	7.5	6.0	100.0	0.36	
군소속	육군	155	87.7	7.1	5.2	100.0	0.33
	해군/공군/해병대	45	82.2	8.9	8.9	100.0	0.47
계급	일병 이하	67	86.6	13.4	0.0	100.0	0.21
	상병	66	87.9	6.1	6.1	100.0	0.30
	병장	67	85.1	3.0	11.9	100.0	0.57
학력	고졸 이하	46	87.0	8.7	4.3	100.0	0.35
	대학 재학 이상	154	86.4	7.1	6.5	100.0	0.36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92.9	4.8	2.4	100.0	0.21
	인천/경기/강원	46	82.6	10.9	6.5	100.0	0.43
	대전/세종/충청	21	81.0	9.5	9.5	100.0	0.48
	광주/전라/제주	29	75.9	17.2	6.9	100.0	0.55
	대구/경북	26	96.2	0.0	3.8	100.0	0.15
	부산/울산/경남	36	88.9	2.8	8.3	100.0	0.3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80.6	8.6	10.8	100.0	0.55
	월 1~2회	69	88.4	8.7	2.9	100.0	0.29
	6개월 2회 이하	38	97.4	2.6	0.0	100.0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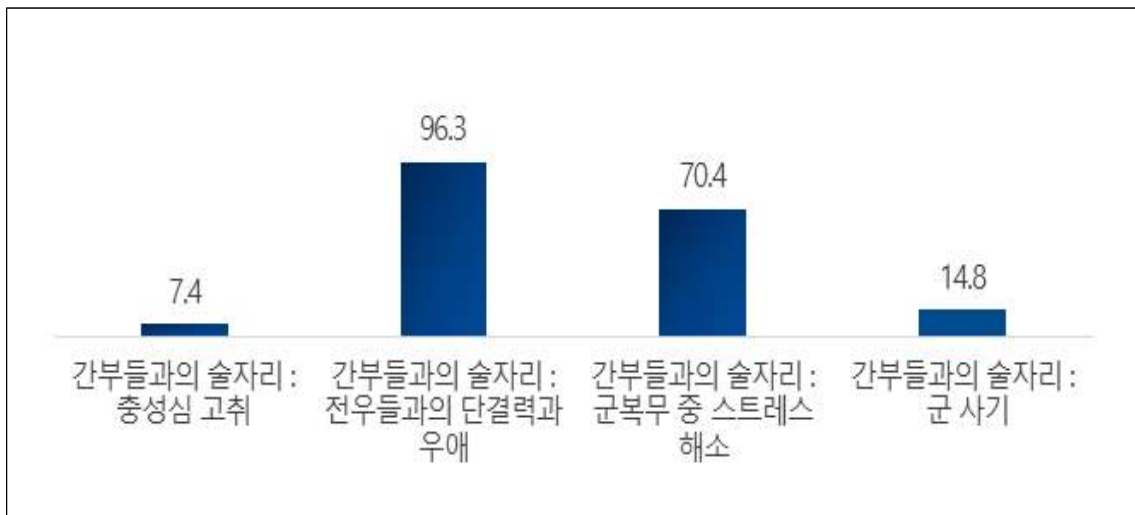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평균은 0.36회임
 -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평균은 ▶해군/공군/해병대(0.47회), ▶병장(0.57회),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0.55회)에서 높게 나타남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의견: 긍정 응답 기준

[부도 II -15]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의견: 긍정 응답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네 가지 의견 중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가 70.4%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7.4%),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 사기에 도움’(14.8%)된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가 충성심과 군 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간부들과의 술자리: 충성심 고취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7.4%였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92.6%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45>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27	0.0	0.0	0.0	92.6	7.4	0.0	0.0	7.4	0.0
군소속	육군	19	0.0	0.0	0.0	94.7	5.3	0.0	0.0	5.3	0.0
	해군/공군/해병대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계급	일병 이하	9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상병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병장	10	0.0	0.0	0.0	90.0	10.0	0.0	0.0	10.0	0.0
학력	고졸 이하	6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학 재학 이상	21	0.0	0.0	0.0	90.5	9.5	0.0	0.0	9.5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3	0.0	0.0	0.0	66.7	33.3	0.0	0.0	33.3	0.0
	인천/경기/강원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대전/세종/충청	4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제주	7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4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0.0	0.0	0.0	94.4	5.6	0.0	0.0	5.6	0.0
	월 1~2회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6개월 2회 이하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9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3.7%로 나타남

<부표 II -46>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27	0.0	0.0	0.0	3.7	81.5	14.8	0.0	96.3	0.0
군소속	육군	19	0.0	0.0	0.0	5.3	78.9	15.8	0.0	94.7	0.0
	해군/공군/해병대	8	0.0	0.0	0.0	0.0	87.5	12.5	0.0	100.0	0.0
계급	일병 이하	9	0.0	0.0	0.0	11.1	88.9	0.0	0.0	88.9	0.0
	상병	8	0.0	0.0	0.0	0.0	75.0	25.0	0.0	100.0	0.0
	병장	10	0.0	0.0	0.0	0.0	80.0	20.0	0.0	100.0	0.0
학력	고졸 이하	6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대학 재학 이상	21	0.0	0.0	0.0	4.8	76.2	19.0	0.0	95.2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3	0.0	0.0	0.0	33.3	33.3	33.3	0.0	66.7	0.0
	인천/경기/강원	8	0.0	0.0	0.0	0.0	75.0	25.0	0.0	100.0	0.0
	대전/세종/충청	4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광주/전라/제주	7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대구/경북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부산/울산/경남	4	0.0	0.0	0.0	0.0	75.0	25.0	0.0	100.0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0.0	0.0	0.0	0.0	88.9	11.1	0.0	100.0	0.0
	월 1~2회	8	0.0	0.0	0.0	12.5	62.5	25.0	0.0	87.5	0.0
	6개월 2회 이하	1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0.4%로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9.6%로 나타남

<부표 II -47>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27	0.0	0.0	0.0	29.6	70.4	0.0	0.0	70.4	0.0
군소속	육군	19	0.0	0.0	0.0	31.6	68.4	0.0	0.0	68.4	0.0
	해군/공군/해병대	8	0.0	0.0	0.0	25.0	75.0	0.0	0.0	75.0	0.0
계급	일병 이하	9	0.0	0.0	0.0	55.6	44.4	0.0	0.0	44.4	0.0
	상병	8	0.0	0.0	0.0	12.5	87.5	0.0	0.0	87.5	0.0
	병장	10	0.0	0.0	0.0	20.0	80.0	0.0	0.0	80.0	0.0
학력	고졸 이하	6	0.0	0.0	0.0	33.3	66.7	0.0	0.0	66.7	0.0
	대학 재학 이상	21	0.0	0.0	0.0	28.6	71.4	0.0	0.0	71.4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3	0.0	0.0	0.0	33.3	66.7	0.0	0.0	66.7	0.0
	인천/경기/강원	8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대전/세종/충청	4	0.0	0.0	0.0	75.0	25.0	0.0	0.0	25.0	0.0
	광주/전라/제주	7	0.0	0.0	0.0	42.9	57.1	0.0	0.0	57.1	0.0
	대구/경북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4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0.0	0.0	0.0	27.8	72.2	0.0	0.0	72.2	0.0
	월 1~2회	8	0.0	0.0	0.0	25.0	75.0	0.0	0.0	75.0	0.0
	6개월 2회 이하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 사기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85.2%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48>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27	0.0	0.0	0.0	85.2	14.8	0.0	0.0	14.8	0.0
군소속	육군	19	0.0	0.0	0.0	84.2	15.8	0.0	0.0	15.8	0.0
	해군/공군/해병대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계급	일병 이하	9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상병	8	0.0	0.0	0.0	87.5	12.5	0.0	0.0	12.5	0.0
	병장	10	0.0	0.0	0.0	70.0	30.0	0.0	0.0	30.0	0.0
학력	고졸 이하	6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학 재학 이상	21	0.0	0.0	0.0	81.0	19.0	0.0	0.0	19.0	0.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3	0.0	0.0	0.0	66.7	33.3	0.0	0.0	33.3	0.0
	인천/경기/강원	8	0.0	0.0	0.0	62.5	37.5	0.0	0.0	37.5	0.0
	대전/세종/충청	4)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제주	7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4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	0.0	0.0	0.0	94.4	5.6	0.0	0.0	5.6	0.0
	월 1~2회	8	0.0	0.0	0.0	62.5	37.5	0.0	0.0	37.5	0.0
	6개월 2회 이하	1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음주 횟수

[부도 II -16] 입대 전 음주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음주 횟수로 일주일에 1~2회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1~2회는 34.5%였음

<부표 II -49> 응답자 특성별 입대 전 음주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평균 횟수	
전체	200	4.0	42.5	34.5	4.0	15.0	100.0	0.36	
군소속	육군	155	5.2	36.8	37.4	5.2	15.5	100.0	0.33
	해군/공군/해병대	45	0.0	62.2	24.4	0.0	13.3	100.0	0.47
계급	일병 이하	67	1.5	41.8	35.8	6.0	14.9	100.0	0.21
	상병	66	4.5	40.9	33.3	3.0	18.2	100.0	0.30
	병장	67	6.0	44.8	34.3	3.0	11.9	100.0	0.57
학력	고졸 이하	46	4.3	41.3	37.0	6.5	10.9	100.0	0.35
	대학 재학 이상	154	3.9	42.9	33.8	3.2	16.2	100.0	0.36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0.0	40.5	33.3	4.8	21.4	100.0	0.21
	인천/경기/강원	46	4.3	41.3	39.1	4.3	10.9	100.0	0.43
	대전/세종/충청	21	0.0	42.9	38.1	9.5	9.5	100.0	0.48
	광주/전라/제주	29	3.4	37.9	34.5	3.4	20.7	100.0	0.55
	대구/경북	26	7.7	38.5	30.8	0.0	23.1	100.0	0.15
	부산/울산/경남	36	8.3	52.8	30.6	2.8	5.6	100.0	0.3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80.6	-	-	8.6	10.8	100.0	0.55
	월 1~2회	69	88.4	-	-	8.7	2.9	100.0	0.29
	6개월 2회 이하	38	97.4	-	-	2.6	0.0	100.0	0.0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15.0%로 나타났음
 - 일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62.2%), ▶입대 전 거주지역 부산/울산/경남(52.8%)에 높았음
 -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은 ▶육군(37.4%), ▶입대 전 거주지역 인천/경기/강원(39.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

-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은 소주 1.54병, 맥주 1,094.41cc인 것으로 나타났음
 - 평균 음주량은 소주, 맥주 모두 ▶해군/공군/해병대, ▶고졸 이하, ▶입대 전 거주지역 대구/경북,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50> 응답자 특성별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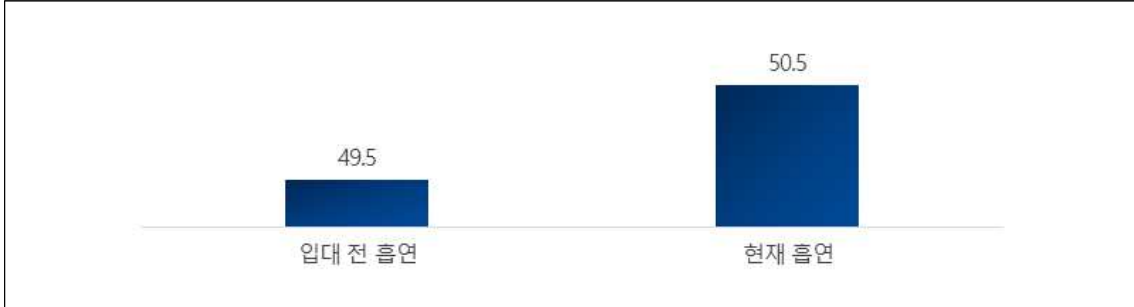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170	1.54	1,094.41
군소속	육군	131	1.53	1,076.72
	해군/공군/해병대	39	1.59	1,153.85
계급	일병 이하	57	1.41	1,043.86
	상병	54	1.47	1,120.37
	병장	59	1.73	1,119.49
학력	고졸 이하	41	1.68	1,102.44
	대학 재학 이상	129	1.50	1,091.86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33	1.39	1,075.76
	인천/경기/강원	41	1.41	1,085.37
	대전/세종/충청	19	1.61	1,078.95
	광주/전라/제주	23	1.59	1,000.00
	대구/경북	20	2.03	1,160.00
	부산/울산/경남	34	1.49	1,157.35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1.75	1,220.97
	월 1~2회	69	1.37	1,000.00
	6개월 2회 이하	8	0.56	437.5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흡연: 흡연자 기준

[부도 II -17] 흡연: 흡연자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담배를 피웠다는 흡연자 비율은 49.5%, 현재 흡연자 비율은 50.5%로 응답자 과반이 흡연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입대 전 흡연과 현재 흡연 모두 ▶해군/공군/해병대, ▶병장,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51> 응답자 특성별 흡연: 흡연자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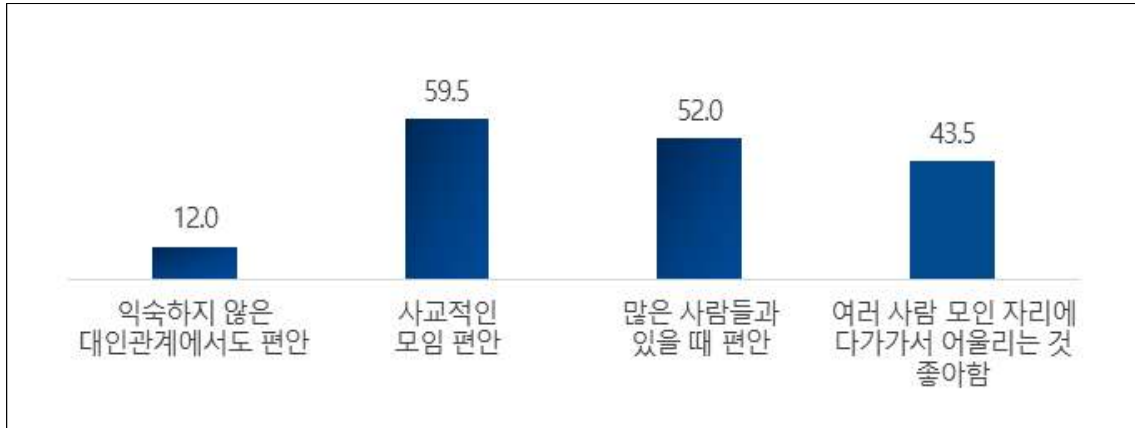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입대 전 흡연	현재 흡연
전체	200	49.50	50.50
군소속	육군	47.10	47.74
	해군/공군/해병대	57.78	60.00
계급	일병 이하	38.81	41.79
	상병	46.97	46.97
	병장	62.69	62.69
학력	고졸 이하	52.17	54.35
	대학 재학 이상	48.70	49.35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0.48	45.24
	인천/경기/강원	56.52	56.52
	대전/세종/충청	61.90	57.14
	광주/전라/제주	55.17	55.17
	대구/경북	34.62	38.46
	부산/울산/경남	50.00	5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60.22	61.29
월 1~2회	69	55.07	55.07
6개월 2회 이하	38	13.16	15.7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긍정 응답 기준

[부도 II -18] 대인관계: 긍정 응답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관련 네 가지 의견 중 ‘사교적인 모임 편안’이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52.0%,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43.5%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이라는 응답은 12.0%로 다른 의견 대비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았음

□ 대인관계: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12.0%, 그렇지 않다는 33.0%로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55.0%였음
 - 그렇다라는 비율은 ▶입대 전 거주지역 서울(19.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은 ▶대학 재학 이상(37.0%), ▶입대 전 거주지역 대구/경북(46.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38.7%)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2>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0	3.5	29.5	55.0	12.0	0.0	12.0	33.0
군소속	육군	155	3.2	30.3	54.2	12.3	0.0	12.3	33.5
	해군/공군/해병대	45	4.4	26.7	57.8	11.1	0.0	11.1	31.1
계급	일병 이하	67	7.5	28.4	55.2	9.0	0.0	9.0	35.8
	상병	66	1.5	33.3	51.5	13.6	0.0	13.6	34.8
	병장	67	1.5	26.9	58.2	13.4	0.0	13.4	28.4
학력	고졸 이하	46	0.0	19.6	69.6	10.9	0.0	10.9	19.6
	대학 재학 이상	154	4.5	32.5	50.6	12.3	0.0	12.3	37.0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4.8	33.3	42.9	19.0	0.0	19.0	38.1
	인천/경기/강원	46	4.3	21.7	63.0	10.9	0.0	10.9	26.1
	대전/세종/충청	21	0.0	23.8	66.7	9.5	0.0	9.5	23.8
	광주/전라/제주	29	3.4	20.7	62.1	13.8	0.0	13.8	24.1
	대구/경북	26	3.8	42.3	50.0	3.8	0.0	3.8	46.2
	부산/울산/경남	36	2.8	36.1	50.0	11.1	0.0	11.1	38.9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3.2	35.5	49.5	11.8	0.0	11.8	38.7
	월 1~2회	69	5.8	21.7	60.9	11.6	0.0	11.6	27.5
	6개월 2회 이하	38	0.0	28.9	57.9	13.2	0.0	13.2	28.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사교적인 모임 편안

- 사교적인 모임에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59.5%로 그렇지 않다는 6.0%보다 53.5%p 높았음
- 보통이라는 응답은 34.5%였음
 - 그렇다라는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68.9%), ▶병장(64.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1.0%)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3>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사교적인 모임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0	0.0	6.0	34.5	49.0	10.5	59.5	6.0
군소속	육군	155	0.0	7.1	36.1	45.8	11.0	56.8	7.1
	해군/공군/해병대	45	0.0	2.2	28.9	60.0	8.9	68.9	2.2
계급	일병 이하	67	0.0	11.9	35.8	47.8	4.5	52.2	11.9
	상병	66	0.0	1.5	36.4	50.0	12.1	62.1	1.5
	병장	67	0.0	4.5	31.3	49.3	14.9	64.2	4.5
학력	고졸 이하	46	0.0	4.3	39.1	52.2	4.3	56.5	4.3
	대학 재학 이상	154	0.0	6.5	33.1	48.1	12.3	60.4	6.5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0.0	7.1	38.1	47.6	7.1	54.8	7.1
	인천/경기/강원	46	0.0	2.2	30.4	45.7	21.7	67.4	2.2
	대전/세종/충청	21	0.0	0.0	42.9	57.1	0.0	57.1	0.0
	광주/전라/제주	29	0.0	13.8	34.5	44.8	6.9	51.7	13.8
	대구/경북	26	0.0	0.0	30.8	65.4	3.8	69.2	0.0
	부산/울산/경남	36	0.0	11.1	33.3	41.7	13.9	55.6	11.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0.0	3.2	25.8	60.2	10.8	71.0	3.2
	월 1~2회	69	0.0	7.2	37.7	39.1	15.9	55.1	7.2
	6개월 2회 이하	38	0.0	10.5	50.0	39.5	0.0	39.5	10.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52.0%로 그렇지 않다는 6.0%보다 46.0%p 높았음
- 보통이라는 응답은 42.0%였음
 - 그렇다라는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64.4%), ▶병장(56.7%),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55.9%)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4>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0	0.0	6.0	42.0	47.0	5.0	52.0	6.0
군소속	육군	155	0.0	7.7	43.9	43.9	4.5	48.4	7.7
	해군/공군/해병대	45	0.0	0.0	35.6	57.8	6.7	64.4	0.0
계급	일병 이하	67	0.0	9.0	46.3	40.3	4.5	44.8	9.0
	상병	66	0.0	6.1	39.4	48.5	6.1	54.5	6.1
	병장	67	0.0	3.0	40.3	52.2	4.5	56.7	3.0
학력	고졸 이하	46	0.0	8.7	45.7	41.3	4.3	45.7	8.7
	대학 재학 이상	154	0.0	5.2	40.9	48.7	5.2	53.9	5.2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0.0	2.4	54.8	40.5	2.4	42.9	2.4
	인천/경기/강원	46	0.0	4.3	41.3	50.0	4.3	54.3	4.3
	대전/세종/충청	21	0.0	4.8	38.1	52.4	4.8	57.1	4.8
	광주/전라/제주	29	0.0	17.2	37.9	41.4	3.4	44.8	17.2
	대구/경북	26	0.0	7.7	42.3	42.3	7.7	50.0	7.7
	부산/울산/경남	36	0.0	2.8	33.3	55.6	8.3	63.9	2.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0.0	1.1	43.0	49.5	6.5	55.9	1.1
	월 1~2회	69	0.0	7.2	39.1	47.8	5.8	53.6	7.2
	6개월 2회 이하	38	0.0	15.8	44.7	39.5	0.0	39.5	15.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3.5%로 그렇지 않다는 14.5%보다 29.0%p 높았음
- 보통이라는 응답은 42.0%였음
 - 그렇다라는 비율은 ▶병장(50.7%), ▶입대 전 거주 지역 인천/경기/강원(52.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50.5%)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5>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④+⑤)	부정 (①+②)
전체		200	0.5	14.0	42.0	38.0	5.5	43.5	14.5
군소속	육군	155	0.0	14.8	43.2	37.4	4.5	41.9	14.8
	해군/공군/해병대	45	2.2	11.1	37.8	40.0	8.9	48.9	13.3
계급	일병 이하	67	1.5	19.4	43.3	31.3	4.5	35.8	20.9
	상병	66	0.0	10.6	45.5	37.9	6.1	43.9	10.6
	병장	67	0.0	11.9	37.3	44.8	6.0	50.7	11.9
학력	고졸 이하	46	0.0	17.4	37.0	41.3	4.3	45.7	17.4
	대학 재학 이상	154	0.6	13.0	43.5	37.0	5.8	42.9	13.6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42	0.0	14.3	47.6	33.3	4.8	38.1	14.3
	인천/경기/강원	46	2.2	13.0	32.6	47.8	4.3	52.2	15.2
	대전/세종/충청	21	0.0	14.3	52.4	28.6	4.8	33.3	14.3
	광주/전라/제주	29	0.0	13.8	55.2	31.0	0.0	31.0	13.8
	대구/경북	26	0.0	11.5	38.5	42.3	7.7	50.0	11.5
	부산/울산/경남	36	0.0	16.7	33.3	38.9	11.1	50.0	16.7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93	0.0	10.8	38.7	41.9	8.6	50.5	10.8
	월 1~2회	69	1.4	21.7	33.3	39.1	4.3	43.5	23.2
	6개월 2회 이하	38	0.0	7.9	65.8	26.3	0.0	26.3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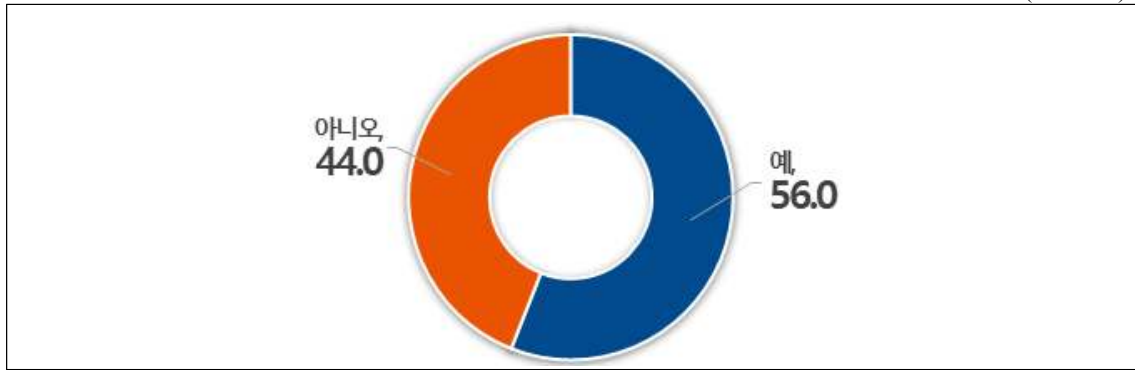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군제대자 결과

□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부도 II -19]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56>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계	
전체	400	56.0	44.0	100.0	
군소속	육군	344	55.2	44.8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60.7	39.3	100.0
연령	19~22세	117	43.6	56.4	100.0
	23~26세	207	54.6	45.4	100.0
	27~29세	76	78.9	21.1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46.5	53.5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50.6	49.4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71.1	28.9	100.0
직업	학생	250	50.8	49.2	100.0
	직장인	114	74.6	25.4	100.0
	무직	36	33.3	66.7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58.1	41.9	100.0
	인천/경기/강원	115	60.0	40.0	100.0
	대전/세종/충청	42	45.2	54.8	100.0
	광주/전라/제주	42	61.9	38.1	100.0
	대구/경북	38	55.3	44.7	100.0
	부산/울산/경남	58	48.3	51.7	100.0
입대 전	주 1회 이상	180	65.0	35.0	100.0
음주 횟수	월 1~2회	130	60.8	39.2	100.0
	6개월 2회 이하	90	31.1	68.9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경험 응답이 56.0%로 알지 못했다 44.0%보다 높게 나타남
 - 구매경험은 ▶27~29세(78.9%), ▶대학 졸업 이상(71.1%), ▶직장인(74.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65.0%)에서 높게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 군복무 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평균은 소주 3.47병, 맥주 5.25병, 양주 2.66병인 것으로 나타남
 - 소주 구매량 평균은 ▶27~29세(5.05병), ▶고졸 이하(5.1병), ▶직장인(5.16병), ▶거주 지역 서울(5.21병)에서 높게 나타남
 - 맥주, 양주 구매량 평균은 ▶27~29세, ▶대학 졸업 이상, ▶직장인, ▶거주 지역 서울,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7>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명, 병)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양주	
전체	224	3.47	5.25	2.66	
군소속	육군	190	3.53	5.08	2.61
	해군/공군/해병대	34	3.12	6.15	2.91
연령	19~22세	51	2.39	3.25	1.92
	23~26세	113	3.12	4.89	2.50
	27~29세	60	5.05	7.60	3.58
학력	고졸 이하	20	5.10	4.50	2.70
	대학 재학(휴학)	123	2.67	4.08	2.22
	대학 졸업 이상	81	4.28	7.20	3.31
직업	학생	127	2.58	3.95	2.20
	직장인	85	5.16	7.56	3.48
	무직	12	0.83	2.50	1.67
거주 지역	서울	61	5.21	7.08	3.54
	인천/경기/강원	69	3.62	5.49	3.07
	대전/세종/충청	19	3.16	2.47	1.37
	광주/전라/제주	26	1.69	4.35	1.85
	대구/경북	21	1.57	2.71	1.14
	부산/울산/경남	28	2.57	5.25	2.4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7	3.90	5.74	3.03
	월 1~2회	79	3.51	5.66	2.56
	6개월 2회 이하	28	1.57	2.00	1.3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당시 계급

- 군납면세주류 구매 당시 계급이 병장 및 상병이었다가 각각 65.6%, 60.3%로 10명 중 6명은 상병 이후에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 구매 당시 계급이 병장이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70.6%), ▶27~29세(81.7%), ▶대학 졸업 이상(72.8%), ▶직장인(74.1%), ▶입대 전 거주 지역 서울, 인천/경기/강원(각각 75.4%),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0.9%)에서 높게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 구매 당시 계급이 상병이라는 응답은 ▶23~26세(66.4%),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73.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8>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량

(단위: 명, 병)

구분	사례수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전체	224	5.4	18.3	60.3	65.6	
군소속	육군	190	5.3	18.4	64.2	64.7
	해군/공군/해병대	34	5.9	17.6	38.2	70.6
연령	19~22세	51	7.8	21.6	60.8	49.0
	23~26세	113	1.8	20.4	66.4	64.6
	27~29세	60	10.0	11.7	48.3	81.7
학력	고졸 이하	20	10.0	10.0	50.0	70.0
	대학 재학(휴학)	123	4.1	20.3	64.2	60.2
	대학 졸업 이상	81	6.2	17.3	56.8	72.8
직업	학생	127	3.9	20.5	64.6	59.8
	직장인	85	8.2	16.5	55.3	74.1
	무직	12	0.0	8.3	50.0	66.7
거주 지역	서울	61	4.9	16.4	63.9	75.4
	인천/경기/강원	69	8.7	26.1	55.1	75.4
	대전/세종/충청	19	10.5	15.8	57.9	36.8
	광주/전라/제주	26	0.0	7.7	73.1	61.5
	대구/경북	21	4.8	23.8	57.1	47.6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57.1	57.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17	4.3	20.5	62.4	70.9
	월 1~2회	79	7.6	16.5	64.6	57.0
	6개월 2회 이하	28	3.6	14.3	39.3	67.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로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가 52.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14.2%,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11.4%의 순으로 나타남
-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은 ▶27~29세(68.8%), ▶거주 지역 인천/경기/강원(63.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65.1%)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59>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비구매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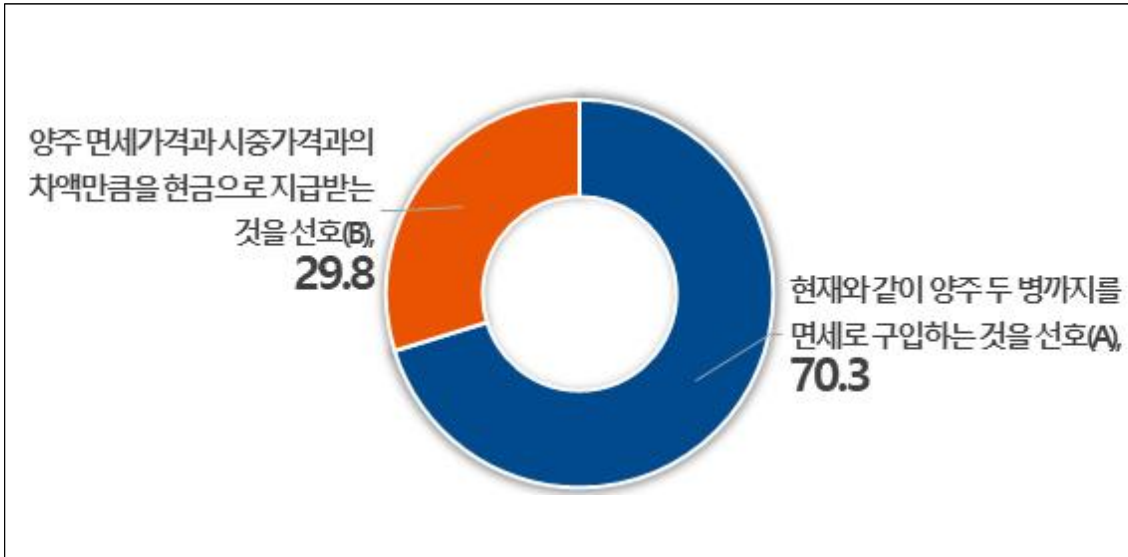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영내 군납면세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기타	
전체	176	52.3	14.2	11.4	0.6	21.6	
군소속	육군	154	53.2	14.9	8.4	0.6	22.7
	해군/공군/해병대	22	45.5	9.1	31.8	0.0	13.6
연령	19~22세	66	57.6	13.6	12.1	0.0	16.7
	23~26세	94	45.7	14.9	11.7	1.1	26.6
	27~29세	16	68.8	12.5	6.3	0.0	12.5
학력	고졸 이하	23	52.2	13.0	8.7	0.0	26.1
	대학 재학(휴학)	120	52.5	15.0	10.8	0.8	20.8
	대학 졸업 이상	33	51.5	12.1	15.2	0.0	21.2
직업	학생	123	52.0	14.6	11.4	0.8	21.1
	직장인	29	51.7	13.8	13.8	0.0	20.7
	무직	24	54.2	12.5	8.3	0.0	25.0
거주 지역	서울	44	56.8	15.9	13.6	2.3	11.4
	인천/경기/강원	46	63.0	6.5	10.9	0.0	19.6
	대전/세종/충청	23	39.1	43.5	4.3	0.0	13.0
	광주/전라/제주	16	43.8	0.0	25.0	0.0	31.3
	대구/경북	17	35.3	5.9	5.9	0.0	52.9
입대 전 음주 횟수	부산/울산/경남	30	53.3	13.3	10.0	0.0	23.3
	주 1회 이상	63	65.1	11.1	15.9	0.0	7.9
	월 1~2회	51	52.9	15.7	11.8	0.0	19.6
	6개월 2회 이하	62	38.7	16.1	6.5	1.6	37.1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부도 II -20]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납면세주류 구매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가 70.3%로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 29.8%보다 약 40.5%p 높았음
 -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한다’는 응답은 ▶27~29세(77.6%), ▶대학 졸업 이상(75.4%), ▶직장인(78.1%), ▶거주지역 대구/경북(76.3%),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5.6%)에서 높게 나타남
 -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한다’는 ▶19~22세(37.6%), ▶무직(52.8%),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0> 응답자 특성별 군납면세주류 구매 선호 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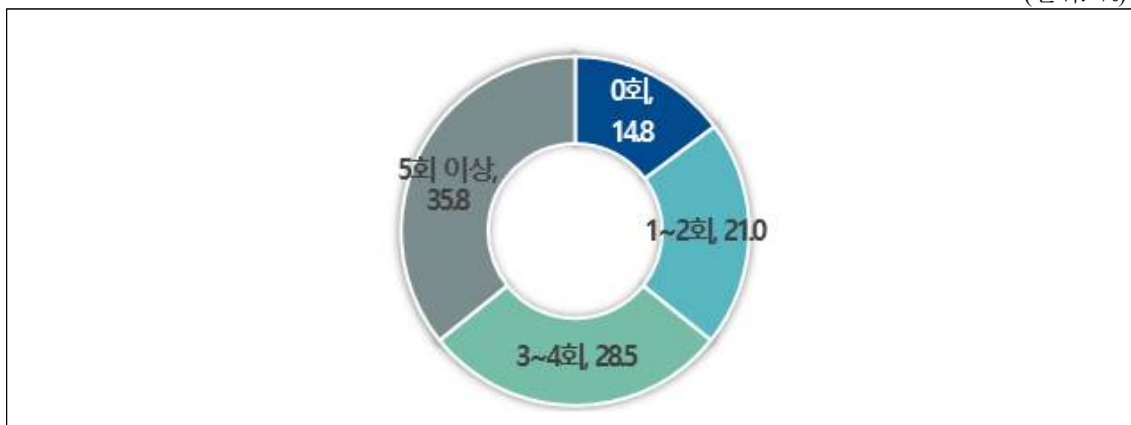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면세 구입 선호(A)	차액 현금 지급 선호(B)	계	
전체	400	70.3	29.8	100.0	
군소속	육군	344	70.3	29.7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69.6	30.4	100.0
연령	19~22세	117	62.4	37.6	100.0
	23~26세	207	72.0	28.0	100.0
	27~29세	76	77.6	22.4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60.5	39.5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69.5	30.5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75.4	24.6	100.0
직업	학생	250	70.0	30.0	100.0
	직장인	114	78.1	21.9	100.0
	무직	36	47.2	52.8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75.2	24.8	100.0
	인천/경기/강원	115	67.0	33.0	100.0
	대전/세종/충청	42	69.0	31.0	100.0
	광주/전라/제주	42	69.0	31.0	100.0
	대구/경북	38	76.3	23.7	100.0
	부산/울산/경남	58	65.5	34.5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75.6	24.4	100.0
	월 1~2회	130	70.0	30.0	100.0
	6개월 2회 이하	90	60.0	40.0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부도 II -21]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입대 이후 군 공식행사 목적 부대 내 회식 횟수는 5회 이상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4회 28.5%, 1~2회 21.0% 순으로 나타남
- 회식 횟수 평균은 4.1회임
 - 회식 횟수 평균은 ▶육군(4.21회), ▶23~26세(4.29회), ▶대학 졸업 이상(4.61회), ▶무직(5.44회),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4.57회),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4.31회)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1> 응답자 특성별 군 공식행사 목적 회식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4회	5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400	14.8	21.0	28.5	35.8	100.0	4.10	
군소속	육군	344	14.0	20.6	28.5	36.9	100.0	4.21
	해군/공군/해병대	56	19.6	23.2	28.6	28.6	100.0	3.43
연령	19~22세	117	18.8	24.8	24.8	31.6	100.0	3.71
	23~26세	207	14.5	17.9	30.9	36.7	100.0	4.29
	27~29세	76	9.2	23.7	27.6	39.5	100.0	4.18
학력	고졸 이하	43	4.7	11.6	34.9	48.8	100.0	5.63
	대학 재학(휴학)	243	18.5	23.5	27.2	30.9	100.0	3.59
	대학 졸업 이상	114	10.5	19.3	28.9	41.2	100.0	4.61
직업	학생	250	18.0	23.2	27.2	31.6	100.0	3.68
	직장인	114	10.5	19.3	29.8	40.4	100.0	4.59
	무직	36	5.6	11.1	33.3	50.0	100.0	5.44
거주 지역	서울	105	22.9	16.2	34.3	26.7	100.0	3.68
	인천/경기/강원	115	10.4	19.1	25.2	45.2	100.0	4.48
	대전/세종/충청	42	11.9	23.8	33.3	31.0	100.0	4.33
	광주/전라/제주	42	7.1	28.6	26.2	38.1	100.0	4.57
	대구/경북	38	15.8	34.2	13.2	36.8	100.0	3.21
	부산/울산/경남	58	15.5	17.2	32.8	34.5	100.0	4.19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13.9	21.1	30.6	34.4	100.0	4.16
	월 1~2회	130	9.2	19.2	32.3	39.2	100.0	4.31
	6개월 2회 이하	90	24.4	23.3	18.9	33.3	100.0	3.6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술 제공 회식 횟수

- 군입대 이후 군 공식행사 중 술 제공 회식 횟수는 1~2회가 44.6%, 3회 이상 31.7%로 나타났으며, 0회라는 응답은 23.8%로 나타남
- 술 제공 회식 횟수 평균은 2.21회임
 - 회식 횟수 평균은 ▶대학 졸업 이상(2.81회), ▶직장인(2.61회),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2.63회)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2> 응답자 특성별 술 제공 회식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평균 횟수	
전체	341	23.8	44.6	31.7	100.0	2.21	
군소속	육군	296	23.6	44.9	31.4	100.0	2.24
	해군/공군/해병대	45	24.4	42.2	33.3	100.0	1.98
연령	19~22세	95	25.3	55.8	18.9	100.0	1.82
	23~26세	177	24.9	40.7	34.5	100.0	2.31
	27~29세	69	18.8	39.1	42.0	100.0	2.48
학력	고졸 이하	41	34.1	39.0	26.8	100.0	1.90
	대학 재학(휴학)	198	23.2	50.0	26.8	100.0	1.96
	대학 졸업 이상	102	20.6	36.3	43.1	100.0	2.81
직업	학생	205	23.4	49.3	27.3	100.0	2.00
	직장인	102	22.5	38.2	39.2	100.0	2.61
	무직	34	29.4	35.3	35.3	100.0	2.29
거주 지역	서울	81	19.8	43.2	37.0	100.0	2.48
	인천/경기/강원	103	29.1	35.0	35.9	100.0	2.25
	대전/세종/충청	37	32.4	54.1	13.5	100.0	1.73
	광주/전라/제주	39	20.5	43.6	35.9	100.0	2.46
	대구/경북	32	21.9	59.4	18.8	100.0	1.53
	부산/울산/경남	49	16.3	51.0	32.7	100.0	2.27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4.8	45.8	39.4	100.0	2.63
	월 1~2회	118	28.0	45.8	26.3	100.0	2.08
	6개월 2회 이하	68	36.8	39.7	23.5	100.0	1.47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평균은 소주 0.94병, 맥주 894.47cc인 것으로 나타남

<부표 II -63> 응답자 특성별 술 제공 회식 시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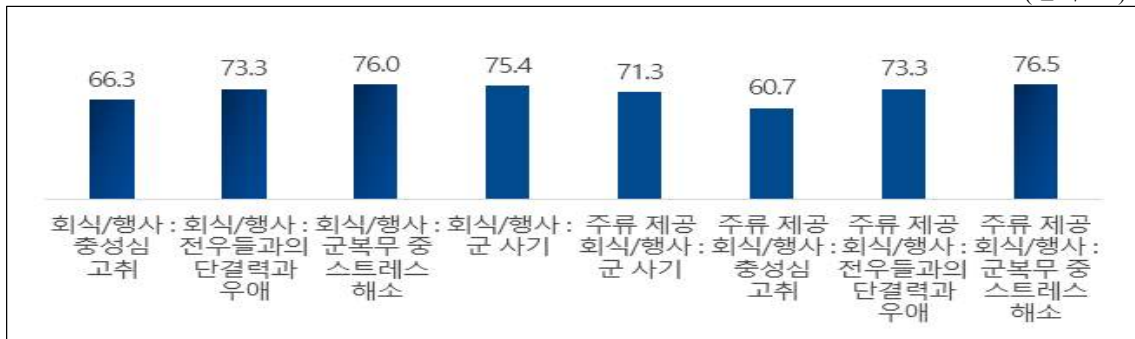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260	0.94	894.47	
군소속	육군	226	0.94	938.31
	해군/공군/해병대	34	0.92	603.00
연령	19~22세	71	0.94	650.36
	23~26세	133	0.77	997.44
	27~29세	56	1.34	959.40
학력	고졸 이하	27	0.73	511.23
	대학 재학(휴학)	152	0.83	914.67
	대학 졸업 이상	81	1.22	984.30
직업	학생	157	0.81	896.37
	직장인	79	1.28	1,030.75
	무직	24	0.67	433.41
거주 지역	서울	65	1.01	1,069.61
	인천/경기/강원	73	0.94	569.98
	대전/세종/충청	25	0.81	502.04
	광주/전라/제주	31	1.04	2,316.21
	대구/경북	25	1.23	768.88
	부산/울산/경남	41	0.67	435.42
입대 전	주 1회 이상	132	1.00	619.39
음주 횟수	월 1~2회	85	0.98	919.73
	6개월 2회 이하	43	0.68	1,688.9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의견

[부도 II -22]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의견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대 공식 회식/행사 관련 여덟 가지 의견 중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각각 76.5%, 76.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회식/행사가 군사기에 도움’(75.4%),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73.3%),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7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60.7%),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66.3%)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66.3%로 부정적인 영향 5.9%보다 60.4%p 높았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7.9%인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71.6%), ▶거주지역 인천/경기/강원(73.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1.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4>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5	0.9	3.5	27.9	28.4	25.2	12.6	66.3	5.9	
군소속	육군	296	1.4	0.7	3.4	28.4	28.7	25.3	12.2	66.2	5.4
	해군/공군/해병대	45	2.2	2.2	4.4	24.4	26.7	24.4	15.6	66.7	8.9
연령	19~22세	95	2.1	2.1	1.1	33.7	23.2	25.3	12.6	61.1	5.3
	23~26세	177	0.6	0.6	4.0	27.1	27.1	25.4	15.3	67.8	5.1
	27~29세	69	2.9	0.0	5.8	21.7	39.1	24.6	5.8	69.6	8.7
학력	고졸 이하	41	4.9	2.4	2.4	43.9	12.2	17.1	17.1	46.3	9.8
	대학 재학(휴학)	198	1.0	0.5	2.5	28.3	29.3	26.3	12.1	67.7	4.0
	대학 졸업 이상	102	1.0	1.0	5.9	20.6	33.3	26.5	11.8	71.6	7.8
직업	학생	205	1.5	0.5	2.4	27.8	28.8	26.8	12.2	67.8	4.4
	직장인	102	1.0	1.0	5.9	25.5	30.4	24.5	11.8	66.7	7.8
	무직	34	2.9	2.9	2.9	35.3	20.6	17.6	17.6	55.9	8.8
거주 지역	서울	81	1.2	1.2	4.9	30.9	29.6	24.7	7.4	61.7	7.4
	인천/경기/강원	103	1.0	1.0	2.9	21.4	29.1	34.0	10.7	73.8	4.9
	대전/세종/충청	37	2.7	0.0	8.1	27.0	24.3	10.8	27.0	62.2	10.8
	광주/전라/제주	39	2.6	2.6	5.1	20.5	20.5	30.8	17.9	69.2	10.3
	대구/경북	32	0.0	0.0	0.0	37.5	37.5	25.0	0.0	62.5	0.0
입대 전 음주 횟수	부산/울산/경남	49	2.0	0.0	0.0	36.7	28.6	14.3	18.4	61.2	2.0
	주 1회 이상	155	1.3	1.3	1.3	24.5	29.7	26.5	15.5	71.6	3.9
	월 1~2회	118	0.8	0.0	4.2	26.3	31.4	24.6	12.7	68.6	5.1
	6개월 2회 이하	68	2.9	1.5	7.4	38.2	20.6	23.5	5.9	50.0	11.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3.3%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8.5%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19~22세(82.1%), ▶대학 재학(79.8%),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82.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9.4%)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5>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5	1.8	5.3	18.2	26.7	22.9	23.8	73.3	8.5	
군소속	육군	296	1.7	1.7	4.7	18.2	25.7	24.7	23.3	73.6	8.1
	해군/공군/해병대	45	0.0	2.2	8.9	17.8	33.3	11.1	26.7	71.1	11.1
연령	19~22세	95	1.1	2.1	1.1	13.7	33.7	21.1	27.4	82.1	4.2
	23~26세	177	0.0	1.7	3.4	19.8	23.7	26.0	25.4	75.1	5.1
	27~29세	69	5.8	1.4	15.9	20.3	24.6	17.4	14.5	56.5	23.2
학력	고졸 이하	41	2.4	4.9	7.3	24.4	17.1	22.0	22.0	61.0	14.6
	대학 재학(휴학)	198	1.0	1.5	1.5	16.2	30.8	25.3	23.7	79.8	4.0
	대학 졸업 이상	102	2.0	1.0	11.8	19.6	22.5	18.6	24.5	65.7	14.7
직업	학생	205	1.5	1.5	2.0	16.1	29.8	24.9	24.4	79.0	4.9
	직장인	102	2.0	2.0	12.7	21.6	24.5	18.6	18.6	61.8	16.7
	무직	34	0.0	2.9	2.9	20.6	14.7	23.5	35.3	73.5	5.9
거주 지역	서울	81	2.5	2.5	6.2	24.7	22.2	27.2	14.8	64.2	11.1
	인천/경기/강원	103	0.0	2.9	4.9	15.5	30.1	19.4	27.2	76.7	7.8
	대전/세종/충청	37	2.7	0.0	8.1	10.8	29.7	16.2	32.4	78.4	10.8
	광주/전라/제주	39	2.6	2.6	7.7	5.1	25.6	23.1	33.3	82.1	12.8
	대구/경북	32	0.0	0.0	3.1	28.1	34.4	28.1	6.3	68.8	3.1
	부산/울산/경남	49	2.0	0.0	2.0	22.4	20.4	24.5	28.6	73.5	4.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0.0	1.9	4.5	14.2	25.8	24.5	29.0	79.4	6.5
	월 1~2회	118	1.7	0.0	5.9	21.2	31.4	20.3	19.5	71.2	7.6
	6개월 2회 이하	68	4.4	4.4	5.9	22.1	20.6	23.5	19.1	63.2	14.7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6.0%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7.3%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육군(77.4%), ▶대학 재학(79.3%), ▶학생(78.5%),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82.1%), 대전/세종/충청(81.1%)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6>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5	2.1	3.8	16.7	24.6	28.4	22.9	76.0	7.3	
군소속	육군	296	1.7	1.7	3.7	15.5	24.7	29.1	23.6	77.4	7.1
	해군/공군/해병대	45	0.0	4.4	4.4	24.4	24.4	24.4	17.8	66.7	8.9
연령	19~22세	95	0.0	3.2	1.1	18.9	15.8	30.5	30.5	76.8	4.2
	23~26세	177	0.6	1.1	4.0	18.1	24.9	29.4	22.0	76.3	5.6
	27~29세	69	5.8	2.9	7.2	10.1	36.2	23.2	14.5	73.9	15.9
학력	고졸 이하	41	2.4	4.9	9.8	19.5	19.5	14.6	29.3	63.4	17.1
	대학 재학(휴학)	198	1.0	0.5	1.5	17.7	24.7	31.8	22.7	79.3	3.0
	대학 졸업 이상	102	2.0	3.9	5.9	13.7	26.5	27.5	20.6	74.5	11.8
직업	학생	205	1.5	0.5	1.5	18.0	23.9	31.7	22.9	78.5	3.4
	직장인	102	2.0	3.9	7.8	12.7	30.4	24.5	18.6	73.5	13.7
	무직	34	0.0	5.9	5.9	20.6	11.8	20.6	35.3	67.6	11.8
거주 지역	서울	81	2.5	1.2	8.6	16.0	25.9	32.1	13.6	71.6	12.3
	인천/경기/강원	103	1.0	1.9	2.9	14.6	26.2	28.2	25.2	79.6	5.8
	대전/세종/충청	37	2.7	2.7	0.0	13.5	18.9	32.4	29.7	81.1	5.4
	광주/전라/제주	39	2.6	5.1	2.6	7.7	23.1	30.8	28.2	82.1	10.3
	대구/경북	32	0.0	3.1	3.1	31.3	21.9	28.1	12.5	62.5	6.3
	부산/울산/경남	49	0.0	0.0	2.0	22.4	26.5	18.4	30.6	75.5	2.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0.6	2.6	2.6	15.5	25.8	25.8	27.1	78.7	5.8
	월 1~2회	118	0.8	0.8	6.8	17.8	24.6	28.0	21.2	73.7	8.5
	6개월 2회 이하	68	4.4	2.9	1.5	17.6	22.1	35.3	16.2	73.5	8.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식/행사: 군 사기

- 회식/행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5.4%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6.7%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대학 재학(79.3%),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81.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1.3%)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7> 응답자 특성별 회식/행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5	2.1	3.2	17.9	29.9	23.2	22.3	75.4	6.7	
군소속	육군	296	1.4	2.0	3.4	17.2	31.4	22.6	22.0	76.0	6.8
	해군/공군/해병대	45	2.2	2.2	2.2	22.2	20.0	26.7	24.4	71.1	6.7
연령	19~22세	95	0.0	3.2	2.1	16.8	31.6	21.1	25.3	77.9	5.3
	23~26세	177	1.1	0.6	4.0	19.2	27.1	23.2	24.9	75.1	5.6
	27~29세	69	4.3	4.3	2.9	15.9	34.8	26.1	11.6	72.5	11.6
학력	고졸 이하	41	4.9	7.3	4.9	19.5	19.5	19.5	24.4	63.4	17.1
	대학 재학(휴학)	198	0.5	1.0	2.5	16.7	31.8	25.3	22.2	79.3	4.0
	대학 졸업 이상	102	2.0	2.0	3.9	19.6	30.4	20.6	21.6	72.5	7.8
직업	학생	205	1.0	1.0	2.4	17.6	30.7	24.4	22.9	78.0	4.4
	직장인	102	2.9	2.9	3.9	16.7	30.4	24.5	18.6	73.5	9.8
	무직	34	0.0	5.9	5.9	23.5	23.5	11.8	29.4	64.7	11.8
거주 지역	서울	81	0.0	2.5	3.7	21.0	30.9	27.2	14.8	72.8	6.2
	인천/경기/강원	103	1.9	1.0	2.9	15.5	30.1	26.2	22.3	78.6	5.8
	대전/세종/충청	37	2.7	2.7	2.7	10.8	32.4	13.5	35.1	81.1	8.1
	광주/전라/제주	39	2.6	2.6	2.6	12.8	23.1	25.6	30.8	79.5	7.7
	대구/경북	32	3.1	0.0	3.1	28.1	46.9	18.8	0.0	65.6	6.3
	부산/울산/경남	49	0.0	4.1	4.1	20.4	20.4	18.4	32.7	71.4	8.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3	1.3	1.3	14.8	32.9	18.7	29.7	81.3	3.9
	월 1~2회	118	0.0	2.5	4.2	18.6	33.1	22.0	19.5	74.6	6.8
	6개월 2회 이하	68	4.4	2.9	5.9	23.5	17.6	35.3	10.3	63.2	13.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 사기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1.3%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8.8%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19~22세(73.7%),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 (74.4%),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4.8%)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8>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8	1.8	5.3	19.9	26.1	24.3	20.8	71.3	8.8	
군소속	육군	296	2.0	1.7	4.4	19.6	27.7	25.0	19.6	72.3	8.1
	해군/공군/해병대	45	0.0	2.2	11.1	22.2	15.6	20.0	28.9	64.4	13.3
연령	19~22세	95	1.1	2.1	4.2	18.9	23.2	24.2	26.3	73.7	7.4
	23~26세	177	1.1	0.6	4.5	20.9	29.4	23.2	20.3	72.9	6.2
	27~29세	69	4.3	4.3	8.7	18.8	21.7	27.5	14.5	63.8	17.4
학력	고졸 이하	41	4.9	4.9	7.3	19.5	29.3	12.2	22.0	63.4	17.1
	대학 재학(휴학)	198	1.0	1.0	4.0	20.7	24.2	26.3	22.7	73.2	6.1
	대학 졸업 이상	102	2.0	2.0	6.9	18.6	28.4	25.5	16.7	70.6	10.8
직업	학생	205	1.5	1.0	3.9	21.0	23.9	26.3	22.4	72.7	6.3
	직장인	102	2.0	2.9	5.9	20.6	26.5	25.5	16.7	68.6	10.8
	무직	34	2.9	2.9	11.8	11.8	38.2	8.8	23.5	70.6	17.6
거주 지역	서울	81	1.2	2.5	4.9	23.5	25.9	24.7	17.3	67.9	8.6
	인천/경기/강원	103	1.9	1.0	4.9	18.4	23.3	28.2	22.3	73.8	7.8
	대전/세종/충청	37	5.4	2.7	2.7	16.2	35.1	5.4	32.4	73.0	10.8
	광주/전라/제주	39	2.6	2.6	5.1	15.4	25.6	25.6	23.1	74.4	10.3
	대구/경북	32	0.0	0.0	12.5	18.8	28.1	40.6	0.0	68.8	12.5
	부산/울산/경남	49	0.0	2.0	4.1	24.5	24.5	18.4	26.5	69.4	6.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3	1.9	3.2	18.7	23.9	24.5	26.5	74.8	6.5
	월 1~2회	118	1.7	0.8	8.5	19.5	23.7	24.6	21.2	69.5	11.0
	6개월 2회 이하	68	2.9	2.9	4.4	23.5	35.3	23.5	7.4	66.2	10.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60.7%로 부정적인 영향 10.0%보다 50.7%p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9.3%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66.7%), ▶19~22세(69.5%),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66.7%), 대구/경북(65.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65.2%)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69>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1.5	3.5	5.0	29.3	27.3	19.9	13.5	60.7	10.0	
군소속	육군	296	1.7	4.1	5.1	29.4	26.4	20.6	12.8	59.8	10.8
	해군/공군/해병대	45	0.0	0.0	4.4	28.9	33.3	15.6	17.8	66.7	4.4
연령	19~22세	95	1.1	5.3	4.2	20.0	35.8	16.8	16.8	69.5	10.5
	23~26세	177	1.1	2.8	5.1	35.0	23.2	19.2	13.6	55.9	9.0
	27~29세	69	2.9	2.9	5.8	27.5	26.1	26.1	8.7	60.9	11.6
학력	고졸 이하	41	4.9	4.9	2.4	41.5	22.0	7.3	17.1	46.3	12.2
	대학 재학(휴학)	198	1.0	4.0	4.0	27.3	30.3	19.7	13.6	63.6	9.1
	대학 졸업 이상	102	1.0	2.0	7.8	28.4	23.5	25.5	11.8	60.8	10.8
직업	학생	205	1.0	4.4	4.4	27.3	29.3	20.0	13.7	62.9	9.8
	직장인	102	2.0	0.0	7.8	30.4	24.5	23.5	11.8	59.8	9.8
	무직	34	2.9	8.8	0.0	38.2	23.5	8.8	17.6	50.0	11.8
거주 지역	서울	81	0.0	4.9	6.2	24.7	29.6	24.7	9.9	64.2	11.1
	인천/경기/강원	103	2.9	1.9	2.9	30.1	30.1	23.3	8.7	62.1	7.8
	대전/세종/충청	37	5.4	0.0	8.1	32.4	24.3	10.8	18.9	54.1	13.5
	광주/전라/제주	39	0.0	7.7	7.7	17.9	20.5	23.1	23.1	66.7	15.4
	대구/경북	32	0.0	3.1	0.0	31.3	34.4	25.0	6.3	65.6	3.1
	부산/울산/경남	49	0.0	4.1	6.1	40.8	20.4	6.1	22.4	49.0	10.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3	2.6	4.5	26.5	25.2	20.6	19.4	65.2	8.4
	월 1~2회	118	1.7	1.7	6.8	26.3	33.1	19.5	11.0	63.6	10.2
	6개월 2회 이하	68	1.5	8.8	2.9	41.2	22.1	19.1	4.4	45.6	13.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3.3%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8.5%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82.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0.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0>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2.1	2.9	3.5	18.2	26.4	24.6	22.3	73.3	8.5	
군소속	육군	296	2.4	2.7	3.4	18.2	27.0	24.3	22.0	73.3	8.4
	해군/공군/해병대	45	0.0	4.4	4.4	17.8	22.2	26.7	24.4	73.3	8.9
연령	19~22세	95	1.1	2.1	2.1	17.9	24.2	24.2	28.4	76.8	5.3
	23~26세	177	1.1	3.4	2.8	20.3	28.2	23.7	20.3	72.3	7.3
	27~29세	69	5.8	2.9	7.2	13.0	24.6	27.5	18.8	71.0	15.9
학력	고졸 이하	41	7.3	7.3	0.0	19.5	22.0	22.0	22.0	65.9	14.6
	대학 재학(휴학)	198	1.5	2.0	2.0	20.2	26.8	24.2	23.2	74.2	5.6
	대학 졸업 이상	102	1.0	2.9	7.8	13.7	27.5	26.5	20.6	74.5	11.8
직업	학생	205	1.5	2.4	2.0	20.0	26.3	23.9	23.9	74.1	5.9
	직장인	102	2.9	3.9	6.9	12.7	26.5	29.4	17.6	73.5	13.7
	무직	34	2.9	2.9	2.9	23.5	26.5	14.7	26.5	67.6	8.8
거주 지역	서울	81	2.5	2.5	1.2	25.9	25.9	27.2	14.8	67.9	6.2
	인천/경기/강원	103	1.9	3.9	3.9	11.7	29.1	28.2	21.4	78.6	9.7
	대전/세종/충청	37	5.4	5.4	8.1	10.8	21.6	16.2	32.4	70.3	18.9
	광주/전라/제주	39	0.0	5.1	5.1	7.7	25.6	30.8	25.6	82.1	10.3
	대구/경북	32	3.1	0.0	3.1	18.8	34.4	25.0	15.6	75.0	6.3
	부산/울산/경남	49	0.0	0.0	2.0	32.7	20.4	14.3	30.6	65.3	2.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3	1.9	1.9	14.2	27.1	23.9	29.7	80.6	5.2
	월 1~2회	118	2.5	1.7	5.1	22.0	23.7	26.3	18.6	68.6	9.3
	6개월 2회 이하	68	2.9	7.4	4.4	20.6	29.4	23.5	11.8	64.7	14.7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 주류 제공 회식/행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76.5%로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7.0%였음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대학 재학(78.8%),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86.5%),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83.9%)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1>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행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341	2.1	2.9	2.1	16.4	28.7	26.7	21.1	76.5	7.0	
군소속	육군	296	2.0	3.0	1.7	15.5	28.7	28.4	20.6	77.7	6.8
	해군/공군/해병대	45	2.2	2.2	4.4	22.2	28.9	15.6	24.4	68.9	8.9
연령	19~22세	95	1.1	3.2	0.0	17.9	27.4	27.4	23.2	77.9	4.2
	23~26세	177	2.3	1.1	2.3	16.9	31.6	25.4	20.3	77.4	5.6
	27~29세	69	2.9	7.2	4.3	13.0	23.2	29.0	20.3	72.5	14.5
학력	고졸 이하	41	4.9	7.3	0.0	19.5	24.4	17.1	26.8	68.3	12.2
	대학 재학(휴학)	198	1.5	1.5	1.0	17.2	29.3	30.3	19.2	78.8	4.0
	대학 졸업 이상	102	2.0	3.9	4.9	13.7	29.4	23.5	22.5	75.5	10.8
직업	학생	205	1.5	2.0	1.0	17.1	28.8	29.3	20.5	78.5	4.4
	직장인	102	2.9	3.9	4.9	13.7	30.4	27.5	16.7	74.5	11.8
	무직	34	2.9	5.9	0.0	20.6	23.5	8.8	38.2	70.6	8.8
거주 지역	서울	81	1.2	3.7	1.2	23.5	25.9	32.1	12.3	70.4	6.2
	인천/경기/강원	103	3.9	2.9	1.0	13.6	27.2	31.1	20.4	78.6	7.8
	대전/세종/충청	37	5.4	5.4	2.7	0.0	32.4	27.0	27.0	86.5	13.5
	광주/전라/제주	39	0.0	5.1	2.6	15.4	28.2	20.5	28.2	76.9	7.7
	대구/경북	32	0.0	0.0	3.1	21.9	37.5	34.4	3.1	75.0	3.1
	부산/울산/경남	49	0.0	0.0	4.1	20.4	28.6	8.2	38.8	75.5	4.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1.3	1.9	0.6	12.3	29.0	29.0	25.8	83.9	3.9
	월 1~2회	118	2.5	2.5	3.4	21.2	24.6	28.0	17.8	70.3	8.5
	6개월 2회 이하	68	2.9	5.9	2.9	17.6	35.3	19.1	16.2	70.6	11.8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으며,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는 28.7%인 것으로 나타남
 -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 ▶거주 지역 인천/경기/강원 및 부산/울산/경남(각각 61.2%),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64.4%)에서 높게 나타남
 -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40.0%), ▶고졸 이하(3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2> 응답자 특성별 주류 제공 회식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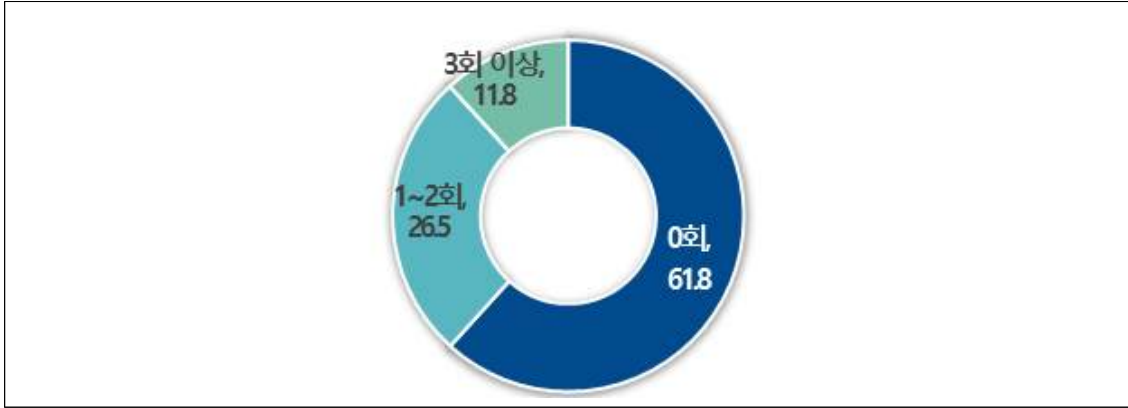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 없음	주류 제공 선호	다과 및 음료 선호	계
전체		341	28.7	56.3	15.0	100.0
군소속	육군	296	27.0	56.8	16.2	100.0
	해군/공군/해병대	45	40.0	53.3	6.7	100.0
연령	19~22세	95	27.4	54.7	17.9	100.0
	23~26세	177	28.2	58.2	13.6	100.0
	27~29세	69	31.9	53.6	14.5	100.0
학력	고졸 이하	41	36.6	41.5	22.0	100.0
	대학 재학(휴학)	198	27.8	57.6	14.6	100.0
	대학 졸업 이상	102	27.5	59.8	12.7	100.0
직업	학생	205	27.8	56.6	15.6	100.0
	직장인	102	30.4	56.9	12.7	100.0
	무직	34	29.4	52.9	17.6	100.0
거주 지역	서울	81	34.6	55.6	9.9	100.0
	인천/경기/강원	103	27.2	61.2	11.7	100.0
	대전/세종/충청	37	29.7	45.9	24.3	100.0
	광주/전라/제주	39	25.6	51.3	23.1	100.0
	대구/경북	32	28.1	53.1	18.8	100.0
	부산/울산/경남	49	24.5	61.2	14.3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55	29.7	56.1	14.2	100.0
	월 1~2회	118	29.7	64.4	5.9	100.0
	6개월 2회 이하	68	25.0	42.6	32.4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부도 II -23]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73>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회	1~2회	3회 이상	계	
전체	400	61.8	26.5	11.8	100.0	
군소속	육군	344	62.5	27.0	10.5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57.1	23.2	19.6	100.0
연령	19~22세	117	72.6	17.9	9.4	100.0
	23~26세	207	60.9	29.0	10.1	100.0
	27~29세	76	47.4	32.9	19.7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62.8	23.3	14.0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66.7	26.3	7.0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50.9	28.1	21.1	100.0
직업	학생	250	66.8	26.4	6.8	100.0
	직장인	114	48.2	28.1	23.7	100.0
	무직	36	69.4	22.2	8.3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57.1	31.4	11.4	100.0
	인천/경기/강원	115	59.1	25.2	15.7	100.0
	대전/세종/충청	42	73.8	21.4	4.8	100.0
	광주/전라/제주	42	54.8	28.6	16.7	100.0
	대구/경북	38	65.8	28.9	5.3	100.0
	부산/울산/경남	58	69.0	20.7	10.3	100.0
입대 전	주 1회 이상	180	58.3	27.8	13.9	100.0
음주 횟수	월 1~2회	130	56.9	30.0	13.1	100.0
	6개월 2회 이하	90	75.6	18.9	5.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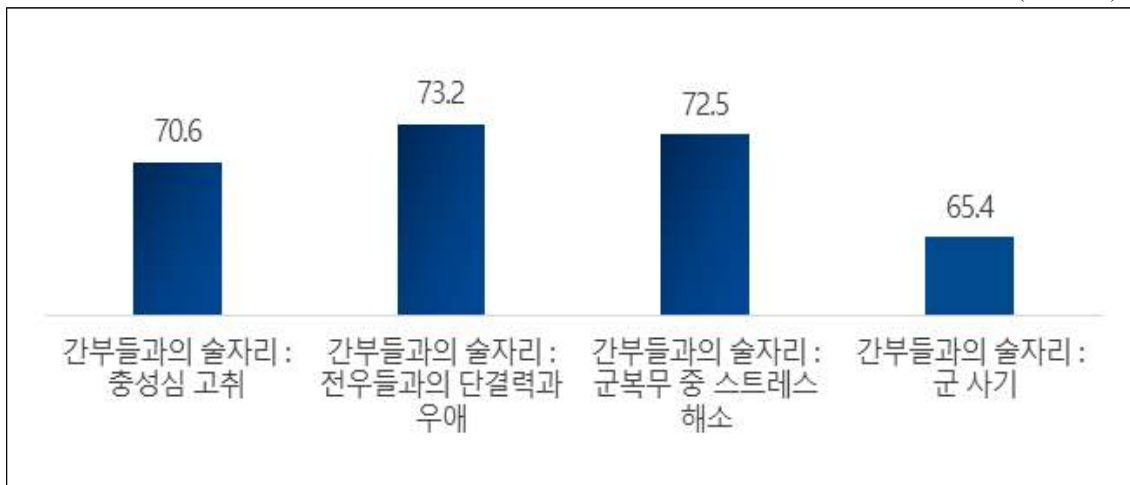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군행사 이외에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는 0회가 61.8%로 10명 중 6명 이상은 간부들과 술자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2회 26.5%, 3회 이상 11.8%였음
-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0회는 ▶19~22세(72.6%),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73.8%),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75.6%)에서 높게 나타남
- 간부들과 개인적인 술자리 횟수 1~2회는 ▶27~29세(32.9%), ▶거주 지역 서울(31.4%),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3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의견

[부도 II -24]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의견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 관련 네 가지 의견 중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에 도움’ 된다는 응답이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72.5%,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충성심 고취에 도움’ 7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간부들과의 술자리: 충성심 고취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충성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은 70.6%로 부정적인 영향 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2.2%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대학 졸업 이상(75.0%), ▶거주 지역 대구/경북(84.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6.0%)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4>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충성심 고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53	0.7	1.3	5.2	22.2	32.7	24.8	13.1	70.6	7.2	
군소속	육군	129	0.8	1.6	5.4	21.7	30.2	26.4	14.0	70.5	7.8
	해군/공군/해병대	24	0.0	0.0	4.2	25.0	45.8	16.7	8.3	70.8	4.2
연령	19~22세	32	0.0	3.1	6.3	21.9	31.3	18.8	18.8	68.8	9.4
	23~26세	81	1.2	0.0	3.7	24.7	29.6	25.9	14.8	70.4	4.9
	27~29세	40	0.0	2.5	7.5	17.5	40.0	27.5	5.0	72.5	10.0
학력	고졸 이하	16	0.0	0.0	18.8	37.5	18.8	12.5	12.5	43.8	18.8
	대학 재학(휴학)	81	1.2	1.2	1.2	23.5	34.6	23.5	14.8	72.8	3.7
	대학 졸업 이상	56	0.0	1.8	7.1	16.1	33.9	30.4	10.7	75.0	8.9
직업	학생	83	1.2	1.2	1.2	22.9	34.9	22.9	15.7	73.5	3.6
	직장인	59	0.0	1.7	8.5	22.0	30.5	28.8	8.5	67.8	10.2
	무직	11	0.0	0.0	18.2	18.2	27.3	18.2	18.2	63.6	18.2
거주 지역	서울	45	0.0	2.2	0.0	20.0	33.3	42.2	2.2	77.8	2.2
	인천/경기/강원	47	2.1	0.0	4.3	17.0	42.6	23.4	10.6	76.6	6.4
	대전/세종/충청	11	0.0	0.0	9.1	45.5	18.2	9.1	18.2	45.5	9.1
	광주/전라/제주	19	0.0	5.3	15.8	15.8	15.8	21.1	26.3	63.2	21.1
	대구/경북	13	0.0	0.0	7.7	7.7	61.5	15.4	7.7	84.6	7.7
	부산/울산/경남	18	0.0	0.0	5.6	44.4	11.1	5.6	33.3	50.0	5.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75	1.3	1.3	4.0	17.3	29.3	30.7	16.0	76.0	6.7
	월 1~2회	56	0.0	0.0	5.4	26.8	37.5	23.2	7.1	67.9	5.4
	6개월 2회 이하	22	0.0	4.5	9.1	27.3	31.8	9.1	18.2	59.1	13.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3.2%로 부정적인 영향 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18.3%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23~26세(75.3%), ▶대학 졸업 이상(76.8%), ▶거주 지역 대구/경북(92.3%), ▶입대 전 음주 횟수 6개월 2회 이하(86.4%)에 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5>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전우들과의 단결력과 우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53	1.3	1.3	5.9	18.3	26.8	25.5	20.9	73.2	8.5	
군소속	육군	129	1.6	1.6	6.2	17.1	25.6	25.6	22.5	73.6	9.3
	해군/공군/해병대	24	0.0	0.0	4.2	25.0	33.3	25.0	12.5	70.8	4.2
연령	19~22세	32	0.0	3.1	6.3	21.9	18.8	18.8	31.3	68.8	9.4
	23~26세	81	1.2	1.2	3.7	18.5	28.4	28.4	18.5	75.3	6.2
	27~29세	40	2.5	0.0	10.0	15.0	30.0	25.0	17.5	72.5	12.5
학력	고졸 이하	16	0.0	0.0	18.8	31.3	18.8	18.8	12.5	50.0	18.8
	대학 재학(휴학)	81	1.2	2.5	2.5	18.5	28.4	23.5	23.5	75.3	6.2
	대학 졸업 이상	56	1.8	0.0	7.1	14.3	26.8	30.4	19.6	76.8	8.9
직업	학생	83	1.2	2.4	2.4	18.1	27.7	24.1	24.1	75.9	6.0
	직장인	59	1.7	0.0	10.2	16.9	25.4	30.5	15.3	71.2	11.9
	무직	11	0.0	0.0	9.1	27.3	27.3	9.1	27.3	63.6	9.1
거주 지역	서울	45	2.2	4.4	6.7	13.3	26.7	31.1	15.6	73.3	13.3
	인천/경기/강원	47	2.1	0.0	4.3	17.0	36.2	21.3	19.1	76.6	6.4
	대전/세종/충청	11	0.0	0.0	9.1	18.2	36.4	18.2	18.2	72.7	9.1
	광주/전라/제주	19	0.0	0.0	15.8	15.8	5.3	21.1	42.1	68.4	15.8
	대구/경북	13	0.0	0.0	0.0	7.7	38.5	46.2	7.7	92.3	0.0
	부산/울산/경남	18	0.0	0.0	0.0	44.4	11.1	16.7	27.8	55.6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75	1.3	2.7	4.0	13.3	28.0	22.7	28.0	78.7	8.0
	월 1~2회	56	1.8	0.0	8.9	28.6	21.4	26.8	12.5	60.7	10.7
	6개월 2회 이하	22	0.0	0.0	4.5	9.1	36.4	31.8	18.2	86.4	4.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72.5%로 부정적인 영향 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1.6%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대학 재학(77.8%), ▶학생(78.3%), ▶거주지역 광주/전라/제주(78.9%)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6>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53	1.3	0.7	3.9	21.6	25.5	28.1	19.0	72.5	5.9	
군소속	육군	129	1.6	0.8	3.9	21.7	23.3	29.5	19.4	72.1	6.2
	해군/공군/해병대	24	0.0	0.0	4.2	20.8	37.5	20.8	16.7	75.0	4.2
연령	19~22세	32	0.0	0.0	9.4	28.1	18.8	18.8	25.0	62.5	9.4
	23~26세	81	1.2	0.0	2.5	19.8	24.7	32.1	19.8	76.5	3.7
	27~29세	40	2.5	2.5	2.5	20.0	32.5	27.5	12.5	72.5	7.5
학력	고졸 이하	16	0.0	6.3	12.5	37.5	12.5	18.8	12.5	43.8	18.8
	대학 재학(휴학)	81	1.2	0.0	2.5	18.5	25.9	30.9	21.0	77.8	3.7
	대학 졸업 이상	56	1.8	0.0	3.6	21.4	28.6	26.8	17.9	73.2	5.4
직업	학생	83	1.2	0.0	2.4	18.1	26.5	30.1	21.7	78.3	3.6
	직장인	59	1.7	1.7	5.1	25.4	22.0	30.5	13.6	66.1	8.5
	무직	11	0.0	0.0	9.1	27.3	36.4	0.0	27.3	63.6	9.1
거주 지역	서울	45	2.2	2.2	2.2	22.2	37.8	20.0	13.3	71.1	6.7
	인천/경기/강원	47	2.1	0.0	2.1	19.1	27.7	29.8	19.1	76.6	4.3
	대전/세종/충청	11	0.0	0.0	9.1	36.4	18.2	36.4	0.0	54.5	9.1
	광주/전라/제주	19	0.0	0.0	10.5	10.5	10.5	21.1	47.4	78.9	10.5
	대구/경북	13	0.0	0.0	7.7	15.4	15.4	61.5	0.0	76.9	7.7
	부산/울산/경남	18	0.0	0.0	0.0	33.3	16.7	22.2	27.8	66.7	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75	1.3	0.0	4.0	18.7	26.7	28.0	21.3	76.0	5.3
	월 1~2회	56	1.8	1.8	3.6	25.0	28.6	23.2	16.1	67.9	7.1
	6개월 2회 이하	22	0.0	0.0	4.5	22.7	13.6	40.9	18.2	72.7	4.5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 사기

- 간부들과의 술자리가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65.4%로 부정적인 영향 1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23.5%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70.8%), ▶23~26세(70.4%), ▶거주 지역 대구/경북(76.9%),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73.3%)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7>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군 사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부정적 ①	②	③	영향 없음 ④	⑤	⑥	매우 긍정적 ⑦	긍정	부정	
전체	153	0.7	2.0	8.5	23.5	31.4	19.6	14.4	65.4	11.1	
군소속	육군	129	0.8	1.6	8.5	24.8	28.7	21.7	14.0	64.3	10.9
	해군/공군/해병대	24	0.0	4.2	8.3	16.7	45.8	8.3	16.7	70.8	12.5
연령	19~22세	32	0.0	6.3	6.3	28.1	28.1	6.3	25.0	59.4	12.5
	23~26세	81	0.0	1.2	6.2	22.2	32.1	25.9	12.3	70.4	7.4
	27~29세	40	2.5	0.0	15.0	22.5	32.5	17.5	10.0	60.0	17.5
학력	고졸 이하	16	0.0	0.0	31.3	25.0	18.8	12.5	12.5	43.8	31.3
	대학 재학(휴학)	81	0.0	3.7	6.2	22.2	32.1	18.5	17.3	67.9	9.9
	대학 졸업 이상	56	1.8	0.0	5.4	25.0	33.9	23.2	10.7	67.9	7.1
직업	학생	83	0.0	3.6	6.0	22.9	32.5	18.1	16.9	67.5	9.6
	직장인	59	1.7	0.0	11.9	18.6	32.2	25.4	10.2	67.8	13.6
	무직	11	0.0	0.0	9.1	54.5	18.2	0.0	18.2	36.4	9.1
거주 지역	서울	45	2.2	2.2	11.1	24.4	35.6	13.3	11.1	60.0	15.6
	인천/경기/강원	47	0.0	2.1	2.1	23.4	29.8	29.8	12.8	72.3	4.3
	대전/세종/충청	11	0.0	0.0	18.2	27.3	36.4	9.1	9.1	54.5	18.2
	광주/전라/제주	19	0.0	5.3	10.5	21.1	5.3	31.6	26.3	63.2	15.8
	대구/경북	13	0.0	0.0	7.7	15.4	61.5	15.4	0.0	76.9	7.7
	부산/울산/경남	18	0.0	0.0	11.1	27.8	27.8	5.6	27.8	61.1	11.1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75	0.0	2.7	9.3	14.7	30.7	21.3	21.3	73.3	12.0
	월 1~2회	56	1.8	1.8	10.7	28.6	32.1	14.3	10.7	57.1	14.3
	6개월 2회 이하	22	0.0	0.0	0.0	40.9	31.8	27.3	0.0	59.1	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부들과의 술자리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 간부들과의 술자리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인 회식 자리의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 26.8%,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 대신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3.1%의 순으로 나타남

-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23~26세(63.0%),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64.3%)에서 높게 나타남
- 군 사기와 무관하다는 ▶대학 졸업 이상(32.1%), ▶직장인(32.2%),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3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부표 II -78> 응답자 특성별 간부들과의 술자리 대신 음료/간식 제공 회식 시 군 사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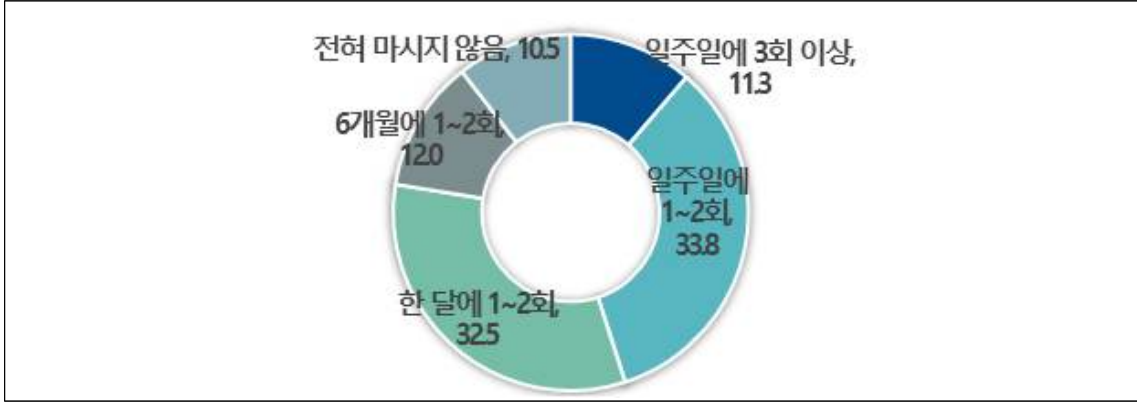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향 없음	주류 제공 선호	다과/음료 제공 선호	계
전체		153	26.8	60.1	13.1	100.0
군소속	육군	129	26.4	60.5	13.2	100.0
	해군/공군/해병대	24	29.2	58.3	12.5	100.0
연령	19~22세	32	25.0	56.3	18.8	100.0
	23~26세	81	23.5	63.0	13.6	100.0
	27~29세	40	35.0	57.5	7.5	100.0
학력	고졸 이하	16	18.8	50.0	31.3	100.0
	대학 재학(휴학)	81	24.7	60.5	14.8	100.0
	대학 졸업 이상	56	32.1	62.5	5.4	100.0
직업	학생	83	25.3	59.0	15.7	100.0
	직장인	59	32.2	57.6	10.2	100.0
	무직	11	9.1	81.8	9.1	100.0
거주 지역	서울	45	26.7	64.4	8.9	100.0
	인천/경기/강원	47	27.7	63.8	8.5	100.0
	대전/세종/충청	11	36.4	45.5	18.2	100.0
	광주/전라/제주	19	26.3	57.9	15.8	100.0
	대구/경북	13	15.4	61.5	23.1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부산/울산/경남	18	27.8	50.0	22.2	100.0
	주 1회 이상	75	32.0	60.0	8.0	100.0
	월 1~2회	56	23.2	64.3	12.5	100.0
	6개월 2회 이하	22	18.2	50.0	31.8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음주 횟수

[부도 II -25] 입대 전 음주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79> 응답자 특성별 입대 전 음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전체	400	11.3	33.8	32.5	12.0	10.5	100.0	
군소속	육군	344	12.2	34.3	30.8	11.9	10.8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5.4	30.4	42.9	12.5	8.9	100.0
연령	19~22세	117	15.4	25.6	39.3	11.1	8.5	100.0
	23~26세	207	8.2	37.7	28.5	12.6	13.0	100.0
	27~29세	76	13.2	35.5	32.9	11.8	6.6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14.0	9.3	37.2	20.9	18.6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10.7	36.6	31.3	12.8	8.6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11.4	36.8	33.3	7.0	11.4	100.0
직업	학생	250	10.4	36.4	31.2	12.4	9.6	100.0
	직장인	114	13.2	31.6	36.0	9.6	9.6	100.0
	무직	36	11.1	22.2	30.6	16.7	19.4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10.5	42.9	32.4	9.5	4.8	100.0
	인천/경기/강원	115	13.9	33.9	27.8	10.4	13.9	100.0
	대전/세종/충청	42	7.1	35.7	38.1	4.8	14.3	100.0
	광주/전라/제주	42	11.9	26.2	31.0	23.8	7.1	100.0
	대구/경북	38	2.6	26.3	36.8	15.8	18.4	100.0
	부산/울산/경남	58	15.5	25.9	36.2	13.8	8.6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음주 횟수로 일주일에 1~2회 및 한 달에 1~2회가 각각 33.8%, 32.5%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1~2회 12.0%, 일주일에 3회 이상 11.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10.5%로 나타났음
 - 일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은 ▶대학 졸업 이상(36.8%), 대학 재학(36.6%), ▶학생(36.4%),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35.7%)에 높게 나타났음
 -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42.9%), ▶19~22세(39.3%)에서 높았음

□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

-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은 소주 1.45병, 맥주 955.98cc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주 평균 음주량은 ▶해군/공군/해병대(1.59병), ▶19~22세(1.58병),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1.80병),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1.64병)에서 높게 나타났음
 - 맥주 평균 음주량은 ▶직장인(1,083.57cc), ▶거주지역 광주/전라/제주(1,132.1cc),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1,104.22cc)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80> 응답자 특성별 입대 전 음주 시 평균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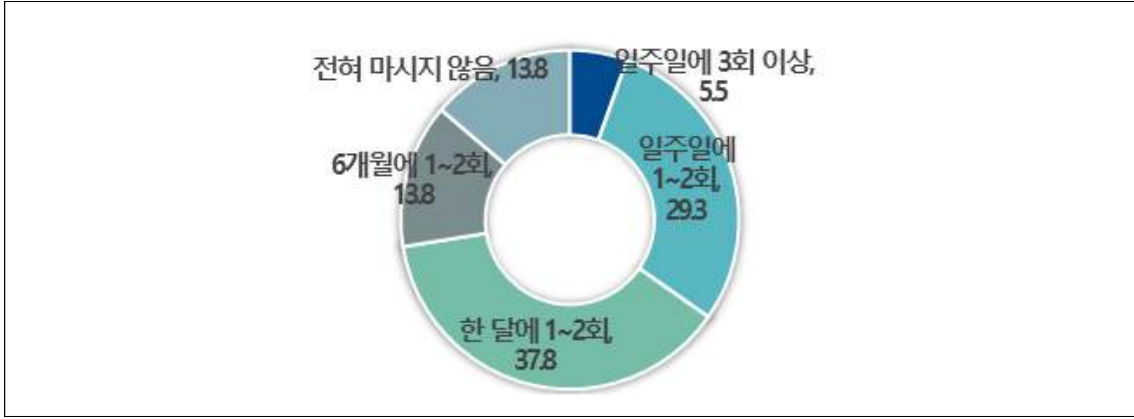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153	1.45	955.98
군소속	육군	129	1.43	983.84
	해군/공군/해병대	24	1.59	788.27
연령	19~22세	32	1.58	874.36
	23~26세	81	1.42	1,031.82
	27~29세	40	1.34	886.69
학력	고졸 이하	16	1.08	670.04
	대학 재학(휴학)	81	1.46	956.44
	대학 졸업 이상	56	1.57	1,054.04
직업	학생	83	1.45	957.21
	직장인	59	1.51	1,083.57
	무직	11	1.25	493.14
거주 지역	서울	45	1.38	1,081.76
	인천/경기/강원	47	1.40	956.64
	대전/세종/충청	11	1.80	877.79
	광주/전라/제주	19	1.35	1,132.10
	대구/경북	13	1.44	748.46
	부산/울산/경남	18	1.53	762.3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75	1.64	1,104.22
	월 1~2회	56	1.38	873.29
	6개월 2회 이하	22	0.98	623.99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재 음주 횟수

[부도 II -26] 현재 음주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II -81> 응답자 특성별 현재 음주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1~2회	6개월에 1~2회	전혀 마시지 않음	계	
전체	400	5.5	29.3	37.8	13.8	13.8	100.0	
군소속	육군	344	6.1	30.2	36.3	13.7	13.7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1.8	23.2	46.4	14.3	14.3	100.0
연령	19~22세	117	3.4	19.7	47.0	19.7	10.3	100.0
	23~26세	207	4.8	30.4	36.2	11.1	17.4	100.0
	27~29세	76	10.5	40.8	27.6	11.8	9.2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2.3	25.6	23.3	27.9	20.9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4.1	27.2	42.4	14.4	11.9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9.6	35.1	33.3	7.0	14.9	100.0
직업	학생	250	4.0	26.8	42.0	14.0	13.2	100.0
	직장인	114	8.8	36.0	35.1	9.6	10.5	100.0
	무직	36	5.6	25.0	16.7	25.0	27.8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10.5	38.1	28.6	14.3	8.6	100.0
	인천/경기/강원	115	3.5	30.4	41.7	11.3	13.0	100.0
	대전/세종/충청	42	0.0	23.8	50.0	0.0	26.2	100.0
	광주/전라/제주	42	7.1	16.7	42.9	23.8	9.5	100.0
	대구/경북	38	2.6	31.6	36.8	10.5	18.4	100.0
	부산/울산/경남	58	5.2	22.4	34.5	22.4	15.5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11.1	54.4	28.9	3.3	2.2	100.0
	월 1~2회	130	0.8	13.1	66.2	16.2	3.8	100.0
	6개월 2회 이하	90	1.1	2.2	14.4	31.1	51.1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음주 횟수로 한 달에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회는 29.3%였음
-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13.8%로 나타났음
 - 한 달에 1~2회라는 응답은 ▶해군/공군/해병대(46.4%), ▶19~22세(47.0%),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50.0%), ▶입대 전 음주 횟수 월 1~2회(66.2%)에서 높게 나타났음
 - 일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은 ▶27~29세(40.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5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현재 음주 시, 평균 음주량

- 현재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은 소주 1.25병, 맥주 853.52cc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주 평균 음주량은 ▶해군/공군/해병대(1.45병), ▶19~22세(1.37병), ▶거주 지역 대전/세종/충청(1.50병),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1.34병)에서 높게 나타났음
 - 맥주 평균 음주량은 ▶대학 졸업 이상(989.87cc), ▶직장인(986.49cc),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1,231.62cc),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983.38cc)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82> 응답자 특성별 현재 음주 시, 평균 음주량

(단위: 명, 병, 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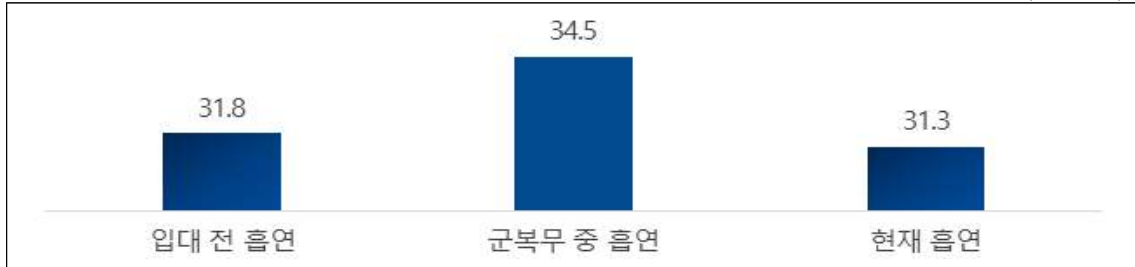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소주	맥주
전체		346	1.25	853.52
군소속	육군	298	1.22	853.75
	해군/공군/해병대	48	1.45	852.12
연령	19~22세	105	1.37	879.10
	23~26세	172	1.23	837.26
	27~29세	69	1.12	855.13
학력	고졸 이하	34	0.86	664.76
	대학 재학(휴학)	214	1.28	821.07
	대학 졸업 이상	98	1.31	989.87
직업	학생	217	1.28	821.24
	직장인	103	1.28	986.49
	무직	26	0.87	596.19
거주 지역	서울	96	1.24	979.76
	인천/경기/강원	100	1.09	658.57
	대전/세종/충청	31	1.50	854.85
	광주/전라/제주	38	1.23	1,231.62
	대구/경북	31	1.53	880.70
	부산/울산/경남	50	1.28	696.04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77	1.34	983.38
	월 1~2회	125	1.22	730.86
	6개월 2회 이하	44	0.98	679.6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흡연: 흡연자 비율 기준

[부도 II -27] 흡연: 흡연자 비율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입대 전 담배를 피웠다는 흡연자 비율은 31.8%, 군복무 중 흡연자 비율은 34.5%, 현재 흡연자 비율은 31.3%로 나타났음
- 입대 전, 군복무 중, 현재 흡연자 비율 모두 ▶27~29세, ▶고졸 이하, ▶직장인,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음

<부표 II -83> 응답자 특성별 흡연: 흡연자 비율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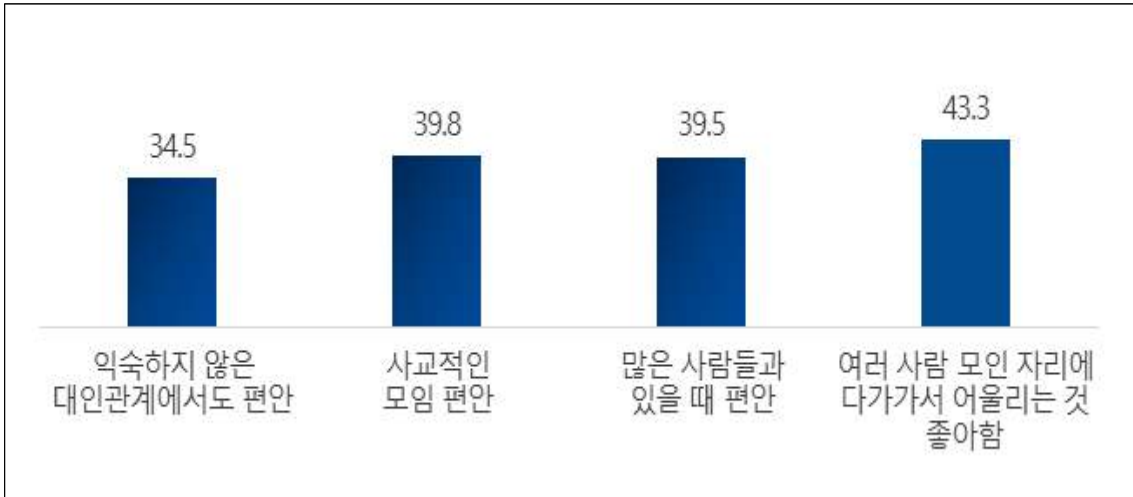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입대 전 흡연	군복무 중 흡연	현재 흡연	
전체	400	31.8	34.5	31.3	
군소속	육군	344	31.7	33.7	30.8
	해군/공군/해병대	56	32.1	39.3	33.9
연령	19~22세	117	25.6	23.9	24.8
	23~26세	207	31.4	37.2	29.5
	27~29세	76	42.1	43.4	46.1
학력	고졸 이하	43	41.9	41.9	41.9
	대학 재학(휴학)	243	28.8	31.7	28.4
	대학 졸업 이상	114	34.2	37.7	33.3
직업	학생	250	28.8	31.6	28.0
	직장인	114	41.2	45.6	42.1
	무직	36	22.2	19.4	19.4
거주 지역	서울	105	36.2	40.0	37.1
	인천/경기/강원	115	33.9	39.1	33.0
	대전/세종/충청	42	21.4	28.6	21.4
	광주/전라/제주	42	23.8	23.8	23.8
	대구/경북	38	23.7	23.7	26.3
	부산/울산/경남	58	37.9	34.5	32.8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42.2	44.4	41.1
	월 1~2회	130	30.8	34.6	30.8
	6개월 2회 이하	90	12.2	14.4	12.2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부도 II -28] 흡연: 흡연자 비율 기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관련 네 가지 의견 중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교적인 모임 편안’ 39.8%,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39.5%,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34.5%의 순으로 나타났음

□ 대인관계: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34.5%로 그렇지 않다 2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9.5%였음
- 그렇다라는 비율은 ▶27~29세(44.7%), ▶대학 졸업 이상(45.6%), ▶직장인(43.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2.2%)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84>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전체	400	5.3	20.8	39.5	28.3	6.3	34.5	26.0	
군소속	육군	344	5.2	21.8	39.2	27.6	6.1	33.7	27.0
	해군/공군/해병대	56	5.4	14.3	41.1	32.1	7.1	39.3	19.6
연령	19~22세	117	5.1	23.9	41.0	23.1	6.8	29.9	29.1
	23~26세	207	6.3	18.4	42.0	29.0	4.3	33.3	24.6
	27~29세	76	2.6	22.4	30.3	34.2	10.5	44.7	25.0
학력	고졸 이하	43	11.6	16.3	51.2	11.6	9.3	20.9	27.9
	대학 재학(휴학)	243	5.8	21.8	40.7	27.6	4.1	31.7	27.6
	대학 졸업 이상	114	1.8	20.2	32.5	36.0	9.6	45.6	21.9
직업	학생	250	5.6	21.6	40.4	27.2	5.2	32.4	27.2
	직장인	114	1.8	18.4	36.8	34.2	8.8	43.0	20.2
	무직	36	13.9	22.2	41.7	16.7	5.6	22.2	36.1
거주 지역	서울	105	1.0	18.1	41.0	36.2	3.8	40.0	19.0
	인천/경기/강원	115	7.0	25.2	34.8	29.6	3.5	33.0	32.2
	대전/세종/충청	42	4.8	21.4	38.1	26.2	9.5	35.7	26.2
	광주/전라/제주	42	4.8	16.7	40.5	23.8	14.3	38.1	21.4
	대구/경북	38	5.3	23.7	44.7	21.1	5.3	26.3	28.9
	부산/울산/경남	58	10.3	17.2	43.1	20.7	8.6	29.3	27.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5.0	17.2	35.6	33.9	8.3	42.2	22.2
	월 1~2회	130	2.3	23.8	43.8	26.9	3.1	30.0	26.2
	6개월 2회 이하	90	10.0	23.3	41.1	18.9	6.7	25.6	33.3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사교적인 모임 편안

- 사교적인 모임에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39.8%로 그렇지 않다 20.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0.0%였음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2세(44.4%), ▶대학 졸업 이상(43.0%), ▶거주지역 광주/전라/제주(52.4%),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2.2%)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85>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사교적인 모임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전체	400	4.5	15.8	40.0	30.5	9.3	39.8	20.3	
군소속	육군	344	4.1	16.0	40.7	29.7	9.6	39.2	20.1
	해군/공군/해병대	56	7.1	14.3	35.7	35.7	7.1	42.9	21.4
연령	19~22세	117	4.3	13.7	37.6	31.6	12.8	44.4	17.9
	23~26세	207	4.8	16.9	41.1	30.9	6.3	37.2	21.7
	27~29세	76	3.9	15.8	40.8	27.6	11.8	39.5	19.7
학력	고졸 이하	43	9.3	20.9	39.5	18.6	11.6	30.2	30.2
	대학 재학(휴학)	243	4.5	15.6	39.9	33.3	6.6	39.9	20.2
	대학 졸업 이상	114	2.6	14.0	40.4	28.9	14.0	43.0	16.7
직업	학생	250	4.8	15.6	39.6	32.8	7.2	40.0	20.4
	직장인	114	1.8	15.8	42.1	26.3	14.0	40.4	17.5
	무직	36	11.1	16.7	36.1	27.8	8.3	36.1	27.8
거주 지역	서울	105	2.9	14.3	42.9	30.5	9.5	40.0	17.1
	인천/경기/강원	115	3.5	14.8	47.0	31.3	3.5	34.8	18.3
	대전/세종/충청	42	7.1	21.4	33.3	26.2	11.9	38.1	28.6
	광주/전라/제주	42	4.8	9.5	33.3	33.3	19.0	52.4	14.3
	대구/경북	38	0.0	23.7	34.2	36.8	5.3	42.1	23.7
	부산/울산/경남	58	10.3	15.5	34.5	25.9	13.8	39.7	25.9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1.7	11.1	45.0	31.7	10.6	42.2	12.8
	월 1~2회	130	4.6	19.2	35.4	35.4	5.4	40.8	23.8
	6개월 2회 이하	90	10.0	20.0	36.7	21.1	12.2	33.3	3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39.5%로 그렇지 않다는 2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5.3%였음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해군/공군/해병대(51.8%), ▶27~29세(51.3%), ▶대학 졸업 이상(47.4%), ▶직장인(49.1%), ▶거주 지역 광주/전라/제주(47.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6.7%)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86>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편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전체	400	6.8	18.5	35.3	28.3	11.3	39.5	25.3	
군소속	육군	344	6.7	18.3	37.5	26.7	10.8	37.5	25.0
	해군/공군/해병대	56	7.1	19.6	21.4	37.5	14.3	51.8	26.8
연령	19~22세	117	6.8	17.9	35.0	29.1	11.1	40.2	24.8
	23~26세	207	6.8	21.7	36.7	26.6	8.2	34.8	28.5
	27~29세	76	6.6	10.5	31.6	31.6	19.7	51.3	17.1
학력	고졸 이하	43	11.6	25.6	25.6	23.3	14.0	37.2	37.2
	대학 재학(휴학)	243	7.0	19.3	37.4	29.2	7.0	36.2	26.3
	대학 졸업 이상	114	4.4	14.0	34.2	28.1	19.3	47.4	18.4
직업	학생	250	6.8	20.0	36.8	28.4	8.0	36.4	26.8
	직장인	114	4.4	14.9	31.6	31.6	17.5	49.1	19.3
	무직	36	13.9	19.4	36.1	16.7	13.9	30.6	33.3
거주 지역	서울	105	2.9	21.9	31.4	37.1	6.7	43.8	24.8
	인천/경기/강원	115	8.7	16.5	39.1	27.8	7.8	35.7	25.2
	대전/세종/충청	42	11.9	16.7	31.0	26.2	14.3	40.5	28.6
	광주/전라/제주	42	2.4	16.7	33.3	23.8	23.8	47.6	19.0
	대구/경북	38	2.6	21.1	31.6	34.2	10.5	44.7	23.7
	부산/울산/경남	58	12.1	17.2	41.4	13.8	15.5	29.3	29.3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3.3	16.7	33.3	32.2	14.4	46.7	20.0
	월 1~2회	130	6.9	18.5	37.7	28.5	8.5	36.9	25.4
	6개월 2회 이하	90	13.3	22.2	35.6	20.0	8.9	28.9	35.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대인관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3.3%로 그렇지 않다는 24.3%보다 19.0%p 높았음
- 보통이라는 응답은 32.5%였음
 -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9세(56.6%), ▶대학 졸업 이상(56.1%), ▶직장인(57.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50.6%)에서 높게 나타남

**<부표 II -87> 응답자 특성별 대인관계: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 좋아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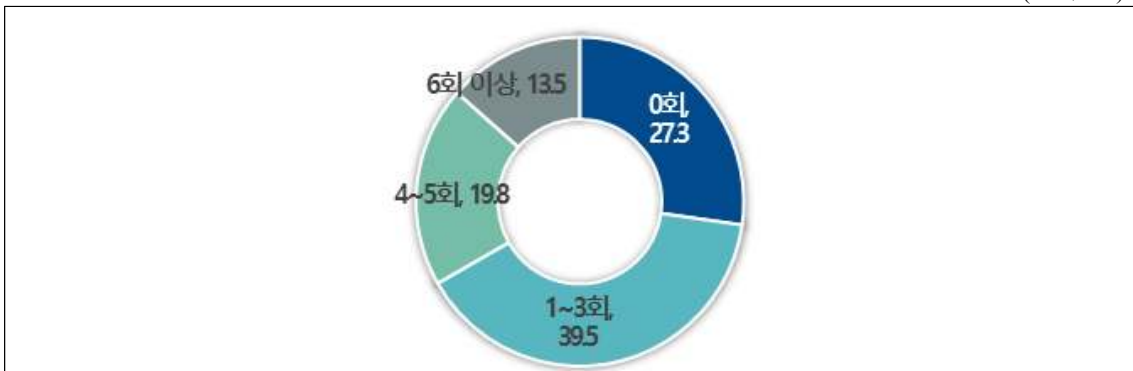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전체		400	6.5	17.8	32.5	30.8	12.5	43.3	24.3
군소속	육군	344	6.4	18.6	32.6	30.2	12.2	42.4	25.0
	해군/공군/해병대	56	7.1	12.5	32.1	33.9	14.3	48.2	19.6
연령	19~22세	117	4.3	19.7	35.0	24.8	16.2	41.0	23.9
	23~26세	207	7.7	18.8	33.8	30.9	8.7	39.6	26.6
	27~29세	76	6.6	11.8	25.0	39.5	17.1	56.6	18.4
학력	고졸 이하	43	14.0	20.9	23.3	20.9	20.9	41.9	34.9
	대학 재학(휴학)	243	6.6	19.8	36.2	28.4	9.1	37.4	26.3
	대학 졸업 이상	114	3.5	12.3	28.1	39.5	16.7	56.1	15.8
직업	학생	250	6.4	20.4	35.6	27.6	10.0	37.6	26.8
	직장인	114	5.3	12.3	25.4	39.5	17.5	57.0	17.5
	무직	36	11.1	16.7	33.3	25.0	13.9	38.9	27.8
거주 지역	서울	105	4.8	17.1	35.2	28.6	14.3	42.9	21.9
	인천/경기/강원	115	6.1	16.5	30.4	38.3	8.7	47.0	22.6
	대전/세종/충청	42	11.9	14.3	31.0	28.6	14.3	42.9	26.2
	광주/전라/제주	42	0.0	21.4	31.0	26.2	21.4	47.6	21.4
	대구/경북	38	2.6	26.3	34.2	26.3	10.5	36.8	28.9
입대 전 음주 횟수	부산/울산/경남	58	13.8	15.5	32.8	27.6	10.3	37.9	29.3
	주 1회 이상	180	2.2	16.1	31.1	36.1	14.4	50.6	18.3
	월 1~2회	130	8.5	16.2	37.7	27.7	10.0	37.7	24.6
6개월 2회 이하	90	12.2	23.3	27.8	24.4	12.2	36.7	35.6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일주일 기준 혼자 점심 먹는 횟수

[부도 II -29] 일주일 기준 혼자 점심 먹는 횟수

(단위: %)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혼자 점심 먹는 횟수는 일주일에 1~3회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 4~5회 19.8%, 6회 이상 13.5%로 나타났으며, 0회는 27.3%였음
- 일주일에 1~3회라는 응답은 ▶27~29세(53.9%), ▶대학 졸업 이상(43.0%), ▶직장인(43.0%), ▶거주지역 광주/전라/제주(47.6%),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42.2%)에서 높았음

<부표 II -88> 응답자 특성별 일주일 기준 혼자 점심 먹는 횟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0회	1~3회	4~5회	6회 이상	계
전체		400	27.3	39.5	19.8	13.5	100.0
군소속	육군	344	25.3	40.7	20.6	13.4	100.0
	해군/공군/해병대	56	39.3	32.1	14.3	14.3	100.0
연령	19~22세	117	29.9	34.2	24.8	11.1	100.0
	23~26세	207	27.1	37.2	18.8	16.9	100.0
	27~29세	76	23.7	53.9	14.5	7.9	100.0
학력	고졸 이하	43	34.9	34.9	16.3	14.0	100.0
	대학 재학(휴학)	243	22.2	38.7	23.0	16.0	100.0
	대학 졸업 이상	114	35.1	43.0	14.0	7.9	100.0
직업	학생	250	21.6	38.8	23.2	16.4	100.0
	직장인	114	36.8	43.0	14.0	6.1	100.0
	무직	36	36.1	33.3	13.9	16.7	100.0
거주 지역	서울	105	22.9	52.4	12.4	12.4	100.0
	인천/경기/강원	115	29.6	35.7	26.1	8.7	100.0
	대전/세종/충청	42	33.3	31.0	19.0	16.7	100.0
	광주/전라/제주	42	16.7	47.6	28.6	7.1	100.0
	대구/경북	38	21.1	36.8	23.7	18.4	100.0
	부산/울산/경남	58	37.9	25.9	12.1	24.1	100.0
입대 전 음주 횟수	주 1회 이상	180	23.9	42.2	20.6	13.3	100.0
	월 1~2회	130	25.4	40.8	23.8	10.0	100.0
	6개월 2회 이하	90	36.7	32.2	12.2	18.9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Ⅲ> 군간부 조사 설문지

1. 본 조사 문항

1. 귀하는 작년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얼마나 구입하셨습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병

양주: _____ 병

1-2.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주류를 시중가가 아닌 군납면세가로 구매해서 절약한 액수는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만원(구매하지 않은 경우는 0원으로 적어주세요)

2. 귀하는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 골라주십시오.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1~2회
- ④ 6개월에 1~2회
- ⑤ 전혀 마시지 않음(문4로 이동)

3. 귀하의 평소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소주와 맥주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4. 귀하는 작년 1년 동안 본인의 사비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납면세주류를 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문4-1로 이동)
- ② 아니요(문5로 이동)

4-1. (문4에서 ① 응답자만) 그러시다면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1~2회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회, 2회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회

4-2. (문4에서 ① 응답자만) 한 번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주셨습니까?(1~2병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병, 2병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병

양주: _____ 병

5. 귀하는 작년 1년 동안 부대에 배속된 한도가 초과되어 군납면세주류를 구입하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6. 귀하는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A)”과 “양주 면세 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것(B)”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
- ②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

7. 귀하는 면세주류에 대한 아래 내용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각 문항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면세주류 한도를 늘려야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으므로 면세주류 한도를 줄이고 현금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면세주류는 간부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면세주류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귀하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는 몇 년도에 입대를 하셨습니까?

_____년

DQ2. 귀댁의 가구원 전체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시되, 세전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_____만원

DQ3. 귀하의 가구의 전체의 부동산, 금융, 기타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___억 ___천 ___백 ___십 ___만원

DQ4.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다
- ③ 기혼이지만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다

DQ5.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시도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 ⑯ 경남 ⑰ 제주

<부록 IV> 현역 사병 조사 설문지

1. 선정 질문

SQ1. 현재 연령이 만나이로 몇 세이십니까?

만 ()세

SQ2. 귀하는 현재 현역으로 군복무 중입니까? 공익근무나 상근예비역 복무자는 아니므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조사 중단)

SQ3. 현재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SQ4. 어느 군에 소속되어 있나요?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SQ5. 귀하가 군에 입대하기 전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2. 본 조사 문항

1. 귀하는 군납면세주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문2-2로 이동)

2-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얼마나 구입하셨습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양주: _____ 병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이동)

2-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②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③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④ 영내 군납면세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⑤ 기타 _____ (이유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3. 만약에 귀하가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실 것 같으신가요?

- ①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
②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

4. 귀하는 군입대 이후 군의 공식행사 목적으로 부대 내에서 회식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회식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 0회 응답자는 문6으로 이동

4-1. (문4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앞서 응답한 회식 중 술이 제공된 회식은 몇 번이었습니까? 술이 제공된 회식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4-2. (문4-1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술이 나오는 회식 자리에서 술은 평균 얼마나 드셨습니까? 맥주를 기준으로 몇 병인지, 소주를 기준으로 몇 병인지 말씀해 주세요.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 문4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문5에 응답하고, 나머지는 문6으로 이동

5. 군대 공식행사 목적의 회식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매우 긍정적	
	1	2	3	4	5	6	7
1)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의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이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의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이러한 회식/행사가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6)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자신의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나 자신의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나 자신의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1. 만약 군대 공식행사 목적의 회식에서 주류 제공 대신 커피, 치킨, 등 음료나 간식이 제공된다면, 주류가 제공될 때와 비교하여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
- ②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군대 회식에서 주류 대신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군행사 이외에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술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 0회 응답자는 문8으로 이동

※ 문6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문7에 응답하고, 나머지는 문8로 이동

7.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매우 긍정적	
	1	2	3	4	5	6	7
1)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나 자신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태세를 정비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1. 만약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는 대신 커피, 치킨, 등 음료나 간식을 사준다면 술을 사줄 때와 비교하여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적인 회식 자리의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
- ②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 대신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 귀하는 입대 전에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 골라주십시오.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1~2회
- ④ 6개월에 1~2회
- ⑤ 전혀 마시지 않음(문9-1로 이동)

8-1. 입대 전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소주와 맥주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9-1. 귀하는 입대 전에 담배를 피셨습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9-2. 귀하는 현재도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10. 다음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사교적인 모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3)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4)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3.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DQ3으로 이동) ② 대학 재학(휴학)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휴학)
 ⑤ 대학원 졸업

DQ2. (DQ1에서 ②③④⑤ 응답자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라면 학부 전공 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원 이상이라도 학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인문 ② 사회 ③ 자연 ④ 공학 ⑤ 예체능
 ⑥ 의학 ⑦ 기타()

DQ3.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연간 총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따로 나와 살고 있었다면 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 ① _____만원(DQ4로 이동) ② 모르겠다

<부록 V> 군제대자 조사 설문지

1. 선정 질문

SQ1. 현재 연령이 만나이로 몇 세이십니까?

()세 → 만 18세 이하, 만 30세 이상은 조사 중단

SQ2. 귀하는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① 예 ② 아니오(→ 조사 중단)

SQ3. 군복무는 어떻게 하셨나요?

- ① 현역 사병
- ② 공익근무나 상근예비역 등 보충역(→ 조사 중단)
- ③ 장교 및 하사관(→ 조사 중단)

SQ4. 군에서 언제 제대하셨나요?

① 2018년 12월 이전(→ 조사 중단) ② 2019년 1월 이후

SQ5. 제대할 때 계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이병(→ 조사 중단) ② 일병(→ 조사 중단)
- ③ 상병(→ 조사 중단) ④ 병장

SQ6. 어느 군에 소속되어 있었나요?

- ① 육군 ② 해군
- ③ 공군 ④ 해병대

SQ7. 현재 거주하는 시도는 어디였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2. 본 조사 문항

1. 귀하는 군복무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으로 이동)

2-1. 있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얼마나 구입하셨습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양주: _____ 병

2-2. 군복무기간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했을 당시 계급은 무엇이었습니다? 아래 보기 중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이병 ② 일병 ③ 상병 ④ 병장

(→ 문2-2 응답 후, 문3으로 이동)

2-3. 귀하는 군복무기간 동안 군납면세주류를 구매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군납면세주류를 판매하는지 몰랐다
② 군납면세주류를 병사가 살 수 있는지 몰랐다
③ 계급이 낮아서 눈치가 보여서
④ 영내 군납면세주류 구입 한도가 다 차서
⑤ 기타 _____ (이유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3. 만약에 귀하가 군복무 중에 면세주류 구매가 가능했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을 선호했겠습니까?

- ① 현재와 같이 양주 두 병까지를 면세로 구입하는 것을 선호(A)
- ② 양주 면세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B)

4. 귀하는 군입대 이후 군의 공식행사 목적으로 부대 내에서 회식은 몇 회나 하셨습니까? 회식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 0회 응답자는 문6으로 이동)

4-1. (문4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앞서 응답한 회식 중 술이 제공된 회식은 몇 번이었습니까? 술이 제공된 회식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4-2. (문4-1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술이 나오는 회식 자리에서 술은 평균 얼마나 드셨습니까? 맥주를 기준으로 몇 병인지, 소주를 기준으로 몇 병인지 말씀해 주세요.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 문4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문5에 응답하고, 나머지는 문6으로 이동

5. 군대 공식행사 목적의 회식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매우 긍정적	
	1	2	3	4	5	6	7
1)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의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이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이러한 회식/행사가 나 자신의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이러한 회식/행사가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6)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자신의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나 자신의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8) 이러한 회식/행사에서 주류가 제공되는 것이 나 자신의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5-1. 만약 군대 공식행사 목적의 회식에서 주류 제공 대신 커피, 치킨, 등 기타 음료나 간식이 제공된다면, 주류가 제공될 때와 비교하여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군대 회식에서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
- ② 군대 회식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군대 회식에서 주류 대신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군행사 이외에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술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회

(→ 0회 응답자는 문8로 이동)

※ 문6에서 1회 이상 응답자만 문7에 응답하고, 나머지는 문8로 이동

7.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부정적		영향 없음			매우 긍정적	
	1	2	3	4	5	6	7
1)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상관, 조직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2)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전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단결력을 키우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3)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군복무 중 스트레스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4)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신 경험이 나 자신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태세를 정비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7-1. 만약 장교/부사관 등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술을 사주는 대신 커피, 차, 등 기타 음료나 간식을 사준다면 술을 사줄 때와 비교하여 군의 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인적인 회식 자리의 주류 제공 여부와 군 사기는 무관하다
- ②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개인적인 회식 자리에서 주류 대신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군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8. 귀하는 입대 전에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 골라주십시오.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1~2회
- ④ 6개월에 1~2회
- ⑤ 전혀 마시지 않음(문9로 이동)

8-1. 입대 전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소주와 맥주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9. 귀하는 현재 음주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에 골라주십시오.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1~2회
- ④ 6개월에 1~2회
- ⑤ 전혀 마시지 않음(문10-1로 이동)

9-1. 현재 1회 음주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소주와 맥주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단위가 반병일 경우에는 0.5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산이 아닌,
각각을 기준으로 한 주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2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1, 1.5, 2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 _____ 병

맥주: _____ cc

10-1. 귀하는 입대 전에 담배를 피셨습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10-2. 귀하는 군복무 중 담배를 피셨습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10-3. 귀하는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정기적이고 습관적인 흡연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11. 다음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익숙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2) 사교적인 모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3)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4)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다가가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2. 귀하께서 일주일에 혼자 점심을 드시는 횟수는 평균 몇 회 정도 되십니까? 혼자
점심을 먹는 경우가 없으시면 0회로 응답해 주십시오.

()회

3.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이하(DQ3으로 이동) ② 대학 재학(휴학)
-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휴학)
- ⑤ 대학원 졸업

DQ2. (DQ1에서 ②③④⑤ 응답자만)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시라면 학부 전공 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원 이상이라도 학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인문 ② 사회 ③ 자연 ④ 공학 ⑤ 예체능
- ⑥ 의학 ⑦ 기타()

DQ3.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연간 총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기 위해 따로 나와 살고 있었다면 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 ① _____만원(DQ4로 이동) ② 모르겠다

DQ7.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학생 → DQ5로 이동
- ② 자영업(상업, 소규모 장사, 개인택시운전사 등)
- ③ 판매/서비스직(상점직원, 세일즈맨, 방문 판매원, 미용사 등)
- ④ 기능/숙련직(운전기사, 세탁, 선반, 목공, 기능공 등)
- ⑤ 일반 작업직(현장직업, 일용노무직, 청소관리, 경비원 등)
- ⑥ 사무직(차장이하 사무직, 초중고 교사, 6급 이하 공무원)
- ⑦ 경영/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 ⑧ 전문/자유직(변호사, 의사, 건축사, 교수,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 ⑨ 농/임/어업
- ⑩ 기타 직업
- ⑪ 무직 → DQ8로 이동

DQ7-1. 지금과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년 수를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되십니까?

()년

DQ8.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에 응답한 경우는 설문 종료

DQ8-1. 귀하는 현재 여자 친구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